연구보고서 2018-44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황남희 · 유재언 · 김세진 · 이선희 · 김난주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8-44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발 행 일 2018년 12월
저 자 황 남 희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현대아트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ISBN 978-89-6827-574-6 93330

발간사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불과 7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여기서 생산적 활동의 협소한 의미는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며, 포괄적인 의미는 소득을 창조하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노년기 연구는 대부분 65세 혹은 60세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한다. 하지만 경제활동 혹은 생산적 활동 관련 연구는 55세 혹은 50세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 정년연령은 60세이지만,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49.1세이다(통계청, 2017). 따라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60대 이전부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이 연구는 예비 노인을 포함하여 노년기 생산적 삶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자 기획하였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노화 혹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돌봄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년기 사회적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원은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유재언 부연구위원, 김세진 전문연구원, 이선희 전문연구원, 원외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 정경희 부원장과 김주현 충남대학교 교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연구가 관련 연구 분야의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5

제1절 생산성 ····· 17

제2절 생산적 활동과 가치 ····· 21

제3절 소결 ····· 29

제3장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 현황 ····· 31

제1절 경제활동 지원 정책 분석 ····· 33

제2절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 분석 ····· 45

제3절 소결 ····· 51

제4장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 53

제1절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 55

제2절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 67

제3절 소결 ····· 94

제5장 생산적 활동 참여 및 생산성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 97

제1절 사례 연구 개요 ····· 99

제2절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 ····· 104

제3절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 ····· 109

제4절 생산성에 대한 인식 ····· 121

제5절 소결 ·····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 지원 방안 ····· 129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131

제2절 정책 지원 방안 ····· 134

참고문헌 ····· 141

부 록 ····· 149

부록 1.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 참여 현황 ····· 149

표 목차

〈표 2-1〉 생산적 노년 지표 ····· 28
〈표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용 정책 ····· 34
〈표 3-2〉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 35
〈표 3-3〉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 37
〈표 3-4〉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지원 서비스 및 내용 ····· 39
〈표 3-5〉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 41
〈표 3-6〉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종합계획 ····· 42
〈표 3-7〉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 정책: 기타 부처 ····· 43
〈표 3-8〉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 정책: 지자체 ····· 44
〈표 3-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참여 정책 ····· 45
〈표 3-10〉 노년기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 48
〈표 3-11〉 노년기 학습활동 지원 정책: 중앙정부 ····· 50
〈표 3-12〉 노년기 학습활동 지원 정책: 지자체 ····· 51
〈표 4-1〉 기초통계량 ····· 60
〈표 4-2〉 고령근로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의 관계 추정 결과 ····· 63
〈표 4-3〉 고령근로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의 관계 추정 결과 ····· 65
〈표 4-4〉 생활시간조사 행동 분류와 생산적 활동: 대분류 기준 ····· 70
〈표 4-5〉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 중 생산적 활동 범위: 대중소 분류 기준 ····· 70
〈표 4-6〉 생산적 활동 시간사용 분석 변수 ····· 73
〈표 4-7〉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1999~2014년) ····· 74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1999년) ····· 78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04년) ····· 79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09년) ····· 80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14년) ····· 81
〈표 4-12〉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전체, 연간, 명목, GDP 대비 ····· 83

〈표 4-13〉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전체, 연간, 실질 ···· 84
〈표 4-14〉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1인당, 연간, 명목 ···· 85
〈표 4-15〉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참여자 1인당, 연간, 명목 ···· 87
〈표 4-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년),
1인당, 연간, 명목 ···· 90
〈표 4-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04년),
1인당, 연간, 명목 ···· 91
〈표 4-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09년),
1인당, 연간, 명목 ···· 92
〈표 4-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14년),
1인당, 연간, 명목 ···· 93
〈표 5-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생산적 활동 ···· 103

그림 목차

[그림 4-1]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 분포 ···· 61
[그림 4-2] 고령근로자 비율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 62
[그림 4-3]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 75
[그림 4-4]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전체, 연간, 명목 ···· 83
[그림 4-5]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전체, 연간, 실질 ···· 84
[그림 4-6]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1인당, 연간, 명목 ···· 85
[그림 4-7]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참여자 1인당, 연간, 명목 ···· 87
[그림 6-1]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및 GDP 대비 비율: 전체, 연간, 명목 ··· 132

부표 목차

〈부표 1-1〉 고령자의 경제활동 분석 ····· 149
〈부표 1-2〉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연령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 158
〈부표 1-3〉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학력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 159
〈부표 1-4〉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배우자 유무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 160
〈부표 1-5〉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연령별 시간당 임금 ····· 161
〈부표 1-6〉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학력별 시간당 임금 ····· 162
〈부표 1-7〉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배우자 유무별 시간당 임금 ····· 163
〈부표 1-8〉 고령자의 연령별 생애 취업 경험 ····· 164
〈부표 1-9〉 고령자의 학력별 생애 취업 경험 ····· 165
〈부표 1-10〉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생애 취업 경험 ····· 166
〈부표 1-11〉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생애 취업 경험(2017. 5.) ····· 167
〈부표 1-12〉 고령자의 연령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 168
〈부표 1-13〉 고령자의 학력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 169
〈부표 1-14〉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 170
〈부표 1-15〉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 171
〈부표 1-16〉 고령자의 연령별 구직 경험 ····· 172
〈부표 1-17〉 고령자의 학력별 구직 경험 ····· 173
〈부표 1-18〉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구직 경험(2017. 5.) ····· 174
〈부표 1-19〉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구직 경험 ····· 174
〈부표 1-20〉 고령자의 연령별 계속 근로 여부 ····· 175
〈부표 1-21〉 고령자의 학력별 계속 근로 여부 ····· 176
〈부표 1-22〉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계속 근로 여부 ····· 177
〈부표 1-23〉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계속 근로 여부 ····· 177
〈부표 1-24〉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 178
〈부표 1-25〉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 179
〈부표 1-26〉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 180

〈부표 1-27〉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 180
〈부표 1-28〉 고령자의 연령별 일자리 선택 기준 ····· 181
〈부표 1-29〉 고령자의 학력별 일자리 선택 기준 ····· 182
〈부표 1-30〉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일자리 선택 기준 ····· 183
〈부표 1-31〉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일자리 선택 기준 ····· 183
〈부표 1-32〉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근로 형태 ····· 184
〈부표 1-33〉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근로 형태 ····· 185
〈부표 1-34〉 고령자의 배우자 희망 근로 형태 ····· 186
〈부표 1-35〉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근로 형태 ····· 186
〈부표 1-36〉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임금수준 ····· 187
〈부표 1-37〉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임금수준 ····· 188
〈부표 1-38〉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희망 임금수준 ····· 189
〈부표 1-39〉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임금수준 ····· 189

부도 목차

[부도 1-1] 고령자의 성별 인구 현황(2007~2017) ····· 150
[부도 1-2] 고령자의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2007~2017) ····· 152
[부도 1-3]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2007~2017) ····· 153
[부도 1-4]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실업률(2007~2017) ····· 154
[부도 1-5] 고령자의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7~2017) ····· 155
[부도 1-6]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009, 2014, 2017) ····· 157

Abstract

Measures for Supporting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Life In Response to Super-Aged Society

Project Head· Namhui Hwang

This study intends to objectively propose social contribution of older persons by estimating productivity and economic value from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life and to draw measures to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lif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productivity of aged workers by using Workplace Panel Survey and Fixed Effects Model. As a result, negative effects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 the workplace on corporate productivity cannot be confirmed. At a time when there exists no academically-agreed conclusion on the level of productivity in later years compared to that of other life cycle phases, the outcome of the study can indicate that negative social awareness on productivity in later life needs to be reviewed.

The economic value of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years amounts to 300 trillion won as of 2014, taking up 20.2% of total Korean GDP. Recently, the amount of time put into productive activities of older persons has slightly decreased, but the eco-

*Co-Researchers: Jaeeon Yoo·Sejin Kim·Sunhee Lee·Nanjue Kim

nomic value of productive activities has been on upward trend due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aged 55 or older. The economic value of work among productive activities stands at 117 trillion won (11.9% of GDP), whereas the economic value of unpaid housekeeping labor is 123 trillion won (8.3% of GDP).

To conclude the outcome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social perception on productivity in later years needs to change in a positive direction. Currently, Korean society has no reliable experiential grounds on productivity in later life and therefore, it should be reviewed if a decline in productivity is construed as a general notion;

Second, the participation into productive activities by middle-aged and aged persons should be made voluntarily based on their own decisions. Involuntary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years such as economic activities, housekeeping labor and care for family members should be minimized with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family care support;

Third, various user-centered productive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nd improvement of delivery system. To accomplish these goal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ffairs with government agencies and institutions which currently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life should be facilitated smoothly.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불과 7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index 2018. 10. 4. 인출). 이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보다 체계적인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와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여 경제적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한국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들은 주로 전문직, 전기 노인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비전문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가정 내의 무급 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사업체 내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노년기 생산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으로 이는 GDP 대비 20.2%를 차지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55세 이상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는 177조 1510억 원(GDP 대비 11.9%)이며, 무급가사일은 123조 190억 원(8.3%)이다.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 100조 9190억 원(6.8%), 가족돌봄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이다.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는 1) 사회적 역할 찾기, 2) 생계를 위해 일 참여, 3) 강요된 가족돌봄 선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은 1) 생산적 활동의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2) 다수의 생산적 활동 참여, 3) 생산적 활동 선택에서 개인적 차

이, 4) 노년기 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 5) 경제적 보상의 임의성과 낮은 수준, 6) 일터 환경의 고령친화성 부족, 7) 자원봉사 욕구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며, 일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은 1) 사회적 저평가와 일할 기회 부족으로 생산성 발휘 기회 부족, 2) 업무 영역별 생산성의 차이, 3) 생산성에서 고령자로서 강점 존재, 4) 노년기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연한 근로환경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자 이미지 및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신뢰할 만한 경험적인 근거 없이 노년기 생산성 저하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세대 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 불충분한 가족돌봄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등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강요된 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노년기에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일, 자원봉사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정책 수요자인 고령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돌봄이나 가사활동 등 보다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터에서 동료로서 보다 늦은 나이까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요구된다. 고령자에게 맞는 탄력적 노동계약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기업 내에 도입한 경우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년기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구특성별로는 저학력 노인, 후기 노인, 비전문가 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반 노년기 인력의 활용, 다양한 생산적 활동 참여 등의 차원에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여덟째, 수요자 중심에서 노년기에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생산적 활동, 가사활동, 생산성, 경제적 가치, 시간사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불과 7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index 2018. 10. 4. 인출). 이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여기서 생산적 활동의 협소한 의미는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며, 포괄적인 의미는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및 정부의 관심은 인구고령화로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미성숙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활동 중 협소한 의미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중·고령자 근로 기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정책 대상은 중장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지원 일자리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일자리 내용과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다. 이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공급자 중심적 체계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노인자원봉사와 노인자원봉사클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대상 사회공헌활동, 교육부는 교원 대상 은퇴 인력 활용, 행정안전부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산적 활동에 포함되는 가정 내 노인의 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에서는 정책 지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사활동 및 노인돌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생산적 활동 지원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졌다(Mitchell, 1921). 생산적 활동 중 국민계정에서 제외된 가사노동(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관련 이동)을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국가별 적용 연구(Reid, 1934; Murphy, 1978; Moon, 2001; Hamdad, 2003; 김준영, 2003; Abraham & Mackie, 2005; 황남희, 2013)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DP 대비 가사노동 비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박병률, 2017).

우리 정부는 무급 가사활동을 추계하여 국민계정의 보완지표(국민계정의 가계생산 위성계정)로 활용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맞춰 무급 가사활동의 추계에 필요한 생활시간조사를 1999년부터 5년마다 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10월 최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공식 통계를 개발 및 적용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발표하였으며(통계청, 2018), 향후 지속적으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생산·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가계 부문에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학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화를 인간 발달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면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후(active aging)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등의 모델을 통해 노후에 어떻게 잘 늙어 갈 수 있는지(aging well)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Walker, 2006; 김정현, 노은영, 권혜영 2017에서 재인용), 각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이들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성공적 노화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모델을 포괄하며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노화와 그에 따른 기능 및 능력 전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Willcox & Willcox, 2007). 활동적 노화는 200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시한 정책 틀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다(Walker, 2006; 김정현, 노은영, 권혜영, 2017에서 재인용). 생산적 노화는 노인은 병약하고 의존적이라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 지역,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체로 바라본다(Jung, Gruenewald, Seeman,

& Sarkisian, 2010; 김정현, 노은영, 권혜영, 2017에서 재인용). 또한 노인의 기술과 전문성,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회참여에 보다 중점을 둔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는 노년기 생산적 삶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노화 혹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돌봄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가시화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성, 즉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보다 체계적인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과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생산성의 의미와 생산적 활동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노년기 생산성에 대해 사회적인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각종 기본계획에 제시된 생산적 활동을 살펴보고, 생산적 활동별로 혹은 부처별로 지원 정책 내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셋째, 실증 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생산성을 추정하고,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6~2016년)를 이용하여 기업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기업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 후 경제적 가치의 규모를 측정한다. 즉 전자의 분석은 기업의 관점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인식, 후자의 분석은 노인 개인의 관점에서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사례연구(FGI)를 한다. 이는 양적 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인식과 생산적 참여 동기와 특성 등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후 노년기 생산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뿐 아니

라 노인 스스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한다. 통계청의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55~79세의 고령 인구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49.1세로 남성이 51.4세, 여성이 47.2세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퇴사한 사람 중 현재 취업한 사람은 52.6%이며, 앞으로 72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통계청,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예비 노인인 만 55세 이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산적 활동 유형 중 경제활동은 일, 유급노동, 소득활동, 취업활동, 임금노동 등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자나 정책별로 경제활동에 대해 위와 같은 용어를 널리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생산성
제2절 생산적 활동과 가치
제3절 소결

2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생산성

1. 생산성의 정의

생산성(Productivity)은 일반적으로 산출물의 가치를 투입물의 비용으로 나눈 값(안영진, 유영목, 1999)으로 정의되는데, 산출과 투입을 무엇으로 보느냐 등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생산성을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산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조직이 목표로 하는 성장과 구성원의 행복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2018. 6. 25. 인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는 생산성을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나는 지표로 보고 있으며, 생산요소를 합한 모든 요소(총 요소 생산성) 또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산출량이나 부가가치를 해당 생산량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 노동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ILO, www.ilo.org 2018. 6. 25. 인출).

ILO의 정의에서와 같이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원생산성, 총생산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된다. 먼저 노동생산성은 생산성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매출액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화폐가치로 노동자 한 명이 한 시간에 생산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다. 원생산성

은 매출액을 인건비로 나눈 값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노동생산성과 원생산성은 노동시간 또는 인건비만을 고려한 것으로 부분생산성지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생산성은 표준가격으로 산정된 생산량을 인건비, 원자재비, 간접비, 시설투자비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안영진, 유영목, 1999).

이와 같이 생산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항목들 중 노동생산성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증가와 이들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 효율의 향상 정도, 기술 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경제적 효율성, 성과 배분, 국제경쟁력 비교 등의 지표로 이용된다(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2018. 6. 25. 인출).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은 그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인적 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능력, 기술 숙련도, 지식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역량에 따라 노동생산성(노동의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김문정, 2017). 즉 단순한 물질적 차원의 투입과 산출의 개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출물과 투입물이 비교적 정확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무형 재화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때문에 산출물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는 투입물의 가치 측정도 쉽지 않다. 특히나 서비스업은 투입물이 노동력인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이 더욱 어렵다(안영진, 유영목, 1999).

2. 노년기 생산성

전 세계 학자들은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주목하며,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년기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노년기의 생산성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양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노화에 따른 능력 감소가 있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인적자본이론 차원과, 노화와 생산성의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생산성은 인적자본의 함수이며(Becker, 1962),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석진홍, 박우성, 2014). 또한 연령의 증가도 생산성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지만, 근로자의 경험이 생산성 및 성과에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iniger, Dispenzieri & Eisenberg, 198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령자의 생산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노년기의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노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 효율성·임금모델 등으로 논의된다. 먼저 노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따른 논의는 일반적인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인지적 쇠퇴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말하는 것이다. 효율성·임금모델에 따르면 경력 초기에는 임금수준이 생산성을 밑돌다가 경력 후기에는 임금이 생산

성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고령 인력의 증가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5; 장일현, 이상민, 유규창, 2012; 박지성, 김성수, 2014; 석진흥, 박우성, 2014; 안선영, 김동헌, 2014), 일부 연구에서는 50대를 기점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며 연령과 생산성 간의 역U자 관계를 제시(Göbel & Zwick, 2012; Van ours & Stoeldraijer, 2011)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은정(2016)은 인력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보완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석진흥, 박우성(2014)은 기업의 고령 인력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가 낮아짐을 제시하였다. 안선영과 김동헌(2014)은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의 실증분석을 한 결과 55세 이상 노동자들이 1% 증가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일현, 이상민과 유규창(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연령과 생산성 간에 명확한 관계가 없으며(장윤섭, 양준석, 2017), 개인, 업무영역, 전문성 등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Waldman, & Aviolo, 1986; AARP, 1996). 즉 개인마다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과 작업 성과를 관련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박경하, 2011). 특히 최근 고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인지능력을 많이 활용하거나 숙련도가 중요한 직종에서는 나이가 많아 고령근로자가 되어서도 생산성이 유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Ours, & Stoeldraijer, 2011; 지은정, 2017 재인용).

이를 종합할 때 기업 근로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부(-)적인 효과를 보이나, 멘토링을 비롯한 교육훈련 등의 대처기제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의 고령 근로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문정(2017)에 의하면 기업주가 느끼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신속성이나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받아들이는 습득력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생애 경력이나 경험, 교육훈련 등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고령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강화,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역시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김문정, 2017).

지금까지 노년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들은 물질적,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적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후인 노년기 생산성에 대해서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절 생산적 활동과 가치

1.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의미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생산성과 연결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 생산적 역할(productive role), 생산적 역할 활동(productive role activity),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등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문정란, 2011).

생산적 노화의 주창자인 Butler(1975, 1985, 1995)는 생산적 노화를 '우리가 늙어 감에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성을 발현시키고 촉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령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노인의 생산적인 잠재성과 능력 그리고 노동, 가족 공동체 기여에 대한 강조를 통해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했다(김정석, 조현연, 2017). 이는 앞서 살펴본 생산성의 개념과 맞물려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생산성 측면을 강조한 유급의 근로활동 중심 협의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민, 최화강(2009)은 노년기의 일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생산적 활동의 일반적 관점에 입각하여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유급노동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표 2-1〉과 같이 상당수의 연구들은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광의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Caro, Bass, & Chen(1993)은 '가치를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경제적 생산과 그것을 생산해 내는 능력 개발'로 생산적 활동을 정의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노인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까지 포괄하였다. 이에 경제활동 외에도 무급의 노동, 자원봉사, 가족돌봄,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활동 참여까지도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Rowe & Khan(1998)은 화폐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모든 활동을 생산적 행위로 보았다. Herzog, Kahn, Morgan, Jackson & Antonucci(1989) 역시 소득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 어린이 보호,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Butler & Gleason(1985)과 Butler & Schechter(1995)는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기돌봄까지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켰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의 중요성과 함께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로

이를 분류하고 있다.

김주현(2007)은 노인이 스스로 가치를 발휘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정의하였다. 또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가사노동,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자기개발을 위한 적극적 취미여가활동)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 내는 노인의 활동 전반으로 생산적 활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정훈, 이한우, 이옥자(2014)는 노년기 무급의 공식, 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을 노인의 가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무급의 공식적 활동(복지시설 이용, 사회단체활동, 투표, 자원봉사)과 비공식적 활동(친구 만나기, 가사활동, 손자녀돌봄, 취미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박정호(2012)는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으로서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며, 친족지지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취업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2009) 역시 기존의 경제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 보살피기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도 생산적 활동으로 검토하였다. 김진욱(2006)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자원봉사, 사회참여, 비공식적 보살핌 및 지원 제공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활동을 생산적 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홍현방, 2005; 전혜정, 2007; 문정란, 2011).

지금까지 논의된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차원 외에도 생산적 활동의 범위에 가족돌봄, 자원봉사, 학습,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활동 등과 같은 노년기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독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 등도 생산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utler & Gleason(1985)은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모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재인용).

2. 경제적 가치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크게 경제적 가치로 한정하여 살펴본 것과 비경제적 가치로 확장하여 살펴본 것으로 구분된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은 투입접근법(input approach), 산출접근법(output approach), 투입·산출법(input-output approach)이 있다. 투입접근법은 비시장 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시간당 평균임금률을 곱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용이하며,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Goldschmidt-Clemont, 1993; 김준영, 2003; 황남희, 2012 재인용).

투입접근법은 적합한 임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의중임금법(resevation wage method)으로 구분되며, 대체비용법은 다시 일반대체비용법(generalist replacement cost method)과 전문가대체비용법(specialist replacement cost method)로 구분된다(문숙재, 최민영, 2002).

기회비용법은 해당되는 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의중임금법은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최소

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대체비용법은 개인 자신이 비시장 노동에 시간을 투입하고 시장을 통해 제3자가 그 시간을 대체할 경우 지불하는 임금으로 사회에서 평가하는 비시장노동의 가치인 시장대체재의 가격을 적용한다. 시장대체재에 전문성을 부여하면 전문가대체비용법(specialist replacement cost method)으로 볼 수 있으며(황남희, 2012), 평가 대상이 되는 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직업의 임금수준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대체비용법(generalist replacement cost method)으로 볼 수 있다(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즉 전문가대체비용법은 비시장 노동을 개별 기능으로 나누어 개별 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비시장 노동의 가치로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일반대체비용법은 비시장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그 평균임금률로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추계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추정은 적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회비용법이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되며, 그다음은 전문가대체비용법, 일반대체비용법 순이다(황남희, 2012).

그 외 산출접근법은 가정에서 생산된 산출의 가치를 시장의 유사한 품목과 비교하여 가정에서 수행된 노동을 화폐로 추정하는 것이다(문숙재, 최민영, 2002). 그러나 이는 산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 투입접근법과 산출접근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투입·산출법도 이용자료의 제한 등으로 매우 드물게 시도되고 있다(Landefeld, Fraumeni & Vojtech, 2009).

이와 같은 추정 방법은 그동안 가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적용되었다.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2009)은 한국 노인의 생산활동을 노동시장참여활동, 가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세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여 일반대체비용법을 적용하였다. 가사활동(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가사 및 관련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활용하였고, 자원봉사활동(참여 및 봉사활동)은 '전 직종의 평균임금', 유급노동(노동시장 참여활동)은 '대분류 직업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농가 노인(80.9%)이 비농가 노인(28.6%)에 비해 생산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혹은 거주 지역에 따른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권태희(2006)는 한국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전통적인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을 세분화한 전문가대체비용법, 일반대체비용법,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외에도 필자가 응용한 Hybrid 비용법을 사용하여 연령 및 세부 활동별로 추계하였다.

김영옥, 김영숙, 이선행(2010)의 연구에서는 산출접근법을 통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각 가구의 의료비 및 유급돌봄서비스 비용의 절감분을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최종 생산물로 보고,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대체재인 유급 노인돌봄서비스 및 의료비 절감 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 시간(금전적인 보상 없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제공받는 돌봄서비스 시간)을 X변수, 유급돌봄서비스 및 의료비를 Y변수로 하고, 2SLS 방식으로 모형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윤자영(2010)은 자녀 양육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상실하는 소득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대체비용으로 활용하여(대체비용법) 부모가 자녀 돌

봄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윤자영, 2010).

3. 비경제적 가치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앞서 언급한 경제적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생산적 활동이 노년기의 행복지수(이주일, 2011), 삶의 만족도(김주현, 2007; 김상범, 2011; 이정훈, 이한우, 이옥진, 2014),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박경하, 2011; 지은정, 2017)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주일(2011)은 생산적 노년을 '첫째, 할 일을 가지는 것(정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조절을 하는 활동), 둘째, 경력개발활동(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제반 활동), 셋째,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활동), 넷째, 자원봉사활동(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 차원에 따른 2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각 문항별 노후가 되었을 때 바람직한 노후 상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젊은 세대일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 고령 세대들은 할 일을 가지는 것과 자녀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들에 국한되어 바람직한 노년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 추구적 활동, 경력개발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이 행복지수와 긍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일, 2011).

〈표 2-1〉 생산적 노년 지표

차원	정의
할 일을 가지는 것	1. 연금이나 자식이 주는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2. 정기적으로 (월급이나 주급 등)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한다
	3.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4. 매일 또는 매주 해야 할 일이 있다
	5,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
경력개발 활동	6.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7.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 등을 수강하고 있다
	8. 독서나 TV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9.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10.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11.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12. 자녀들의 고민이나 인생 상담을 한다
	13. 일을 하는 자녀들의 가사를 도와준다
	14.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15. 형편이 어려운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다
자원봉사 활동	16.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7.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18.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는 활동을 한다
	19. 동네나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눈 치우기, 길거리 청소, 교통정리 등)을 한다
	20. 선거나 지역의 중요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료: 이주일(2011). 노인의 일과 행복 : 생산적 노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 62 〈 표 5〉를 저자가 재구성함.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돌봄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노년기 경제활동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중돈, 조주연, 2000; 윤순덕, 한경혜, 2004; 홍현방, 2005) 외에도 노년기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 기부 참여 경험, 신체적 건강증진활동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상범, 2011)가 있다. 김주현(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지원활동과 자기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점이 확대되면서 노년기 경제활동보다는 비경제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생산적 활동 영역인 공식·비공식적 활동에서 생활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한 연구(이정훈, 이한우, 이옥자, 2014)도 있다.

또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지은정(2017)은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는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더라도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연령차별이 감소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박경하(2011)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 인력을 고용한 기업일수록 고령 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정도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노인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소결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생애주기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많았다면, 최근으로 오면서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는 기업 내에서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성의 변화는 없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생산적 활동은 유급의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일,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의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적 활동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비경제적으로도 행복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노년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노동시장 내의 경제활동 참여 지속, 가정 내에서 역할 부여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생산성, 경제적 가치 환산, 비경제적 가치 확인 등 하나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2006~2016년)를 이용하여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이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른지 살펴보고, 생활시간조사(1999~2014년)를 이용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자 개인의 인식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 생산성 및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내 관련 실증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3 장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 현황

제1절 경제활동 지원 정책 분석
제2절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 분석
제3절 소결

3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 현황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범부처 기본계획(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종합계획)과 부처별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1절 경제활동 지원 정책 분석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 증가, 일할 수 있는 또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과제로 '중고령자 근로 기반 확대'를 위해 ①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 지원, ②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③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④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⑤ 중고령자 창업 지원체계 활성화, ⑥ 고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⑦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⑧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용 정책

중분류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중·고령자 근로 기반 확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 지원	-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	고용부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 검토	고용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부여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도입	고용부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 민간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 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이모작지원제도의 연계 - 취업 지원체계 강화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 장년 취업 인턴제 확대	복지부 /고용부
	중·고령자 창업 지원체계 강화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기술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실습·사업화코칭·멘토링 중심 프로그램 개편 등 - 퇴직자 적합 창업 기회 제공 강화 · 사회적 기업 창업 전문 과정 확대 · 협동조합 활성화	고용부 /기재부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고령근로자 적합 시설 및 품목 지원 - 고령근로자 친화적 선도 기업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고용부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 제도 활성화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및 장년 활용형 신사회적기업 모델 활성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고용부 /과기부 /중기청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추진	- 고령 기준 재정립 관련 연구 용역	복지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144-151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 세대를 '신중년' 세대로 명명하고, 이들을 위한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하여 신중년들이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ing)를 보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계획은 ①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② 비생계형 기술 창업 활성화, ③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④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⑤ 체계적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2〉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번호	정책 과제	부처
1.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1-1.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	고용부
1-2.	실업급여 단계적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고용부
1-3.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 개발, 제도화	고용부
1-4.	대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부
1-5.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추진	고용부
1-6.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	고용부
1-7.	지자체 협업형 신중년 훈련과정 신설	고용부
1-8.	유급휴가훈련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	고용부
1-9.	신중년 적합 직무 개발·확산	고용부
1-10.	신중년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고용부
2. 비생계형, 기술 창업 활성화		
2-1.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 지역·업종 진입 억제	중기부
2-2.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지원	중기부
2-3.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 강화	중기부
2-4.	세대융합형 기술 창업 확대	중기부
2-5.	소상공인의 기술교육 접근성 제고	중기부
2-6.	영세 재기 사업자의 소액 체납액 면제	기재부
2-7.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및 수급권 보호	중기부
2-8.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고용부
2-9.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고용부
3.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3-1.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농식품부/해수부
3-2.	체류형 농어업 창업 지원	농식품부/해수부

번호	정책 과제	부처
3-3.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귀농, 귀어, 귀촌 지원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3-4.	귀농, 귀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3-5.	현장실습형 기술교육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3-6.	정착 초기 부담 완화	농식품부/해수부
3-7.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	농식품부/해수부
3-8.	지역 일자리 연계 활성화	농식품부/해수부
4.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4-1.	신중년 자원봉사 저변 확대	행안부
4-2.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고용부
4-3.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	복지부
4-4.	사회적 경제 영역 참여 확대	고용부/행안부
5. 체계적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5-1.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고용부
5-2.	체계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복지부
5-3.	신중년 지원 기관 공간적 통합 추진	부처합동
5-4.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고용부
5-5.	관계 부처 합동 홍보 및 교육	부처합동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8. 9.).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pp. 26-27.

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17-2021)'을 통하여 노인과 중장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은 '55+ 현역시대, 일과 함께 활력 있는 장년'이라는 비전하에 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② 장년 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 개발 여건 조성, ③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재취업 지원, ④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 전반에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3-3〉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중분류	과제명	주요 내용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정년제 실효성 확보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위한 체계적 여건 조성 - 60세 정년제 정착을 위한 조사, 감독 및 캠페인 강화 - 고령자 고용 의무 규정 재편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장년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 장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연금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60세 이후 고영 연장 촉진과 추가 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
장년 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 개발 여건 조성	장년층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 확충	- 기초적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및 역량 강화 교육 - 직종별 특화훈련 기반 마련 - 지역 수요에 맞는 훈련 과정 확대
	재직 단계부터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근로시간 단축 지원 - 훈련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율 제고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재취업 지원	생애 전환기 집중관리와 전직지원 책임성 강화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산 - 퇴직 예정자 전직지원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고도화된 장년 고용서비스	- 대국민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온라인 서비스 고도화로 매칭 효과성 제고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퇴직 인력 활용 모델 확산	- 지자체 협력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확산 - 퇴직 인력의 사회공헌 모델 개발 확산 - 중소기업과 퇴직 인력 매칭 강화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세대 융합 창업 지원 - 귀농·귀어 활성화 - 귀산촌 창업 지원 - 노인일자리 확충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단계적 적용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중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 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보장 강화
	정책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역량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이러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들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직접적 고용서비스와 지원금을 통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혹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의 연령 및 지급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며,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장년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유지의 목적으로 지원된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된 임금 일부가 지원된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24만 원을 지원한다.

직접적 고용서비스 지원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고령자인재은행을 시행 중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단,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연계하는 것으로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연계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앞선 제도와 차이를 두며, 직업 알선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를 운영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애경력서비스를 통해 재직자의 경우 경력자산 발견 및 생애경력

설계지원서비스를, 구직자의 경우 재취업 및 창업 등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건설현장안전보건지킴이와 같은 직접 고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업계 퇴직자를 대상으로 중소 건설 현장의 순회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표 3-4〉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지원 서비스 및 내용

구분		사업명[1]	대상	주요 내용
현금 지원	기업	고용연장지원금	- 60세 이상 고용 사업주 등	- 장년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
	중장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된 임금 일부 지원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에 일정 금액 지원
	기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2]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24만 원 지원
직접 고용 서비스 지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 만 50세 이상 퇴직자	-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사회공헌활동 기회 제공(1일 최대 2만 4000원 지급)
	중장년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생애설계서비스)	- 만 40세 이상 중장년	-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 지원 등
	중장년	고령자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 퇴직자	- 만 50세 이상 장년 대상 구인, 구직 등록,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
	중장년	건설현장안전 보건지킴이[3]	- 만 56세 이상 건설업계 퇴직자	- 건설업계 퇴직자들이 중소 건설 현장의 순회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채용일로부터 7개월(주 5일 1일 8시간) - 일 7만 원(식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do(2018. 4. 27. 인출)
2)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2018. 5. 17. 인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8). 2018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http://www.kosha.or.kr/kosha/intro/northernGyeonggiBranch_A.do?mode=view&boardNo=166&articleNo=352111&attachNo=(2018. 5. 17. 인출)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정책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 중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참여 자격은 사업 유형별로 차이를 두는데,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단,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 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둔다. 보건복지부가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선발 기준에 맞는 신청자를 통합적으로 선발한다.

사업 유형은 2004년 사업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2018년 사업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 사회활동으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 민간 노인일자리로 시장형사업단, 인력 파견,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이 운영된다. 공익활동으로는 노노케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능나눔활동의 경우 재능을 보유한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노인문화복지활동, 취약 노인 발굴·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 노인일자리에는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시장형)하거나 수요처에 희망 노인 파견(인력파견형),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촉진(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고용 기업 설립 지원(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에 간접비용 지원(기업연계형) 유형 등이 포함된다(〈표 3-5〉 참조).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행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이들의 취업 역량 향상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3-5〉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유형[1]		대상	주요 내용	지원 사항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	월 27만 원 9(12)개월 활동비
	재능나눔 활동	만 65세 이상	-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등	월 10만 원/6개월 활동비
일자리	시장형	만 60세 이상	-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월 210만 원 사업비
	인력파견형		-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 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월 15만 원 사업비
	시니어 인턴십		- 민간 기업 인턴(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월 최대 45만 원/6개월 인건비 보조
	고령친화 기업		- 노인 적합 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설립 또는 우수 고용 기업 지원	최대 3억 원 사업비
	기업연계형		-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서비스 등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사업비(설비 등)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노인 취업 역량 향상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2. 9.).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 9.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 www.100senuri.go.kr (2018. 5. 7. 인출)

또한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인구의 특성 다양화와 취약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하였고, 현재 시행 중이다.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3-6〉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종합계획

정책 과제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직무역량지표 개발 -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인프라 강화	- 60+ 일자리 DB(가칭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 노인 생산품 공동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 상권 분석 및 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 -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 -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보건복지부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 전략 직종 중심으로 시니어 인턴십 개편 - 세대 통합형 일자리 지원 - 우수 노인 고용 기업 인증 및 지원 - 시장형 사업단 자립 촉진 - 기업의 고용 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활성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우수노인 고용 기업 인증 및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시니어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 기여사업 육성 - 재능 나눔 및 노인자원봉사 효율화	보건복지부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 9.).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 6.

그 외에도 경찰청에서는 75세 이상 경찰, 군인, 소방학교 등에서 관련 근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은퇴한 전문인력이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순찰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고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을 통하여 중장년의 창업을 돕고 있다. 이는 시니어창업기술센터와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시니어창업기술센터는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기술창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대융합창업캠퍼스는 중장년과 청년 간 팀을 구성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멘토링,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여 청년과 고령 인력 간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주 15시간 월 65만 원의 급여가 제공된다.

〈표 3-7〉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 정책: 기타 부처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아동안전지킴이[1]		75세 이하 경찰, 군 소방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자 또는 아동 관련 경력자 중 신체 건강자	- 퇴직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등 아동 대상 범죄 다발 지역 및 여성 안심, 서민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 월 45만 1800원(1일 3시간, 주 5회)	경찰청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1]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주관 기관 운영비, 창업 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중소 벤처 기업부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중장년(만 40세 이상)과 청년(만 39세 이하) 간 팀을 구성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사무 공간 등 인프라 제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		만 18세 이상,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 65세 미만: 월 115만 원 정도(주 30시간 이내, 간식비 포함) - 65세 이상: 월 65만 원 정도(주 15시간 이내, 간식비 포함)	행정 안전부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2018. 5. 17. 인출)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50+ 보람일자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만 50~67세의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발달일상수리지원단, IT지원단,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등), 세대통합(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학교안전관리지원단, 경로당 복지파트너 등), 50+ 당사자 지원(50+ 학습지원단, 50+ 컨설턴트)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월 57시간 이내로 활동하며, 50+ 인식 전환 및 변화 관리, 앙코르 커리어 이해, 세부 사업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50+ 세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 교육, 여가, 취업,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연계(구인·구직) 사업,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8〉 노년기 경제활동 지원 정책: 지자체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자체
50+ 보람일자리[1]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	- 사회서비스, 세대 통합, 당사자 지원 관련 활동 지원 - 직무교육(인식 변화, 앙코르 커리어 등) - 월 52만 5020원(월 57시간 이내)	서울시
사회공헌활동 사업[2]	만 50세 이상~65세 미만의 부산시 거주 퇴직 전문인력	-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 50+ 일자리 서포터스, 50+ 경로당학습지원단 등 - 시간당 7200원 이내(월 56시간 이내)	부산시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서울시50플러스 포털 홈페이지 50plus.or.kr(2018. 5. 23. 인출)
2) 50+ 부산포털 홈페이지 busan50plus.or.kr(2018. 5. 23. 인출)

제2절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 분석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생애 기간이 증가하면서 노년기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기존 사회적 관계망과의 연결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활동은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인 ①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② 고령 친화형 콘텐츠 개발, ③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④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⑤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⑥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⑦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⑧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표 3-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참여 정책

중분류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부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전 생애 문화예술 교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확대	문체부
	고령 친화형 콘텐츠 개발	-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지원 방안 마련 - 고령자 여가 실태 조사	문체부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 개인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관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 기존 노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 개발 및 적용 · 유사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 소규모 단체 발굴 및 지원, 공무원·전문직 은퇴자 참여 활성화, 기업의 은퇴자 연계 사회공헌 강화 등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확산 - 고령자 자원봉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활동하는 신노인상 정립	복지부

중분류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부처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 참여자 연령 기준 상향 - 노노케어 확대 및 신규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 고령자 교육 관련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정보화 교육 ·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교육 지원 · 웰다잉, 자살예방 교육 확대	복지부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문해교육 확충 - 인생 이모작 지원 - 실버세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교육부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추진체계	- 시도 평생교육 정보망 전체 시도 확산 및 국가평생학습포털 연계 추진 - 평생학습 도시 확대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	교육부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 129-132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이는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습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노년기 사회참여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과 경제활동, 사회공헌과 관련이 높은 '학습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의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을 운영하면서 활동지원금 지원,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제공,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은퇴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성과 경륜에 맞는 사회공헌사업도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 및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와 새내기 세대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르신IT봉사단과 교육부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다. 어르신IT봉사단은 55세 이상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노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이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퇴직자 인적자원활동과 평생교육, 자원봉사의 연계 모델을 도입하여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봉사단이다. 이들은 지역 내 도서관, 복지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의 참여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중년층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 관련 사업과는 대상 연령, 활동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3-10〉 노년기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소관부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1]	만 65세 이상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보건복지부
		재능나눔 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각종 활동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운영[1]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1곳당 20~30명 내외)	- 자원봉사클럽 활동 지원(지원금 등) -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개선 -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보건복지부
인생나눔교실[2]	만 51~70세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 및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문적 소통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3]	만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해당 업무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	-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 국민 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 컨설팅, 역량 개발 분야		인사혁신처
어르신IT봉사단[4]	사회봉사 의욕이 높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55세 이상	- 팀당 3~5명 구성 - 노인 생활 및 노인 대상 활동 기관, 거동 불편 노인 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 등의 방문을 통한 정보화교육(모바일, 컴퓨터, 동영상 등) - 1인당 월 20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빛평생교육봉사단[5]	만 55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 - 전문직 퇴직자들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봉사 조직		교육부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2018. 5. 17. 인출)
3)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2018. 5. 23. 인출)
4)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8년도 어르신 IT봉사단 공모 안내서.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78336&bcIdx=19386(2018. 5. 23. 인출)
5)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 www://gglec.go.kr/n_lifelong/gord.aspx(2018. 5. 23. 인출)

2. 학습활동

헌법 제31조 5항[1]과 교육기본법 제3조[2]에 따라 평생교육은 생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다. 특히 노년기 학습활동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적응, 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가 있는 노년층 인적자원 활용의 사회적 요구(황남희, 2014),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에 따른 다양한 욕구 충족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년기 여가시간을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년기 인구 대상 학습활동은 경제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자를 특화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지역 내 공공복지시설에서도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등 노년층을 위한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지역별 정보화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집합교육 및 어르신IT봉사단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시행 중이다. 그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노년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화가 보다 진전되고, 학력수준이 현 노인 세대보다 높은 신노년층이 노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이 되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노년층 특화의

1)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년층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노년기 학습활동 지원 정책: 중앙정부

구분		대상	주요 내용	소관 부처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전 국민	-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운영 - 성인 문해교육 지원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60세 이상	- 복지관 내 각종 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고령층 정보화 교육[2]	55세 이상	- 지역별 정보화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집합교육 - 어르신IT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정보화 교육[2]	전 국민	- 평생교육 사이트인 배움나라 (www.estudy.or.kr)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웹디자인 등 83개 정보화 교육과정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nile.or.kr/index.jsp.(2018. 5. 17. 인출)
2)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2018. 5. 17. 인출)

서울시 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내일행복학교와 시니어 직업능력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일행복학교는 그동안 자신의 경력과 취미가 직업과 연결되어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직종에 고령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니어 직업능력학교는 고령자가 다수 채용되는 적합 직종 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의 50+ 캠퍼스는 노년기 인생을 준비하는 50+세대(50~64세)가 관심이나 선호, 경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각 학부의 프로그램을 신

청하여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인생재설계학부,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커리어모색학부, 생활기술과 문화예술을 배우는 일상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표 3-12〉 노년기 학습활동 지원 정책: 지자체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자체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1]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 내일행복학교: 자신의 경력과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퇴 이후의 취업 설계, 창의 직업, 사회공헌, 전문직업, 창업 등 5가지 교육과정으로 구성 - 시니어 직업능력학교: 고령자 적합 직종 중심의 취업교육	서울시
50+ 캠퍼스[2]	서울시 거주 50~64세	- 서울시 내 6개 캠퍼스 - 인생재설계학부: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학부 - 커리어모색학부: 일의 의미를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학부 - 일상기술학부: 자립적이고 즐거운 일상에 필요한 필수 생활기술을 연마하는 학부 교육지원 외 일자리 창업지원, 상담 정보 제공, 활동 지원 등	서울시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1)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www.goldenjob.or.kr(2018. 6. 22. 인출)
2)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홈페이지 50plus.or.kr/swc/education(2018. 6. 22. 인출)

제3절 소결

한국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길어진 노년기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년제 개선, 중고령자 취업 및 창업 지원,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과 같이 고령자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 또한 퇴직자의 직무 경험 활용 등 은퇴한 고령자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생산적 활동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자들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들은 주로 전문직, 전기 노인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비전문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원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인생나눔교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 어르신IT봉사단 등과 같은 사회공헌활동들 역시 고학력, 70세 이하의 전기 노인, 전문가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전문인력의 활용, 전문성 향상 등의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저학력 노인, 후기 노인, 비전문가 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반 고령 인력 활용 차원에서는 추가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낮은 수준의 급여와 비연속적 근로기간, 한정된 예산에 따른 참여 인력 제한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년기 학습활동은 상당 부분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한글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세대 분절적인 특성이 있다. 현재의 노년기 학습활동 지원 정책은 고학력으로 높은 소득수준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부머 및 전기 노인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가정 내의 무급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 4 장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제1절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제2절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제3절 소결

4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 장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분석한다. 다양한 생산적 활동 중 일에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생산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에서는 생산적 활동의 범위와 분석 대상을 확장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그리고 노년기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1절은 기업(노동 수요)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보고, 제2절은 개인(노동 공급)의 관점에서 노년기 생산성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노년기 대표적인 생산적 활동은 일, 경제활동 참여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노년기 경제활동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기업(노동 수요) 혹은 사회적 인식의 관점에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한다.

앞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근거 자료는 많지 않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노년기 생

산성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수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며,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령근로자가 증가하면 기업(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맞는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료 및 연구 방법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WPS)는 농림어업과 광업을 제외하고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1700여 개 표본 사업체를 층화추출하여 2006년부터 격년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2016년 조사 자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구조와 노동수요, 고용관리, 인적자원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이 연구의 관심 주제인 사업체의 연령구조와 생산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2006년(1차), 2008년(2차), 2010년(3차), 2012년(4차), 2014년(5차), 2016년(6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의 핵심 관심인 사업체 내 고령근로자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1차부터 5차까지 50세 이상 근로자 수로 조사되다가 6차부터는 55세 이상 근로자 수로 연령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 6차부터는 신규 표본 2136개 사업체가 추가되어 조사 표본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6차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분석을 하되 1~5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면밀한 계량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

고령자에 해당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전체 근로자 수와 50세 이상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 절에서 고령근로자는 준고령자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령구조와 생산성에 대한 기초분석을 한 후 최소자승법(original least square, 이하 OLS)을 이용하여 고령근로자의 비율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측되지 않는 요인(unobserved effects)이 근로자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면 내생성 문제(endogeneity)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체의 연령구조와 미관측 이질성 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이하 FE) 모형을 이용한다.

2. 주요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

먼저 종속변수인 생산성은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로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증연구에서 1인당 매출액이 생산성 측정변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1인당 부가가치를 활용한 경우도 상당수 눈에 띄기 때문이다(석진홍, 박우성, 2014; 김기민, 2017; 장윤섭, 양준석, 2017). 1인당 매출액은 사업장의 총매출액을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간[3]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다. 매출액은 지난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점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 총액을 의미한다.[4]

---

3) 사업체패널조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4월 1일부터 3월 31일, 7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경우도 다수 있음.

4) 산업별로 범위가 다른데, 공공 부문의 경우 사업수익,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수익이 해당됨. 비영리의 경우 세입금액 중 적용료 및 수수료, 전입금, 원조보조금, 학교 운영 지원비의 합계액. 단, 관계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교원들의 봉급이나 인건비의 경우 전입 및 기부금 수입에 합산하여 계산함(한국노동연구원, 2016).

1인당 부가가치는 사업장의 총부가가치를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세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같은 의미이며, 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과 인건비(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순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배당금수익),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것이다. 평균 근로자 수는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연말 기준 근로자 수와는 다를 수 있다.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매출액은 실질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6차 조사 시점 기준인 2015년을 100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다.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근로자 수 대비 50세 이상(1~5차) 또는 55세 이상(6차) 고령근로자 수로 계산한다. 전체 근로자는 조사 대상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계약을 맺은 세일즈맨도 포함된다. 다만 6차 자료는 1~5차 자료와 달리 전문인력 외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 방문 취업자, 불법체류 근로자 등)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OLS 모형과 FE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는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6차는 35세 미만), 사업체 규모, 기업 연령, 노동조합, 산업더미, 연도더미이다.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30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연령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30대의 비율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체 규모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이다. 김기민(2017)에 의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규모가 큰 사업체와 비교하여 50

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체 규모는 고령근로자의 분포와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설립 연도는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신생 기업보다는 기존 기업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연령은 조사 기준에서 설립 연도를 뺀 값이다. 설립 연도는 최초로 산업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로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에 관계없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남성일, 전재식(2013)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업체 내의 노동조합 유무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0이다. 이때 휴면 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김문정(2017)에 의하면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체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 여부를 포함하였다. 참고로 산업별 특성을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고려하였으나, FE 모형의 robust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거시경제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생성하였다. 조사 기준 시점은 조사가 실시된 해 이전 말 기준이므로 1~5차는 2005~2013년의 더미변수가 만들어진다.

〈표 4-1〉에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활용되는 사례 수는 1~5차 연도 총 7078개 사업체이며, 차수별로는 1차 1453개, 2차 1431개, 3차 1373개, 4차 1481개, 5차 1340개인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이다. 6차 연도 분석 사례 수는 2332개 사업체이다.

1~5차 연도를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은 평균 6억 1700만 원이며 1인당 부가가치는 평균 126만 원이다.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는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그를 취한 값을 모형에 투입하였다([그림 4-1] 참조).[5] 전체 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16%이며,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은 21%이다. 전체 근로자 수는 418명이며, 기업 연령은 약 23년이다. 전체 사업체의 38%는 노동조합이 있고, 산업은 47%가 제조업이다.

6차 연도는 1~5차 연도에 비해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전체근로자 수는 적은 편이었다.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6차는 55세 이상)은 두 자료 간 차이 없이 16% 수준으로 동일하나, 6차 자료의 표준편차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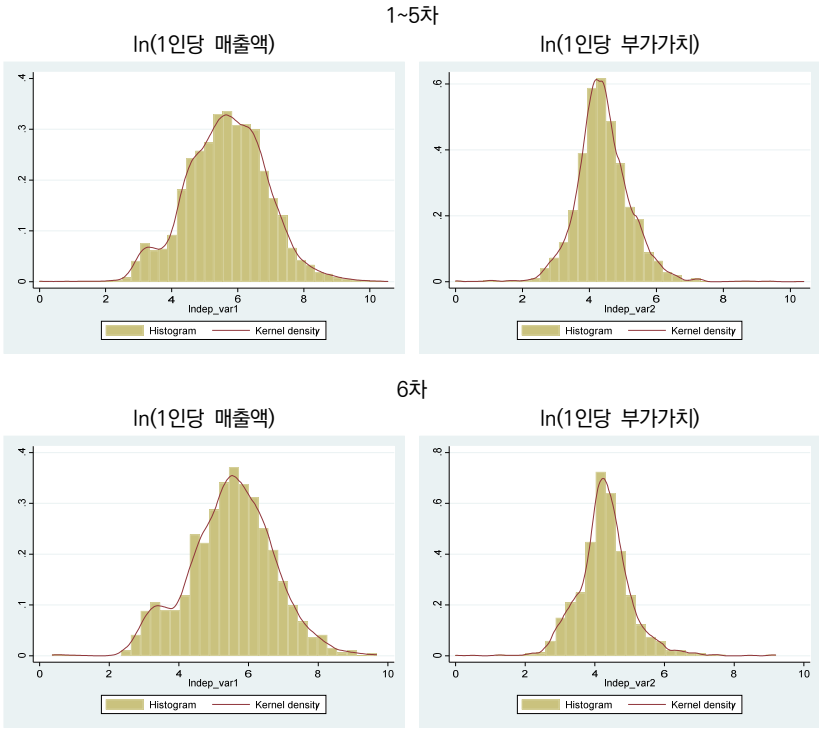
〈표 4-1〉 기초통계량

변수명		1~5차		6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1인당 매출액(백만 원)[1]	617.46	1,379.31	502.96	924.68
	1인당 부가가치(백만 원)[2]	126.48	599.47	100.22	368.80
독립변수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3]	0.16	0.18	0.16	0.20
통제변수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4]	0.21	0.19	0.28	0.21
	사업체 규모: 전체 근로자 수(백 명)	4.18	10.43	2.53	5.51
	기업 연령(년)	22.75	15.57	22.09	14.32
	노동조합 유무(유=1)	0.38	0.49	0.25	0.43
	산업더미: 제조업 여부(예=1)	0.47	0.50	0.47	0.50

주: 1) CPI를 반영한 실질금액 기준(2015=100)임.
2) 사례 수가 1~5차 5151개, 6차 1849개이며, CPI를 반영한 실질금액 기준(2015=100)임.
3) 6차는 55세 이상 기준으로 조사됨.
4) 6차는 35세 미만 기준으로 조사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6차 사업체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5) 1~5차 연도는 ln(1인당 매출액)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46과 3.404, ln(1인당 부가가치)의 왜도 0.346, 첨도 6.719임. 6차 연도는 ln(1인당 매출액)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135와 3.271, ln(1인당 부가가치)의 왜도 0.463, 첨도 6.837임. 즉 차수에 상관없이 ln(1인당 매출액)이 ln(1인당 부가가치)보다 정규 분포를 보임.

〔그림 4-1〕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 분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6차 사업체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미관측 특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E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1)과 같다. y_{it}는 종속변수로 t시점 i사업체의 1인당 매출액이다. x_{it}는 독립변수로 t시점 i사업체의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이다. u_i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의 특성, e_{i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FE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의 특성과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고($cov(x_{it}, u_i) \neq 0$) 회귀계수의 일치추정량을 구한다.[6] FE 모형에서 t는 사업체패널조사 1~5차(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가 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i = 1,2,...,n, \ t = 1,2,...,T \ \text{(식 4-1)}$$

y_{it} = t시점 i사업체의 1인당 매출액

x_{it} = t시점 i사업체의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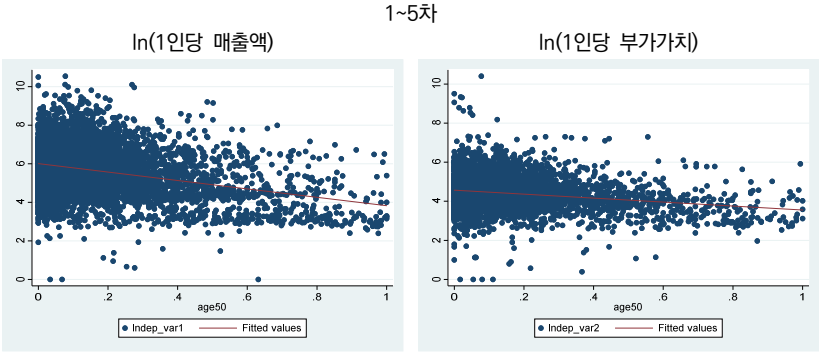
u_i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의 특성

e_{it} =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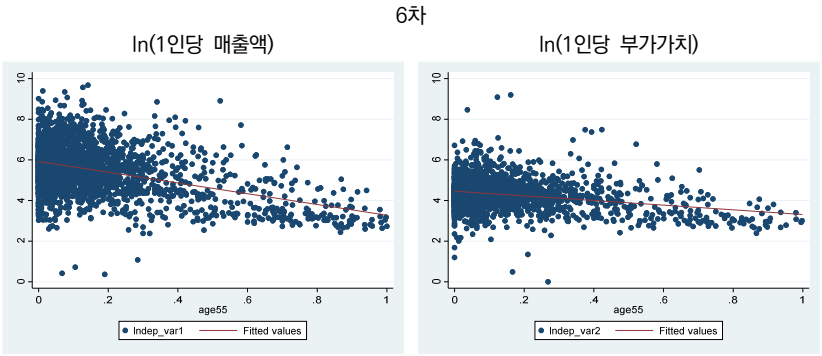
3. 고령근로자 비율과 생산성의 관계

고령근로자 비율과 생산성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전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 모두 고령근로자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매출액의 추세선 기울기가 1인당 부가가치의 추세선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4-2] 고령근로자 비율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6) 이하 FE 모형에 관한 설명은 우석진(2013)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6차 사업체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고령근로자 비율과 생산성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6차 자료를 이용한 OLS 모형(모형 1, 모형 4)과 1~5차 자료를 이용한 Pooled OLS 모형(모형 2, 모형 5), 내생성 문제에 대응한 FE 모형(모형 3, 모형 6)을 추정하였다. 참고로 1~6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령근로자 비율이 1~5차는 50세 이상 기준인 데 반해 6차는 55세 이상이라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표 4-2〉 고령근로자 비율과 1인당 매출액의 관계 추정 결과

구분	[모형 1] OLS (6차)	[모형 2] Pooled OLS (1~5차)	[모형 3] Fixed effect (1~5차)
	Coef. [S.E.]	Coef. [S.E.]	Coef. [S.E.]
50세(55세) 이상 근로자 비율[1]	-2.543***	-2.477***	-0.044
	[0.114]	[0.113]	[0.059]
30세(35세) 미만 근로자 비율[2]	-0.126	-0.369***	0.073
	[0.124]	[0.102]	[0.046]
전체 근로자 수	0.003	0.007**	-0.005
	[0.007]	[0.003]	[0.003]
기업 연령	0.012***	0.008***	0.027***
	[0.002]	[0.002]	[0.003]

구분	[모형 1] OLS (6차)	[모형 2] Pooled OLS (1~5차)	[모형 3] Fixed effect (1~5차)
	Coef. [S.E.]	Coef. [S.E.]	Coef. [S.E.]
노동조합 유무 (유=1)	0.299***	0.278***	0.024
	[0.059]	[0.053]	[0.055]
제조업 여부 (예=1)	0.379***	0.443***	0.149
	[0.045]	[0.046]	[0.165]
상수항	5.416***	5.507***	4.957***
	[0.073]	[0.061]	[0.102]
N of Obs.	2,331	7,077	7,077
R-sq.	0.258	0.185	0.026
N of groups	-	-	2,410

주: 1) 모형 1은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임.
2) 모형 1은 35세 미만 근로자 비율임.
3)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6차 사업체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OLS 모형과 Pooled OLS 모형은 종속변수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생산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E 모형에서는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업 내에서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업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의 결과이다(모형 1, 모형 2, 모형 4, 모형 5). FE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의 연령구조와 생산성 간의 관련성이 있지만 미관측된 특성을 통제할 경우 고령근로자의 규모가 기업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모형 3, 모형6).

〈표 4-3〉 고령근로자 비율과 1인당 부가가치의 관계 추정 결과

구분	[모형 4] OLS (6차)	[모형 5] Pooled OLS (1~5차)	[모형 6] Fixed effect (1~5차)
	Coef. [S.E.]	Coef. [S.E.]	Coef. [S.E.]
50세(55세) 이상 근로자 비율[1]	-1.166***	-1.276***	-0.075
	[0.096]	[0.100]	[0.071]
30세(35세) 미만 근로자 비율[2]	0.075	-0.234***	-0.035
	[0.091]	[0.080]	[0.064]
전체 근로자 수	-0.003	0.003	-0.004
	[0.004]	[0.002]	[0.003]
기업 연령	0.006***	0.005***	0.000
	[0.001]	[0.001]	[0.003]
노동조합 유무 (유=1)	0.293***	0.311***	-0.055
	[0.049]	[0.039]	[0.048]
제조업 여부 (예=1)	-0.020	-0.043	0.446
	[0.036]	[0.035]	[0.302]
상수항	4.252***	4.412***	4.214***
	[0.054]	[0.051]	[0.179]
N of Obs.	1,794	5,014	5,014
R-sq.	0.128	0.113	0.001
N of groups	-	-	1,856

주: 1) 모형 4는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임.
2) 모형 4는 35세 미만 근로자 비율임.
3)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6차 사업체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종단자료를 이용할 경우 Pooled OLS 모형과 FE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F-test를 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업체의 특성(u_i)은 동질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Pooled OLS 모형보다 FE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내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연령은 Pooled OLS 모형(모형 1, 2, 4, 5)과 1인당 매출액

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FE 모형(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생산성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부가가치를 사용한 FE 모형(모형 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조합과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은 Pooled OLS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E 모형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체의 연령구조와 미관측 이질성 간의 관계를 통제한 결과 고령근로자와 생산성의 부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령근로자의 증가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노년기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첫째, 이 절에서 활용한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는 근로자의 능력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내재적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령 생산성은 근로자의 특성 이외에도 교육훈련, 생산공정 자동화 등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노력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령근로자와 생산성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2절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 절은 55세 이상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본 후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제시한다. 앞 절과 달리 제2절은 노년기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므로 고령자 개인의 관점에서 생산성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절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생산적 활동 소분류별로 시간사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직종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1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는 2014년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 기준 9개 행동 중 생산적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로 사업체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약 3만 2000개 표본사업체 및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이다(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 2018. 10. 4.). 연도별로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에 맞춰 직업별 임금 자료를

통해 시간당 임금의 산출이 가능하다.[7)]

한편 경제적 가치 환산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 가장 널리 활용되는 투입 접근법의 하나이며 최근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산출에서 적용한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이용한다(통계청, 2018). 생산적 활동 소분류별로 시간사용량을 측정한 후 소분류별 임금을 곱한다.

전문가대체비용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 환산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2)와 같다. 생산적 활동의 유형(j)에 따라 대체 임금을 적용한다.

$$VP = \sum_{i=1}^{N} \sum_{j=1}^{N} T_{ij} W_j P_i \qquad i = 55, 56, ..., n,\ j = 1, 2, ..., J \quad \text{(식 4-2)}$$

VP =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

T_{ij} = i연령의 생산적 활동 j의 투입 시간

W_j = 생산적 활동 j의 시간당 임금

P_i = i연령의 인구수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 결과는 명목 기준으로 살펴본다. 다만 실질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한다. GDP디플레이터(2010년=100)는 1999년 76.550, 2004년 88.018, 2009년 96.935, 2014년 104.142이다(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http://kosis.kr/index 2018. 11. 21. 인출)

7) 1999년 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으로 2004년 제5차(2000년 개정), 2009년과 2014년 제6차(2007년 개정)를 적용함.

2. 기초자료

이 절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생산적 활동의 범위는 일,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이다(〈표 4-4〉 참조). 여기서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은 모두 유급의 임금 없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활동으로 크게 무급가사일로 분류한다. 시간사용은 10분 단위로 측정된 요일 평균이며, 분석 대상 연령은 55세 이상이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일은 노동 또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행동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용된 일과 자영업을 모두 포함하며 주업뿐만 아니라 부업도 해당된다. 또한 초과근무,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직장 내 이동, 일 관련 기다리는 행동 등도 모두 포함된다.

가정관리는 가구의 가정생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남의 집 가사를 돕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활동은 음식 준비, 세탁, 청소 및 정리, 주거관리, 차량관리, 쇼핑 등 가정관리를 위한 행동 등이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동일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원 또는 가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돌보기 활동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함께 사는 아이의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간호하기 등이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참여활동 또는 가구원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돕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녀교육 관련 참여 활동, 국가와 지역 행사 관련, 소외계층 및 재해 주민 관련 등이 해당된다.

한편 무급가사일(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관련 이동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이는 국제적인 권고에 맞춰 가계

부문 위성계정을 측정한 통계청(2018)의 방식과 일치한다.

〈표 4-4〉 생활시간조사 행동 분류와 생산적 활동: 대분류 기준

행동 분류 코드	행동 분류명	생산적 활동
1	개인 유지	-
2	일	●
3	학습	-
4	가정관리	●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6	참여 및 봉사활동	●
7	교제 및 여가활동	-
8	이동	생산적 활동(4, 5, 6)에 해당하는 이동
9	기타	-

주: ●는 해당, -는 미해당.
자료: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행동 분류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생활시간조사의 9개 행동 분류 중 생산적 활동의 범위는 〈표 4-5〉와 같다.

〈표 4-5〉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 중 생산적 활동 범위: 대중소 분류 기준

구분		생활시간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주업, 부업, 무급가족 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기타 일 관련 행동
무급 가사일	가사활동	가정관리	음식 준비	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세탁하기,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청소 및 정리	청소, 정리, 쓰레기 버리기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주거 관리, 가정용품 관리·제작,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차량 관리	차량 관리하기, 차량서비스 받기
			애완 동·식물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애완 동식물 서비스 받기

구분		생활시간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상품 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기타 가정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이용, 관공서 등 이용, 기타 가정관리
	가족돌봄 활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활동	자녀 교육 관련
			자원봉사	국가·지역 행사 관련, 소외계층 관련, 재해주민 관련, 기타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 돕기
	이동 (일 제외)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참여·봉사활동 관련 이동

자료: 생산적 활동의 범위에 맞춰, 저자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행동 분류 재구성.

생산적 활동별로 적용하는 시간당 임금은 직종별로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활시간조사의 생산적 활동 소분류별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의 직종별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생산적 활동의 적용 범위와 연계하는 직종별 대체 임금은 통계청

(2018)과 일치되는 방식을 적용하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직업 분류에 맞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간당 임금을 측정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직업별로 제공되는 분류 수위가 다르며,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하위 단위의 분류를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즉 대체 임금은 소분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분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중분류, 대분류 순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가 2개 이상의 직업 분류와 매칭되는 경우 이들 직업의 시간당 임금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시간당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총 실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월 임금 총액은 월급여액에 전년도연간특별급여액(상여금 및 성과급)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더한 것이다. 총 실근로시간은 소정 실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더한다.[8] 생산적 활동에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최저 8540원이며, 최대 2만 7107원이다. 가령 가사활동 중 식사 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는 시간당 9826원, 함께 사는 10세 미만 아이 간호하기는 시간당 1만 254원, 자원봉사활동 중 자녀 교육 관련 참여활동은 2만 7107원을 적용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정의한 생산적 활동 분석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수준, 농가 유무, 건강수준 등이다. 단, 연도별 생활시간조사에 따라 분석 가능한 변수에는 차이가 있다.

8)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시간당 임금=(월급여액+전년도연간특별급여액/12)/(소정 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표 4-6〉 생산적 활동 시간사용 분석 변수

분석 변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성별	남성, 여성	●	●	●	●
연령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	●	●	●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	●	●	●	●
배우자	유배우, 무배우(미혼, 이혼, 사별)	●	●	●	●
농가	농가, 비농가	-	●	●	●
건강 수준	나쁨(나쁜 편, 매우 나쁨), 보통 좋음(좋은 편, 매우 좋음)	-	-	-	●

주: ●는 포함, -는 미포함.
자료: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행동 분류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3.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참여 실태

1999년부터 2014년 동안(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55세 이상 인구의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 91~94%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6시간 동안 생산적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9년은 분석 자료인 생활시간조사가 처음 실시된 해로, 이후 실시된 자료(2004년, 2009년, 2014년)에 비해 생산적 활동 참여율은 조금 적고, 참여 시간은 조금 많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1999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율은–작은 변화지만–증가 추세, 참여 시간은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적 활동을 구성하는 일과 무급가사일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년기 특성상 생산적 활동은 무급가사일의 참여율이 78~82%로 일 참여율 45~48%보다 높다. 2014년으로 기준 무급가사일 참여율이 일 참여율보다 37.4%포인트 높다. 2014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은 하루 평균 2시간 30분, 무급가사일은 2시

간 36분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각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일 5시간 38분으로 무급가사일 3시간 10분보다 더 많다. 즉 고령자는 무급가사일보다 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각각 81.9%, 44.5%), 일에 참여하는 경우 무급가사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약 2시간 30분 더 많이 투입).

〈표 4-7〉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1999~2014년)

(단위: %, 시: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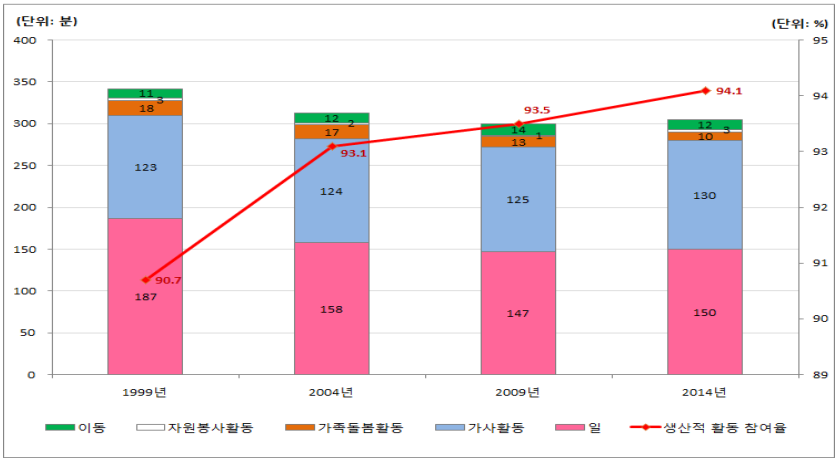
구분	1999		2004		2009		2014	
	참여율	참여 시간	참여율	참여 시간	참여율	참여 시간	참여율	참여 시간
전체	90.7	5:41 (6:13)	93.1	5:13 (5:36)	93.5	5:01 (5:22)	94.1	5:06 (5:25)
-일	44.5	3:07 (6:03)	47.9	2:38 (5:29)	45.0	2:27 (5:27)	44.5	2:30 (5:38)
-무급가사일	77.9	2:35 (3:19)	80.3	2:35 (3:13)	81.6	2:34 (3:09)	81.9	2:36 (3:10)
가사활동	74.8	2:03 (2:44)	77.4	2:04 (2:39)	79.5	2:05 (2:38)	80.3	2:10 (2:42)
가족돌봄활동	17.4	18 (1:42)	18.2	17 (1:33)	18.0	13 (1:14)	13.6	10 (1:21)
자원봉사활동	2.2	3 (2:35)	1.8	2 (1:47)	1.4	1 (1:36)	2.3	3 (1:55)
이동	23.3	11 (47)	27.1	12 (46)	30.0	14 (46)	27.5	12 (45)

주: 괄호는 해당 생산적 활동에 참여한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정한 조건부 평균 참여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고령자의 무급가사일은 가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가사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9~2014년 가사활동 참여율은 75~80%이며, 가족돌봄활동 참여율 14~1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2%, 무급가사일 관련 이동 23~30% 수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고령자가 무급가사일에 참여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가사활동이 2시간 10분으로 무급가사일의 대부분(무급가사일

의 84%)을 차지하며, 가족돌봄활동 10분(6%), 자원봉사활동 3분(2%), 이동 12분(8%)이다. 생산적 활동에 참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가사활동 2시간 42분, 가족돌봄활동 1시간 21분, 자원봉사활동 1시간 55분, 이동 45분이다.

[그림 4-3]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고령자의 1999~2014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가 〈표 4-8〉~〈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고령자는 분석 기간 동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산적 활동의 참여 실태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 내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더 많다. 생산적 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97.4%로 남성 90.2%보다 7.2%포인트 더 높고, 생산적 활동 참여 시간은 여성이 5시간 32분으로 남성 4시 35분보다 약 1시간 더 많다. 그러나 생산적 활동 중 일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남성(55.7%, 3시간 26분)이 여성(35.1%, 1시간 44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무급가사일은 여성(96.3%, 3시간 47분)이 남성(64.6%, 1시간 10분)보다 더 많으며, 가사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생산적 활동 중 남성은 일, 여성은 무급가사일(가사활동 중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59세는 97.2%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55~59세 전체 인구는 하루 평균 6시간 26분 동안 생산적 활동을 한다. 60~64세의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이보다 조금 적은 96%, 5시간 51분이며, 65~69세 95%와 4시간 54분, 70~74세 93%와 4시간 22분, 75세 이상 88.2%와 3시간 11분이다. 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무급가사일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연령별로 일 참여 시간과 참여율은 55~59세 60.4%와 3시간 58분, 60~64세 51.6%와 3시간 9분, 65~69세 40%와 2시간 3분, 70~74세 35.2%와 1시간 37분, 75세 이상 25.4%와 50분이다. 연령별 무급가사일 참여 시간과 참여율은 55~59세 76.6%와 2시간 29분, 60~64세 80.5%와 2시간 42분, 65~69세 85.3%와 2시간 51분, 70~74세 85.8%와 2시간 45분, 75세 이상 85.2%와 2시간 21분이다.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생산적 활동 참여율은 낮지만, 생산적 활동 참여 시간은 높다. 유배우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각각 95.3%와 4시간 31분이며, 무배우자는 각각 93.7%와 5시간 20분이다. 생산적 활동 중 일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무배우자(48.7%, 2시간 50분)가 유배우자(33.7%, 1시간 41분)보다 더 많지만, 무급가사일은 무배우자(77.7%, 2시간 30분)가 유배우자(92.4%, 2시간 50분)보다 적다.

학력수준에 따른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 특성을 살펴보면 중졸의

경우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각각 95.2%와 5시간 36분으로 가장 많다. 이는 고령자 중 중졸의 경우 일 참여율(48.3%)과 참여 시간(2시간 54분)이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무학인 경우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92.7%와 4시간 4분, 초졸 94.8%와 5시간 2분, 고졸 이상 93.5%와 5시간 10분이다. 일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무학 34.7%와 1시간 18분, 초졸 41.7%와 2시간 3분, 고졸 이상 46.8%와 2시간 55분이다. 무급가사일은 학력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데,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무학 90.6%와 2시간 46분, 초졸 87.9%와 2시간 59분, 중졸 81.3%와 2시간 43분, 고졸 이상 76.1%와 2시간 14분이다.

농가인 경우(97.2%, 6시간 9분) 비농가(93.7%, 4시간 57분)보다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많다. 농가인 경우 일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76.7%와 3시간 33분으로, 비농가의 39.7%와 2시간 21분보다 많다. 무급가사일은 농가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참여율 82~84%, 참여 시간 2시간 36분이다.

고령자는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적은 편이다. 특히 일과 관련된 생산적 활동에서 건강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생산적 활동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각각 90.2%와 4시간 22분으로 가장 적다. 건강수준이 보통인 경우 95%와 5시간 19분,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95.4%와 5시간 15분이다. 일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32.1%와 1시간 40분이며, 건강수준이 보통인 경우 47.1%와 2시간 43분,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48.4%와 2시간 44분이다. 무급가사일은 건강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나,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참여율과 참여 시간(94.4%, 2시간 42분)이 건강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보다 많은 편이다(보통 81.5%와 2시간 36분, 좋음 80.9%와 2시간 31분).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1999년)

(단위: %, 시:분)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동
전체	90.7 (5:41)	44.5 (3:07)	77.9 (2:35)	74.8 (2:03)	17.4 (18)	2.2 (3)	23.3 (11)
성별							
남성	86.0 (4:49)	59.7 (3:49)	58.0 (1:00)	52.1 (39)	10.7 (10)	1.4 (2)	15.7 (8)
여성	95.9 (6:25)	44.5 (2:32)	94.1 (3:53)	93.4 (3:11)	22.8 (24)	2.8 (4)	29.5 (13)
연령							
55~59세	95.4 (7:01)	61.5 (4:16)	76.3 (2:44)	72.9 (2:09)	19.0 (19)	2.4 (4)	28.0 (13)
60~64세	94.9 (6:22)	56.9 (3:38)	79.4 (2:44)	76.1 (2:07)	20.2 (22)	1.9 (3)	25.2 (12)
65~69세	92.6 (5:33)	50.8 (2:50)	80.6 (2:43)	77.3 (2:08)	17.4 (19)	2.1 (3)	24.6 (12)
70~74세	89.9 (4:32)	40.6 (2:59)	81.2 (2:32)	78.0 (2:02)	16.7 (17)	3.0 (5)	20.3 (9)
75세 이상	77.6 (3:7)	31.6 (1:14)	72.0 (1:53)	70.5 (1:38)	9.9 (9)	1.7 (2)	11.9 (5)
배우자 유무							
있음	91.6 (5:04)	38.6 (2:06)	88.4 (3:58)	87.2 (2:25)	18.3 (18)	3.1 (4)	23.3 (10)
없음	91.4 (6:59)	57.1 (3:34)	73.1 (2:25)	69.2 (1:53)	17.0 (18)	1.8 (3)	23.4 (11)
학력수준							
무학	90.5 (5:22)	48.9 (2:35)	84.1 (2:47)	82.7 (2:18)	16.4 (17)	2.8 (5)	17.9 (8)
초졸	93.5 (6:14)	54.2 (3:22)	81.2 (2:52)	78.4 (2:17)	19.0 (20)	2.3 (3)	25.4 (11)
중졸	91.2 (5:55)	53.6 (3:38)	71.5 (2:17)	67.1 (1:36)	17.4 (17)	1.8 (2)	26.2 (12)
고졸 이상	89.4 (5:05)	48.5 (3:03)	67.8 (2:02)	63.0 (1:29)	16.0 (17)	1.5 (2)	25.5 (14)

주: 표의 수치는 참여율, ( )의 수치는 참여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199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04년)

(단위: %, 시:분)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동
전체	93.1 (5:13)	47.9 (2:38)	80.3 (2:35)	77.4 (2:04)	18.2 (17)	1.8 (2)	27.1 (12)
성별							
남성	87.7 (4:32)	57.7 (3:30)	60.3 (1:03)	54.7 (40)	12.1 (11)	1.3 (2)	18.9 (9)
여성	97.4 (5:45)	40.2 (1:56)	96.2 (3:48)	95.4 (3:10)	23.0 (22)	2.2 (2)	33.5 (15)
연령							
55~59세	95.3 (6:14)	56.1 (3:36)	75.6 (2:38)	72.1 (2:03)	20.3 (18)	1.7 (2)	32.1 (15)
60~64세	95.3 (5:53)	53.8 (3:12)	81.1 (2:41)	78.0 (2:04)	21.2 (22)	1.5 (2)	30.6 (14)
65~69세	94.3 (5:19)	49.2 (2:35)	83.5 (2:44)	80.4 (2:10)	19.2 (18)	2.1 (2)	27.2 (14)
70~74세	91.6 (4:16)	40.8 (1:42)	82.8 (2:33)	80.0 (2:08)	15.4 (13)	1.9 (1)	23.2 (10)
75세 이상	85.3 (3:06)	29.5 (57)	80.4 (2:08)	78.8 (1:51)	10.9 (9)	2.0 (2)	16.2 (7)
배우자 유무							
있음	94.2 (4:39)	35.4 (1:43)	91.9 (2:56)	90.6 (2:27)	17.1 (16)	2.3 (2)	25.3 (11)
없음	92.6 (5:27)	53.2 (3:01)	75.3 (2:26)	71.7 (1:54)	18.6 (17)	1.6 (2)	27.8 (13)
학력수준							
무학	93.4 (4:49)	45.6 (2:04)	87.9 (2:45)	86.1 (2:20)	15.5 (13)	3.0 (2)	20.9 (9)
초졸	94.4 (5:31)	49.9 (2:37)	84.7 (2:54)	82.6 (2:22)	19.8 (19)	1.5 (1)	27.4 (12)
중졸	93.1 (5:29)	49.2 (3:00)	75.7 (2:29)	72.1 (1:55)	19.2 (18)	1.5 (2)	30.8 (13)
고졸 이상	91.0 (4:56)	46.3 (2:52)	70.7 (2:04)	66.2 (1:30)	17.5 (17)	1.5 (2)	29.4 (15)
농가 유무							
농가	96.3 (6:29)	84.1 (4:20)	79.8 (2:09)	77.3 (1:50)	11.8 (9)	1.9 (2)	16.9 (8)
비농가	92.3 (4:54)	39.0 (2:12)	80.4 (2:41)	77.4 (2:07)	19.8 (19)	1.8 (2)	29.6 (13)

주: 표의 수치는 참여율, ( )의 수치는 참여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09년)

(단위: %, 시:분)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동
전체	93.5 (5:01)	45.0 (2:27)	81.6 (2:34)	79.5 (2:05)	18.0 (13)	1.4 (1)	30.0 (14)
성별							
남성	89.3 (4:25)	56.0 (3:22)	63.7 (1:03)	59.4 (45)	10.9 (7)	0.7 (1)	20.1 (10)
여성	97.0 (5:31)	36.1 (1:43)	96.2 (3:48)	95.8 (3:11)	23.7 (18)	2.0 (2)	38.1 (17)
연령							
55~59세	96.3 (6:16)	59.3 (3:45)	76.0 (2:32)	73.9 (2)	19.5 (13)	1.7 (2)	34.6 (15)
60~64세	95.5 (5:37)	49.2 (3:58)	80.9 (2:40)	78.5 (7)	19.5 (16)	1.4 (1)	32.9 (15)
65~69세	95.3 (5:06)	44.1 (2:20)	85.9 (2:46)	83.1 (13)	22.6 (17)	1.5 (2)	31.5 (14)
70~74세	92.8 (4:20)	38.5 (1:42)	85.9 (2:38)	84.0 (10)	15.3 (12)	1.8 (1)	28.3 (14)
75세 이상	86.1 (3:5)	26.6 (50)	82.3 (2:14)	80.9 (57)	11.9 (8)	0.8 (0)	20.3 (9)
배우자 유무							
있음	94.7 (4:28)	34.7 (1:37)	91.9 (2:51)	91.0 (2:26)	15.9 (12)	1.7 (1)	29.2 (12)
없음	93.1 (5:15)	49.2 (2:48)	77.5 (2:27)	74.9 (2:57)	18.8 (14)	1.3 (1)	30.4 (15)
학력수준							
무학	92.4 (4:32)	42.5 (1:46)	88.6 (2:46)	87.8 (2:22)	13.3 (11)	1.5 (1)	23.5 (12)
초졸	95.3 (5:17)	44.9 (2:21)	87.6 (2:56)	85.2 (2:27)	20.1 (15)	1.2 (1)	31.0 (13)
중졸	95.3 (5:33)	48.0 (2:54)	80.8 (2:39)	79.3 (2:07)	19.5 (14)	2.1 (2)	34.9 (17)
고졸 이상	91.2 (4:41)	44.7 (2:42)	71.8 (2:00)	68.9 (1:32)	17.3 (12)	1.2 (2)	29.7 (14)
농가 유무							
농가	96.0 (6:06)	81.8 (3:54)	81.9 (2:13)	79.3 (1:55)	11.7 (8)	1.0 (1)	21.5 (9)
비농가	93.1 (4:49)	37.8 (2:11)	81.6 (2:38)	79.5 (2:07)	19.2 (14)	1.5 (2)	31.7 (15)

주: 표의 수치는 참여율, ( )의 수치는 참여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0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2014년)

(단위: %, 시:분)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동
전체	94.1 (5:06)	44.5 (2:30)	81.9 (2:36)	80.3 (2:10)	13.6 (10)	2.3 (3)	27.5 (12)
성별							
남성	90.2 (4:35)	55.7 (3:26)	64.6 (1:10)	61.4 (53)	9.2 (7)	1.3 (1)	18.9 (9)
여성	97.4 (5:32)	35.1 (1:44)	96.3 (3:47)	96.0 (3:14)	17.2 (15)	3.2 (4)	34.7 (15)
연령							
55~59세	97.2 (6:26)	60.4 (3:58)	76.6 (2:29)	75.0 (2:01)	15.3 (13)	2.3 (3)	28.5 (13)
60~64세	96.0 (5:51)	51.6 (3:09)	80.5 (2:42)	78.7 (2:10)	16.5 (16)	2.2 (3)	31.4 (14)
65~69세	95.0 (4:54)	40.0 (2:03)	85.3 (2:51)	83.1 (2:19)	15.3 (13)	2.9 (4)	32.0 (15)
70~74세	93.0 (4:22)	35.2 (1:37)	85.8 (2:45)	83.9 (2:21)	12.6 (9)	2.1 (2)	27.0 (13)
75세 이상	88.2 (3:11)	25.4 (50)	85.2 (2:21)	84.3 (2:07)	7.6 (4)	2.2 (2)	19.4 (8)
배우자 유무							
있음	95.3 (4:31)	33.7 (1:41)	92.4 (2:50)	91.9 (2:28)	10.0 (8)	3.0 (3)	26.0 (11)
없음	93.7 (5:20)	48.7 (2:50)	77.7 (2:30)	75.6 (2:02)	15.0 (12)	2.0 (2)	28.1 (13)
학력수준							
무학	92.7 (4:04)	34.7 (1:18)	90.6 (2:46)	89.8 (2:30)	8.0 (4)	3.4 (4)	17.3 (7)
초졸	94.8 (5:02)	41.7 (2:03)	87.9 (2:59)	86.7 (2:35)	13.1 (11)	2.4 (2)	27.7 (12)
중졸	95.2 (5:36)	48.3 (2:54)	81.3 (2:43)	79.7 (2:11)	16.8 (15)	2.3 (3)	29.7 (14)
고졸 이상	93.5 (5:10)	46.8 (2:55)	76.1 (2:14)	74.0 (1:48)	13.7 (11)	2.0 (3)	29.0 (13)
농가 유무							
농가	97.2 (6:09)	76.7 (3:33)	83.7 (2:36)	81.8 (2:14)	10.2 (7)	3.3 (5)	19.7 (10)
비농가	93.7 (4:57)	39.7 (2:21)	81.6 (2:36)	80.0 (2:09)	14.1 (12)	2.2 (2)	28.7 (13)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동
건강수준							
나쁨	90.2 (4:22)	32.1 (1:40)	84.4 (2:42)	83.0 (2:21)	12.9 (9)	2.0 (2)	24.0 (10)
보통	95.0 (5:19)	47.1 (2:43)	81.5 (2:36)	80.2 (2:10)	13.5 (11)	2.3 (3)	27.8 (12)
좋음	95.4 (5:15)	48.4 (2:44)	80.9 (2:31)	78.7 (2:02)	14.1 (12)	2.5 (3)	29.4 (14)

주: 표의 수치는 참여율, ( )의 수치는 참여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4.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고령자가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이다. GDP 대비 20.2%를 차지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9] 연도별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1999년 93조 450억 원(16.1%), 2004년 138조 7650억 원(15.8%), 2009년 177조 7290억 원(15.4%)이다. 참고로 연도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2010년 기준 실질가치) 1999년 121조 5480억 원, 2004년 157조 6550억 원, 2009년 183조 3490억 원, 2014년 288조 2310억 원이다.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가 2014년 기준(명목가치) 177조 1510억 원(11.9%)이며,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123조 190억 원(8.3%)이다.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 100조

9) 5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99년 701만 9751명, 2004년 756만 281명, 2009년 990만 5632명, 2014년 1251만 7363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1999년 15.1%, 2004년 15.7%, 2009년 20.1%, 2014년 24.7%임.

9190억 원(6.8%), 가족돌봄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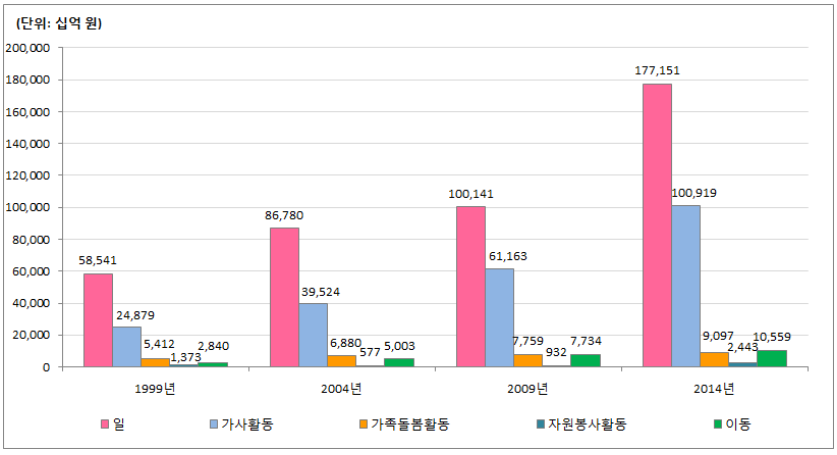
〈표 4-12〉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전체, 연간, 명목, GDP 대비

(단위: 십억 원, %)

구분	평가액				GDP 대비 비율			
	1999	2004	2009	2014	1999	2004	2009	2014
전체	93,045	138,765	177,729	300,170	16.1	15.8	15.4	20.2
-일	58,541	86,780	100,141	177,151	10.1	9.9	8.7	11.9
-무급가사일	34,504	51,985	77,588	123,019	6.0	5.9	6.7	8.3
가사활동	24,879	39,524	61,163	100,919	4.3	4.5	5.3	6.8
가족돌봄활동	5,412	6,880	7,759	9,097	0.9	0.8	0.7	0.6
자원봉사활동	1,373	577	932	2,443	0.2	0.1	0.1	0.2
이동	2,840	5,003	7,734	10,559	0.5	0.6	0.7	0.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4]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전체, 연간, 명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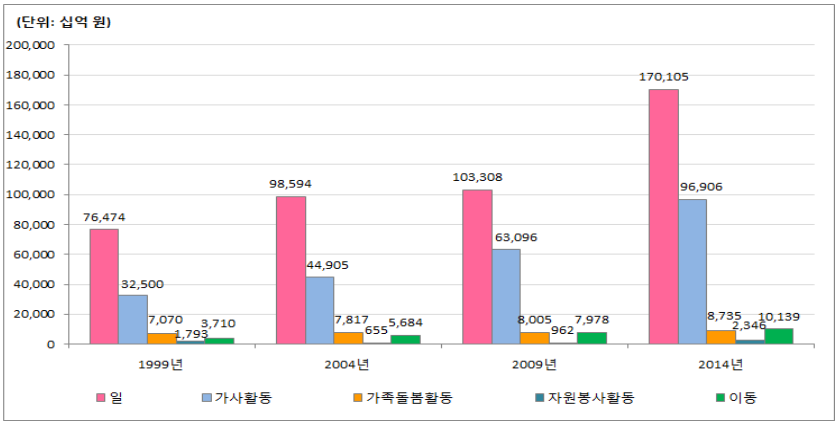
〈표 4-13〉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전체, 연간, 실질

(단위: 십억 원)

구분	평가액(실질)			
	1999	2004	2009	2014
전체	121,548	57,655	183,349	288,231
-일	76,474	98,594	103,308	170,105
-무급가사일	45,074	59,061	80,041	118,126
가사활동	32,500	44,905	63,096	96,906
가족돌봄활동	7,070	7,817	8,005	8,735
자원봉사활동	1,793	655	962	2,346
이동	3,710	5,684	7,978	10,139

주: GDP 디플레이터(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값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5]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전체, 연간, 실질



주: GDP 디플레이터(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값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1인당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2398만 원이며, 일의 경제적 가치 1415만 2000원(59%),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 982만 8000원(41%)이다.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

동 806만 2000원(33.6%), 가족돌봄활동 72만 7000원(3.0%), 자원봉사활동 19만 5000원(0.8%), 이동 84만 4000원(3.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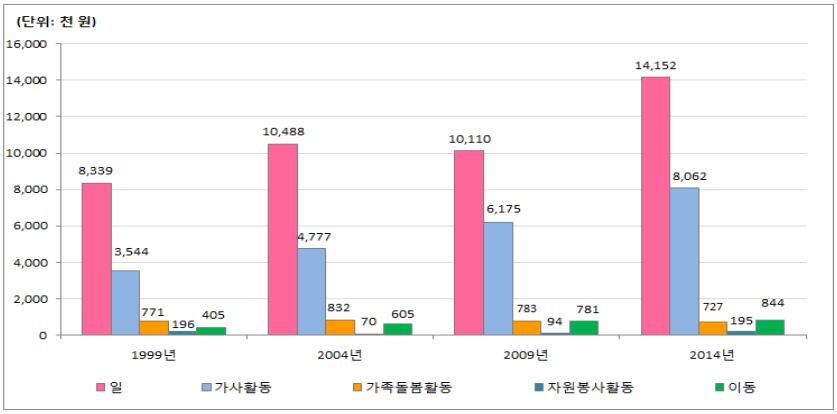
〈표 4-14〉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13,255 (100)	16,771 (100)	17,942 (100)	23,980 (100)
-일	8,339 (62.9)	10,488 (62.5)	10,110 (56.3)	14,152 (59.0)
-무급가사일	4,915 (37.1)	6,283 (37.5)	7,833 (43.7)	9,828 (41.0)
가사활동	3,544 (26.7)	4,777 (28.5)	6,175 (34.4)	8,062 (33.6)
가족돌봄활동	771 (5.8)	832 (5.0)	783 (4.4)	727 (3.0)
자원봉사활동	196 (1.5)	70 (0.4)	94 (0.5)	195 (0.8)
이동(일 제외)	405 (3.1)	605 (3.6)	781 (4.4)	844 (3.5)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6]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1인당, 연간, 명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1인당 경제적 가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일보다 무급가사일(가사활동)의 구성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로 인해 최근으로 오면서 노인 부부 혹은 노인 독거 가구의 구성비가 증가하여 고령자의 가사활동 시간이 증가했을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전제품의 보급 및 지능화 등으로 가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가사활동 참여 시간이 증가한 것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가사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보육과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 가족돌봄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관련 정책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최근 1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전체 생산적 활동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매우 작았다. 그렇지만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구성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인당 경제적 가치(참여자 1인당 평균)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2547만 7000원이며, 일 3183만 7000원, 무급가사일 1200만 1000원에 해당된다. 무급가사일의 세부 활동별로는 가사활동 1004만 5000원, 가족돌봄활동 535만 8000원, 자원봉사활동 844만 2000원, 이동 306만 5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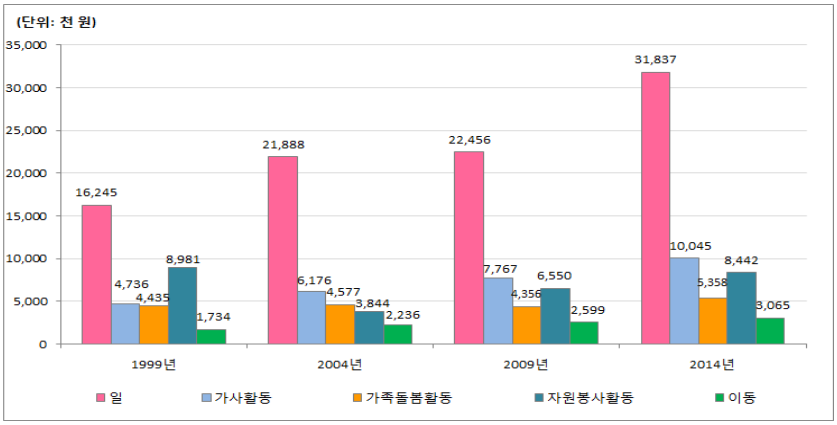
〈표 4-15〉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2014년): 참여자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14,493	18,016	19,183	25,477
-일	16,245	21,888	22,456	31,837
-무급가사일	6,311	7,827	9,594	12,001
가사활동	4,736	6,176	7,767	10,045
가족돌봄활동	4,435	4,577	4,356	5,358
자원봉사활동	8,981	3,844	6,550	8,442
이동	1,734	2,236	2,599	3,065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7]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참여자 1인당, 연간, 명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1인당 연간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5~59세,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자,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상, 농가인 경우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의 1인당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535만 원으로 여성 2283만 9000원보다 251만 1000원 더 많다. 남성은 생산적 활동 중 일이 2064만 6000원으로 여성(874만 2000원)보다 1190만 4000원 더 많다. 여성은 무급가사일이 1409만 7000으로 남성(470만 4000원)보다 939만 3000원 더 많다. 여성의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이 1185만 1000원(84%)으로 대부분이며, 가족돌봄활동 94만 5000원, 자원봉사활동 26만 7000원, 이동 103만 4000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년기 인구의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령이 젊을수록 많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일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나타난다.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다. 노년기 인구 중 가장 젊은 55~59세의 1인당 연간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3315만 3000원으로 가장 많다. 55~59세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일의 경제적 가치가 2363만 5000원으로 많지만, 무급가사일은 951만 8000원으로 다른 연령 집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무급가사일 중 가족돌봄활동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60~64세가 102만 1000원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55~59세의 가족돌봄활동 83만 6000원, 65~69세 88만 1000원, 70~74세 60만 7000원, 75세 이상 25만 7000원이다.

무배우자는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2600만 7000원으로 유배우자 1888만 5000원보다 더 많다. 무배우자의 이러한 특성은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무배우자 1648만 9000원, 유배우자 827만 9000원).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유배우자가 더 크다(무배우자 951만 8000원, 유배우자 1060만 6000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는 학력수준과 비례,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학

력수준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무학 1639만 원, 초졸 2105만 2000원, 중졸 2517만 5000원, 고졸 이상 2720만 6000원이다. 학력수준별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학 39%(634만 8000원), 초졸 47%(990만 3000원), 중졸 59%(1490만 5000원), 고졸 이상 68%(1850만 원)이다.[10]

농가의 경우 1인당 연간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2658만 7000원으로 비농가(2359만 3000원)보다 299만 4000원 더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농가의 일 경제적 가치는 1680만 2000원, 비농가는 1375만 8000원이다. 무급가사일 중 가족돌봄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비농가의 경우 농가보다 가족돌봄활동의 가치가 더 많은 특성이 있다(비농가 76만 3000원, 농가 48만 4000원).

노년기 건강수준과 1인당 연간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비례 관계에 있다.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2576만 6000원, 보통인 경우 2488만 원, 나쁜 경우 1903만 1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일의 경제적 가치는 많고(비례),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적은(반비례) 특성이 있다.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일과 무급가사일의 1인당 경제적 가치는 1611만 2000원과 965만 5000원이며, 보통인 경우 각각 1504만 4000원과 983만 6000원, 나쁜 경우 895만 원과 1008만 1000원이다.

10) 학력수준별 무급가사일의 구성비는 무학 61%, 초졸 53%, 중졸 41%, 고졸 이상 32%임.

〈표 4-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1999년),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동
전체	13,255	8,339	4,915	3,544	771	196	405
성별							
남성	12,375	10,236	2,138	1,218	491	123	307
여성	13,972	6,794	7,177	5,439	999	255	484
연령							
55~59세	16,722	11,459	5,263	3,750	816	208	488
60~64세	14,979	9,751	5,228	3,676	917	192	443
65~69세	12,784	7,610	5,174	3,692	840	198	443
70~74세	10,151	5,336	4,815	3,484	716	281	335
75세 이상	6,731	3,293	3,438	2,770	386	98	185
배우자 유무							
있음	11,169	5,623	5,547	4,129	799	249	369
없음	14,201	9,573	4,629	3,279	758	171	421
학력수준							
무학	12,121	6,932	5,189	3,906	730	269	284
초졸	14,471	9,046	5,426	3,946	867	193	420
중졸	14,170	9,748	4,422	3,087	735	138	463
고졸 이상	12,169	8,174	3,994	2,665	687	138	50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04년),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동
전체	16,771	10,488	6,283	4,777	832	70	605
성별							
남성	16,768	13,955	2,813	1,720	556	75	463
여성	16,774	7,729	9,045	7,210	1,051	65	718
연령							
55~59세	20,882	14,375	6,507	4,822	889	88	708
60~64세	19,434	12,791	6,643	4,817	1,103	59	664
65~69세	16,969	10,316	6,653	4,992	900	93	667
70~74세	12,898	6,810	6,088	4,900	633	45	510
75세 이상	8,823	3,826	4,998	4,213	407	45	332
배우자 유무							
있음	13,807	6,862	6,945	5,582	775	61	527
없음	18,029	12,027	6,002	4,435	856	73	638
학력수준							
무학	14,669	8,263	6,406	5,241	635	78	453
초졸	17,422	10,446	6,976	5,426	921	49	580
중졸	18,137	12,010	6,127	4,512	901	61	653
고졸 이상	16,753	11,430	5,323	3,662	828	98	735
농가 유무							
농가	22,348	17,290	5,057	4,174	430	62	391
비농가	15,393	8,807	6,586	4,926	931	72	65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09년),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동
전체	17,942	10,110	7,833	6,175	783	94	781
성별							
남성	18,252	14,780	3,472	2,416	462	42	553
여성	17,690	6,316	11,374	9,228	1,044	137	966
연령							
55~59세	24,002	16,213	7,790	6,059	753	114	864
60~64세	20,224	12,040	8,184	6,321	911	79	873
65~69세	17,719	9,228	8,491	6,495	1,052	150	794
70~74세	14,370	6,344	8,025	6,354	754	101	817
75세 이상	10,112	3,483	6,629	5,674	431	19	505
배우자 유무							
있음	14,730	6,245	8,485	7,058	679	63	685
없음	19,237	11,667	7,570	5,818	825	107	819
학력수준							
무학	14,669	6,522	8,147	6,824	637	34	652
초졸	17,547	8,665	8,883	7,159	918	59	746
중졸	19,407	11,256	8,151	6,297	794	123	937
고졸 이상	19,278	12,952	6,326	4,674	709	148	796
농가 유무							
농가	20,951	14,297	6,653	5,612	479	39	524
비농가	17,355	9,293	8,063	6,284	843	105	83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2014년), 1인당, 연간, 명목

(단위: 천 원)

구분	전체	일	무급 가사일	가사 활동	가족돌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동
전체	23,980	14,152	9,828	8,062	727	195	844
성별							
남성	25,350	20,646	4,704	3,515	465	108	615
여성	22,839	8,742	14,097	11,851	945	267	1,034
연령							
55~59세	33,153	23,635	9,518	7,599	836	211	873
60~64세	27,722	17,457	10,266	8,112	1,021	201	932
65~69세	21,689	10,789	10,900	8,682	881	326	1,011
70~74세	18,731	8,436	10,295	8,637	607	144	907
75세 이상	13,123	4,438	8,685	7,779	257	105	544
배우자 유무							
있음	18,885	8,279	10,606	9,068	541	226	772
없음	26,007	16,489	9,518	7,662	801	183	872
학력수준							
무학	16,390	6,348	10,042	8,965	291	274	512
초졸	21,052	9,903	11,149	9,504	700	136	808
중졸	25,175	14,905	10,270	8,117	1,008	205	940
고졸 이상	27,206	18,500	8,706	6,875	719	209	904
농가 유무							
농가	26,587	16,802	9,785	8,304	484	335	661
비농가	23,593	13,758	9,834	8,026	763	174	871
건강수준							
나쁨	19,031	8,950	10,081	8,644	641	121	675
보통	24,880	15,044	9,836	8,060	737	207	832
좋음	25,766	16,112	9,655	7,696	766	224	969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제3절 소결

기업의 관점에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사업체 내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추정한 생산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생산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개인의 관점에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령자는 1999년부터 2014년 동안 91~94%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6시간 동안 생산적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참여율은 증가 추세, 참여 시간은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이며, GDP 대비 20.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가 177조 1510억 원(GDP 대비 11.9%)이며, 무급가사일의 경제적 가치는 123조 190억 원(8.3%)이다.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 100조 9190억 원(6.8%), 가족돌봄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이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1인당 경제적 가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으로 올수록 일보다 무급가사일(가사활동)의 구성비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 반면 무상보육과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 가족돌봄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관련 정책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최근 1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전체 생산적 활동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매우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구성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가정관리, 가족돌봄 등 무급가사일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유급 노동시장에서도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관련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추정한 생산적 활동, 특히 무급노동 부분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결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양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와상노인 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생산적 활동 참여 시간이 과대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다양한 생산적 활동 중 노인 개인이 희망하는 활동에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인지 특정 활동에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장에서는 생산적 활동의 참여 실태를 통해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나, 여전히 노년기 개개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특성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제 5 장

생산적 활동 참여 및 생산성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제1절 사례 연구 개요
제2절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
제3절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
제4절 생산성에 대한 인식
제5절 소결

5 생산적 활동 참여 및 생산성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이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한다.

제4장의 실증분석은 국가 승인 통계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중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에 관한 일상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 질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제1절 사례 연구 개요

1. 사례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이다. '일(유급노동)', '가족돌봄', '자원봉사' 등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유형과 더불어 이러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을 포함하여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상황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생산적 활동의 유형에서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의 대다수인 약 80%가 가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① 일, ② 가족돌봄, ③ 자원봉사, ④ 일, 가족돌봄, 자원봉사 모두 참여 안 함의 4가지 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 참여자들

을 모집하였다. 사례 연구 표본설계 및 실제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농촌 지역 거주 고령자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노년기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참여 상황과 태도, 인식 등은 도시 거주 고령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사례 연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날짜와 장소 등 일정을 관리하였다. FGI는 연구 참여자 유형별로 4명을 대상으로 1회씩 진행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적 활동의 대표적인 유형인 일은 성별로 3명씩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FGI는 총 5회가 이루어졌으며, 1회당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FGI 녹음과 전사 등의 전반적인 과정은 전문적인 조사 업체인 에스티아이가 담당을 하였다. FGI 진행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설문지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였다. FGI를 직접 진행하는 연구진 1명 외에 이 연구의 연구진 1명이 FGI가 진행되는 바로 옆에 마련된 미러룸(mirror room)에서 FGI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을 즉각 전달하거나 스케치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견을 교류하며 FGI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을 거쳤다.

2. 사례 연구 참여자

이번 사례 연구의 표본설계는 유형별 3~4명씩 총 18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였다. 유형별 참여자 수를 자세히 설명하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6명

(남성 3명, 여성 3명),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4명(남성 1명, 여성 3명), 자원봉사를 하는 4명(남성과 여성 각각 2명),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4명(남성과 여성 각각 2명)이다.

생산적 활동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일하는 남성 참여자의 경우 평생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1명, 평생 일자리 퇴직 후에 자영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한 1명,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1명으로 구성하였다. 일하는 여성 참여자의 경우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1명, 전업주부였다가 최근 3년 이내에 일을 시작한 1명,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1명이 포함된다.

가족돌봄 참여자는 자녀 산후조리 및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2명,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1명, 부모를 돌보는 여성 1명이다.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 특성별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보건복지기관, 종교단체 각각 1명씩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55~64세 남녀 각각 1명씩과 65세 이상 남녀 각각 1명씩이다.

이번 사례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18명의 성별, 연령, 현재 직업 등의 기본적인 특성과 생산적 활동 관련 내용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8명씩이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2세이고,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55~59세 8명, 60~64세 5명, 65~69세 3명, 70세 이상 2명이다. 현재 직업은 전업주부 또는 무직인 경우가 12명으로 다수였다(유형 ②, ③, ④). 그 밖에 자영업자, 건축 감리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세무법인 직원, 베이비시터, 공공근로 참여자가 1명씩이다(유형 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기 이후 생애과정에서 현재의 직업과 다른 직업에서의 일이나 생산적 활동을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간단히 정리한

〈표 5-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고령자들은 청·장년기에 해 오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활발하게 일, 가족돌봄, 자원봉사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처한 상황과 결정에 따라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른 생산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55세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가 55세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72세인 연구 참여자 17은 현재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지만, 과거 직업군인과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조기 퇴직한 후 50~60대의 20년 동안 건설업에서 일을 계속하였다. 현재 58세인 연구 참여자 13은 3년 전까지 보습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성당에서 자원봉사자로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최근 정년퇴직하여 연구 참여자 13 자신이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현재 73세인 연구 참여자 11도 젊어서부터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노년기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의 이야기 할머니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해 왔으며 최근에는 손자녀도 돌보고 있다. 모든 연구 참여자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생애 후반기에 있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각자의 삶의 궤적(life trajectories)에 따라 다양하고 가변적인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생산적 활동

유형	순번	성별	연령	현재 직업	생산적 활동 참여
① 일	1	남	55세	자영업자	·기업체 온라인 교육 20년간 근무 경험 ·3년 전부터 중소기업 제품 인증 컨설팅 사업 운영 중
	2	남	59세	건축감리사	·건축 감리 30년 이상 근무 중
	3	남	69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0년 이상 정유사 근무, 퇴직 후 주유소 운영 경험 ·10년 전 암투병 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4	여	56세	세무법인 직원	·결혼 전 의류 자영업 운영 경험 ·결혼 후 19년째 세무법인 근무 중이며, 은퇴 이후 새로운 자영업 고려 중
	5	여	55세	베이비시터	·3년 전부터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후 근무 중
	6	여	63세	공공근로 참여자	·결혼 전 학교에서 근무 경험 ·전업주부로 있다가 2년 전부터 공공근로 참여 중
② 가족 골봄	7	여	62세	전업주부	·손녀(큰딸의 자녀) 2명(8살, 4살) 주 5일 돌봄(8년) 중 ·손자, 손녀를 돌볼 때도 있음
	8	여	64세	전업주부	·현재 주 3회 하루 7시간씩 손녀 돌봄 중 ·큰딸이 출산한 쌍둥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돌봐줄 예정
	9	여	55세	전업주부	·매일 1시간 거리의 친정아버지 집에 방문하여 가사, 건강 돌봄
	10	남	60세	무직	·무역업에 20년 이상 근무 경험 ·배우자 4~5년 전 갑상선질환 수술 후 전담하여 간병 중
③ 자원 봉사	11	여	73세	무직	·가정주부로 살다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병원,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봉사활동 중 ·손자녀를 돌보기도 함
	12	남	65세	무직	·교사 퇴직 후 문학 관련 자원봉사 중 ·손자녀 돌봄을 위해 최근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함
	13	여	58세	전업주부 (편의점)	·보습학원 상담실장 근무 경험 ·3년 전부터 성당 자원봉사 중 ·편의점에서 저녁~밤 시간 근무 예정
	14	남	62세	무직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30년 근무 후 정년퇴직 ·지역 도서관에서 2017년 계약직 사서 근무 후 2018년 자원봉사 중
④ 모두 참여 안 함	15	남	59세	무직 (경비지도)	·35년간 직업군인, 3년간 군무원 경험 ·7개월간 실업급여 받았고, 다음 주부터 경비지도 시작 예정
	16	여	65세	전업주부	·결혼 전 자영업 운영 경험 ·현재 일, 가족돌봄, 자원봉사하지 않지만, 이번 가을에 연탄봉사 시작할 계획
	17	남	72세	무직	·직업군인 2년, 법원 공무원 12년, 건설업 20년 등 경력 ·70세 은퇴 후 가족돌봄이나 자원봉사하지 않고,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중
	18	여	55세	전업주부	·대학 졸업 후 줄곧 전업주부 ·자원봉사 원하지 않고, 베이비시터나 등하원 도우미 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

제2절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하게 된 경우와 부득이하게 해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하게 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시작

연구 참여자 5, 6, 14는 젊은 시절 자신의 주된 역할이었던 부모, 노동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후 중년기에 공허함, 외로움, 상실, 우울, 소속감 없음, 무료함을 느끼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생산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5와 14는 노년기에 시작한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해 오던 역할과 유사한 사회적 활동을 선택했다. 젊은 시절 전업주부이자 엄마로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매진하던 연구 참여자 5는 중·노년기의 사회적 역할로 베이비시터를 선택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연구 참여자 14도 자원봉사지만 그동안 자신이 해 오던 사회적 역할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 도서관 사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해 오던 부모,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노년기에도 이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두 번은 좋은데 아무 보람 없이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아니면 쇼핑하고 오면 조금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연구 참여자 5)

“이 나이가 되니까 공허하고 그냥 외로워요. 내가 외롭다니까 남들은 네가 남편이 없냐, 자식이 없냐, 다 있지. 근데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나는 나더라고요. 나이가 그 전에 애기들 어릴 때는 공허하다, 외롭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면 따라가야 하고 애들 때문에 직장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애라도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그거 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지들끼리 이제 와서 나는 왕따인 거예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지들끼리 얘기할 게 천지로 많은 거야. 그래도 좋지. 애들끼리 친한 거니까. 그래도 나 없어도 엄마 없는 다음에도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외롭더라고요.”(연구 참여자 6)

“네. 저는 이제 애들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애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입시 상담 같은 것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신문 같은 것도 맨날 스크랩해서 보고 논설 같은 것도 스크랩해서 매일 책상에 놔 주고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거 같아요. 대학을 둘 다 가니까 맥이 풀리더라고요. 애들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 일단은 잘 성장을 한 거는 좋은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딱 끊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막내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게 오히려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연구 참여자 5)

“이런 것들이 건수들이 좀 많으면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몸은 괜찮은데 아침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쭉 들어가서 책 하나 집어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진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연구 참여자 14)

2.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해 오던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처우를 받아도 일을 하거나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축적해 놓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이라도 많이 물려받았으면 뭐 걱정이 없겠지만. 자기가 이제 일궈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막합니다."(연구 참여자 1)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딸이 음악을 활동을 해서 음악을 시키는 바람에 조금 더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연구 참여자 1)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학비가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좀 이제 알바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9월부터는 봉사활동을 주로 낮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희 동네 편의점에서 밤에만 하는 알바가 있어요."(연구 참여자 13)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고령자에게 자원봉사는 희망일 뿐 자원봉사할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한다며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간에 다른 일 하면 돈 버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원 봉사하는 거 좋죠. 우리 친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더라고. 근데 이거는 보니까 다들 보람을 느끼는데 나는 아무 보람이 없어서."(연구 참여자 6)

"만약에 로또를 사서 만약에 이제 거액이 당첨이 됐다. 그런데 그때도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진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먹고살 수 있는데. 그때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상상은 해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1)

3. 강요된 가족돌봄 선택

고령자가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 중 가족돌봄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의 찬반 태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고령자 스스로 가족돌봄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활동과 달리 가족들의 욕구에 의해 손자녀 돌봄이나 부모 돌봄 등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가족을 돌보는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기 어려웠다. 생산적 활동으로써 가족들로부터 가족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급기야는 더 이상 가족을 돌보는 데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족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굳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령자는 유급노동으로서 전일제로 하는 가족돌봄은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장시간 돌봄을 하지만 대가를 받더라도 다른 생산적 활동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할머니들은 쌔빠지게 애들만 보다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연구 참여자 6)

"이제 봐준다기보다도, 자식이 뭐 사회활동 하고 모임 있고. 여자들도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할 수 없이 맡기고 가니까 봐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주 보니까. 예, 처음에는 정말로

예뻐서 데리고 와라. 어디 같이 가자 그랬는데, 너무 심하니까. 정말로. 힘들어."(연구 참여자 17)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애기가 이렇게 작은데 네. 애기가 이만한데 이 삼키로 조금 넘는데 왜 이렇게 손목이 아파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막 머리도 못 감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애기를 보는데 손목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약이랑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게 갑자기 이게 저기해서 놀란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진짜 그 약 먹으니까 또 그러더만."(연구 참여자 8)

"아니 집사람이 그걸 해 봤거든요. 며칠 갔다 오더니 이거 못 하겠다고, 식모 취급 파출부 취급 한다니까."(연구 참여자 15)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하루만 가서 애기 우유 멕이고 기저귀 갈면 되니까 그거 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거 자꾸 발을 담그지 말아야지.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지 집사람에게."(연구 참여자 15)

"작년하고 재작년 집에서 육아를 했잖아요. 매일 병원 한의원하고 병원에, 저기 신경외과 맨날 갔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은 안 가요.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말도 못해요, 정말. 아주 중노동이 뭐예요, 상노동이에요."(연구 참여자 11)

연구 참여자 9, 10과 같이 배우자나 부모가 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할 때, 주변에 가족돌봄을 함께해 줄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주된 돌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던 일도 포기하고 가족돌봄을 떠안게 된 경우가 있었다.

"네. 직장 생활하고 제가 어 다 직장 생활하고 이제 저 저만 이제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뭐 이제 파트타임 정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뭐 처음에는 막 뭐 다 자기들이 뭐 좀 같이 모시고 뭐 어쩌고 할 것 같이 하더니 은근슬쩍 뭐 하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장녀 그 말 할 테면 무슨 뭐 재산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똑같이 막 예. 이렇게 하더니 아 그럴 때는 뭐 첫째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또 은근히 좀." (연구 참여자 9)

"네. 근데 저 그 같이 일하던 데서 얘기가 나와서 같이 회사 하나 차려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경우 저 매일 안 좋은 건 아닌데 갑자기 안 좋아지면 저기 누가 그렇게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되니까." (연구 참여자 10)

제3절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

1. 생산적 활동의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생산적 활동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산적 활동이 고령자 자신에게 보람, 재미, 기쁨, 설렘, 자신감, 행복을 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소속감, 자긍심, 자존감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애기 태워 가지고 어린이집에 태워서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주고, 작은애는 문화센터 데리고.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설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

서. 애기 만나는 생각에 애기 장난감을 선물을 사 가서, 처음 만날 때 애기한테 해 가지고, 아부를 해서 애기하고 사이좋게 지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연구 참여자 18)

"이 일 애들 봐주면서도 또 이거에 쾌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고요."(연구 참여자 7)

"실제로 해 보니까 보람도 되게 많고 애들이 커 가는 재미도 있고 작은 힘이지만 또 사회구성원으로써."(연구 참여자 5)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딴 데 돈 벌러 가라고 하는데 나는 안 간다."(연구 참여자 14)

"일이 없다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또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무료한 낮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용돈도 벌고 생활도 더 활기가 있고 오히려 좀 더 부지런해지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5)

"일을 하니까 항상 고정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딱딱 돌아가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6)

"저도 이제 50에서 60, 다 되어 가서 일을 한번 해 보면. 그게 일종의 긍지라고 할까요. 아, 내가 아직도 일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런 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번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마음가짐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달라지는 거죠. 젊었을 때에 비해서."(연구 참여자 2)

"본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조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갈 곳이 없다, 그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내 조직이 있다라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13)

"집에 있으면 뭐해요. 운동 삼아서 슬슬 나가고. 가서 이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연구 참여자 3)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맘대로 아침에 나가서 일을 좀 하고. 나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했을 때도. 어떤 일이 없어서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입맛이 돈다는 게. 그게 하나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저녁 돼서 퇴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고 그런 돌아다니는 사이클이. 사이클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죠."(연구 참여자 2)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산다는 거예요...그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항상 밥도 그 시간에 딱 챙겨 먹으니까 그게 좋고, 내가 집에 있으면 얻지 못할 많은 정보들을 얻고 집에 밤낮으로 있으면 못 만날 사람들을 일터에서 다 만나니까."(연구 참여자 6)

또한 손자녀 돌봄은 젊은 자녀들이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도 지닌다. 또한 고령자 자신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며 자긍심을 가진다.

"제가 작은 일이지만 조금 맞벌이하는 엄마들을, 물론 제가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 교육 받을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연구 참여자 5)

"애들 보고 싶고, 가긴 가야죠. 자식이 급하다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죠...그래 요즘은 맞아요. 그렇게 내가 뭘 좀 약간 럭셔리하게 뭔가가 자꾸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수입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맞벌이 또 해야 되고 또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

요. 왜냐하면 뭐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 되고 그럼 어쩔 수가 없이 맞벌이는 해야 되고 그 애기는 누군가 봐줘야 되고 아무리 국공립 이런 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 갭 생기는 거는 누군가 메워줘야 되는데."(연구 참여자 9)

나아가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귀감을 청년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무기력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씩 불식시켜 나가는 역할도 한다.

"이 편의점 갔다 오면, 저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우유 찾으며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 가지고, 나이 드셔 가지고 일하는 것도 막 이렇게 민폐가 아니고. 젊은 대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연구 참여자 18)

"가족들도 엄마가 계속 전업주부로만 있다가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엄마도 하는 게 있구나, 경제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아서 대접을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연구 참여자 5)

2. 다수의 생산적 활동 참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일, 가족돌봄, 자원봉사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다차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3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비정기적이지만 손자녀도 돌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2도 정년퇴직 후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근 자녀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했다.

"그게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 본다는 게 쉬운 게, 손자 본다는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끔가다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딸내미가 손자 암만...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을 했는데도 방과 후 학교 가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낮에 가서 있어줘야죠."(연구 참여자 3)

"사실은. 야탑 살다가 애를 또 봐야 한다고 하길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으로 갔는데."(연구 참여자 12)

3. 생산적 활동 선택에서 개인적 차이

연구 참여자별로 생산적 활동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계 마련이나 가족을 위해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보다 손자녀돌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도 하고, 가족돌봄보다 자원봉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즉 사람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서 가족돌봄보다 자원봉사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 11과 같은 사례도 있다.

"손주가 생겨서, 또 육아를 해야 하니까...근데 제가 하면서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아산병원 봉사만큼은 내가 못 끊겠다, 그래서 그건 계속 다니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11)

심리적, 소명, 가족적인 관점에서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일보다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자녀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손자녀돌봄을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 일 애들 봐주면서도 또 이거에 쾌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고요.” (연구 참여자 7)

“엄마들도.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미리 예약했어요. 애기 봐준다고. 안 뺏긴다고, 사돈 쪽으로 안 뺏긴다고 미리 예약해 놓고. 애기. 왜냐면 우리 아들은 서른세 살인데 아직 여친이 없는데요.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진짜 안 뺏기고 내가 키워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애들이 엄마 그렇게 애기 좋아하면...애들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누구한테도 안 맡기고 그러고 싶은데.”(연구 참여자 18)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너 결혼하고 내가 봐줄게.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연구 참여자 16)

4. 노년기 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

고령자의 실제 체력이나 역량과 상관없이 중고령자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가엾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과 가족의 편견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편견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꺼리고, 가족들이 만류하는 상황에서는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가진 생산성을 자신 있게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거겠죠. 그런 선입견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있어요.”(연구 참여자 17)

“아 50대 전후로요? 아. 일단은, 이제 자기가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50대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역할이 이제는 여기까지가 다다.”(연구 참여자 1)

“그런데 조금 두려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이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이제 30대에서 50대. 50 미만까지 해서. 담당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쭉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담당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70 가까이만 되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연구 참여자 1)

"뭐 엄마가 나가서 험한 일 했고, 자기네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우리 딸한테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취업을 못했잖아요. 너무 속상해해. 엄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 그래 가지고...우리 애는 계속 엄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고. 만약에 가서 했다가 정말 힘들면 바로 관둬라 했는데. 저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설레서 그랬는데. 우리 애는 그 얘기만 하면, 엄마 내가 열심히 취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연구 참여자 18)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 집에 너무 자식들이 손 벌려서 나이 드신 분이 돈을 버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면접을 두 군데 보고 전화 면접을 한 군데 봤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시겠냐고 그러면서 항상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나, 경제가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연구 참여자 18)

5. 경제적 보상의 임의성과 낮은 수준

생산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다. 상주 손자녀돌봄을 하는 일은 월 150만~200만 원(연구 참여자 8), 노인일자리로 식사 준비하는 일은 월 20만 원(연구 참여자 3), 어린이집 이야기 할머니 활동은 1회 방문당 3만 5000원(연구 참여자 11), 배움터 지킴이 하루 3만~4만 원(연구 참여자 15)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급여는 그 활동의 시장가치를 엄격하게 측정하거나 평가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생산적 활동의 대가 수준은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애기 봐주는 거 한 애 봐주는 데 아무리 부모라도 그 상주하면서 볼 때는 한 백오십만 원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백오십만 원은 받고 둘 보면은 이백만 원은 받아야...쌍둥이를 보면 얼마 준다고도 아직 안 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상주를 하고 두 달 동안 봐주면은 자기가 나를 이백은 줘야."(연구 참여자 8)

"동네에서 노는 할머닌데 할머니가 밥을 차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해 먹어, 그러면 싸움 날 수도 있거든요. 너 저번에는 뭐 했는데, 나는 뭘 해야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20만 원, 20만 원 드리니까 한 끼를 하시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13)

"제가 이야기 할머니 할 때, 1회당 삼만 오천 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이상 외워야 해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제 머리가 쥐날 정도로 외워서 수업은 한 반 수업이 20분 수업이거든요. 네 반까지 수업을 해요. 한 시간 이십 분 수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 가요. 그러면 10만 원씩은 주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이야기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교통비를 그때는 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도서관에 애들 오면 이야기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받든 안 받든 제가 좋아하니까 보람을 느껴요."(연구 참여자 11)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봉사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봉사료를 3~4만원 받아요, 8시간 9시간 일하면서. 그거를 내가 해 볼까 하고 있는데 이게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거는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애들 얼마나 귀여워요."(연구 참여자 15)

6. 일터 환경의 고령친화성 부족

노년기 일을 하는 데 사회적 제약이 많았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부터 일해 오던 직장에서도 젊은 동료들이나 고객들로부터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다가 퇴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연령 분절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장시간 전일제를 전제로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노동환경과 근로계약이 체력적으로 저하된 고령자에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젊은 동료들은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만 적은 노동강도의 편법적인 특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맞는 탄력적 노동계약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임금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들이 다 젊은이들이거든요."(연구 참여자1)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부형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학원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부모들이 40대 이런데 상담하는 원장님이 60이 다 되어 가면 대화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더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은퇴를 했고요."(연구 참여자 13)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만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은 정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을 10시 또는 11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출근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 뭐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는데. 다니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데

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또 소외감 느껴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연구 참여자 17)

아무리 고령자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정년제도가 없는 일부 전문직, 자영업, 회사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정년퇴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고령자는 재취업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 쌓아 왔던 전문성과 노하우는 인정받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의 비숙련 노동 기회를 주로 갖게 된다. 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직급이 낮아지고 정규직이 아닌 저임금 계약직이나 자원봉사로 계약을 맺게 된다.

"일자리를 한번 구해 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경비. 그리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쪽 일 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연구 참여자1)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좀 애매한 나이인 거예요. 그냥 쉬자니 그런 나이고, 제가 지금 만 57세인데 쉬자니 좀 그런 나이고 일하자니 써 주는 곳이 없고. 진짜 그래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연구 참여자 13)

전화를 받는 업무에서조차 목소리가 도전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험까지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괴롭더라도 과거의 자신을 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단순 노무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가지기를 요구받는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 그런 거 나 시켜 주면 되게 잘할 텐데.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전화받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또 안 뽑는다는 거야. 그 아니 전화하는 건데 나이 먹고 좀 뚱뚱하고 못생긴 그게 뭐 문제냐고요...근데 전화 목소리는 예쁠 것 같은데 저 전화 전화 봉사를 한 번 갔다가요. 목소리가요 도전적이래요...하루하고 쫓겨났어요. 아니 그 이 나이 제한 없었는데 목소리가 이 전화상으로 좀 뭔가 안 좋았나 봐요. 상대방이 듣기에."(연구 참여자 7)

"왜냐면 자기가 밖에서 그것만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과거는 지워야 해요. 나도 처음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걸 다 잊어야 해요...지나온 삶은 잊어야 하는데 그게 나를 잊는다는 게, 나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삶이 있는데.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6)

결국 고령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시간당 생산성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일자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생산성과 무관하게 그 직종의 평균 임금수준으로 이들의 생산성이 측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연구 참여자 14)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정년이 없었는데 정년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 60세로. 저는 불리하죠."(연구 참여자 14)

7. 자원봉사 욕구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며, 일보다 후순위

해외 자원봉사를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보고, 자녀, 손자녀와 함께 자원봉사 다니기를 소망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선호는

높았으나 막상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지금 어르신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자원봉사.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티비에서도 뭐 연예인들 보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가 아프리카 가서 안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마지막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더라고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얼마나 참 저런 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1)

"진짜 나이가 많아서 경제적인 활동도 못 하고 손주들도 내 손을 다 떠난 그 뒤에는, 그때 비로소 진짜 자원봉사, 봉사하는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연구 참여자 5)

"봉사를 손주들이나 자녀들하고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다 커서 안 다니니까 손주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연구 참여자 4)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활동 내용, 장소, 활동비를 보조받는지 여부에서도 사례마다 차이가 크다. 자원봉사는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더 활발하게 한다는 의견과 젊어서부터 자원봉사를 해야 나이 들어서도 한다는 반대되는 의견으로 엇갈리기도 했다.

"자원봉사한 지는 2000년도부터, 한 40 좀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장애인 복지 시설,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반찬, 뭐 이런 거, 설거지 봉사, 그리고 이제 장애자들 대화하고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그리고 아산 병원에서 봉사한 지 한 15년 됐는데 지금도 아산병원에서 봉사하다가 왔어요. 원래 4시까지 해야 하는데 1시간 빨리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완전 무료 봉사, 그리고 은퇴자 봉사 강동구에서 하모니카를 하는데 남자 분도 계시고 여자

분도 계시고 노인정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고."(연구 참여자 11)

"지금은 이제 책 만드는데 문단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도 있고."(연구 참여자 12)

"성당에 무슨 기금, 내놓는 것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모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서, 그리고 시니어들, 70 이상 되신 분들, 뭐 가르쳐 드리잖아요. 판소리 이런 거 하면 가서 식사, 국수도 삶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쌀도 이렇게 하면 나눠 드리고 김치도 담가서 나눠 드리고."(연구 참여자 13)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봉사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봉사료를 3~4만 원 받아요, 8시간 9시간 일 하면서. 그거를 내가 해 볼까 하고 있는데...등하교 길하고, 횡단보도 있으면, 거기 안전하게 다니게 도와주는 그런 봉사 하는 거거든요."(연구 참여자 15)

제4절 생산성에 대한 인식

본 절은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자 개인이 생각하는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 지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1. 사회적 저평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생산성 발휘 기회 부족

청장년기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생산성은 낮고, 나이가 듦에 따라 생산성이 점차 하락한다는 게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국의 고령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자는 노년기의 생산성이 청장년기에 비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사회

적 편견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령자가 실제로는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행동이 느리고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있어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고령자에게 막막함을 안겨 주기도 한다.

"그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노인 세대가 되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있으면, 보는 눈이 이미 선입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은 행동이 느리고. 뭐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시켜도 손이 가.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연구 참여자 17)

"하기가 좀 애매해요. 쓰는 데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저기는 있죠. 있는데."(연구 참여자 8)

"그래서 그때 했던, 처음 시작한 게 지난 12월부터 원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계약직을 봅는데 열세 번째에 한 도서관에서 써 주더라고요."(연구 참여자 14)

특히 가족돌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끔 돈으로 보상하는 다른 형제가 오히려 칭찬을 받는 상황을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적 활동의 영역별로 생산성의 가치가 서열화되어 있어서 일이 아닌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생산성은 저평가되는 구조이다.

"직장 생활하고 제가 어 다 직장 생활하고 이제 저 저만 이제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뭐 이제 파트타임 정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뭐

처음에는 막 뭐 다 자기들이 뭐 좀 같이 모시고 뭐 어쩌고 할 것같이 하더니 은근슬쩍 뭐 하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장녀 그 말할 테면 무슨 뭐 재산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똑같이 막 예. 이렇게 하더니 아 그럴 때는 뭐 첫째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또 은근히 좀... 거기다가 만원버스면 만원 그 지하철 시달려 갖고 가면 막 눈에 딤 이러는데 아버지는 야 동생이 사 온 거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돌아버리기 직전인데. 돈 잘 버는 딸 있어 좋겠네요 근데도 모르시더라고. 네. 모르시더라고."(연구 참여자 9)

"아니 그러니까 동생들은 직업이 있으니까 그게 완전 깡패인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저는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뭐라도 쓰면 아 나도 뭔가 근데 어디 놀러가는 거야? 치매 활동하는데 나 그래서 아버지 뭐 그런 거 얼마나 또 욕을 하겠어요."(연구 참여자 9)

2. 업무 영역별 노년기 생산성의 차이

연구 참여자 3, 7, 13, 18과 같이 일부 고령자들은 노년기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인식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생산성이 낮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자신에게 익숙해진 업무 방식을 고수하고 개혁에는 주저할 수 있다고 한다.

"요새는 이동통신 세일하고, 뭐 세일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능숙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이게 바코드가 안 먹는다는데."(연구 참여자 18)

"이제 배우자가 그걸 하기 때문에 가끔 가서 도와주기는 해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는 잊어버려요. 이게 컴퓨터 그런 계통은.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연구 참여자 7)

"새로운 일을 하면 젊은 애들이 훨씬 빨라요."(연구 참여자 13)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었으니깐. 이게 그 경험도 있고, 다 있는 건. 있잖아 원래 그 경험이 제일 큰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혁이 안 돼요. 떨어져요, 자꾸만."(연구 참여자 3)

하지만 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도 노인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강점을 가진 영역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일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떨어지는 분야도 있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강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연구 참여자 5)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연구 참여자 6)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고 직장생활 하는 데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힘든 건 없고."(연구 참여자 2)

3. 생산성에서 고령자로서 강점 존재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 일과 노동환경에서의 잣대로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산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노인의 생산성은 평가절하되

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고령자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강점으로는 경력, 경험, 경륜, 여유, 인내심, 궂은일 마다하지 않음, 담담함, 일을 한다는 긍지, 성실함 등을 꼽았다. 이러한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노동환경에서 고령자를 활용해야 고령자의 생산성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산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 경력이 있잖아요, 경륜이."(연구 참여자 13)

"감리회사에서도 젊은 사람보다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최소한 10년 이상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돌아가기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2)

"나이 좀 드신 분은 제일 중요한 게 경험도,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인내심이 있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5)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회복지사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제복 입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참죠. 그러고 봉사하고."(연구 참여자 11)

"저도 이제 50에서 60, 다 되어 가서 일을 한번 해 보면. 그게 일종의 긍지라고 할까요...돈을 번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마음가짐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달라지는 거죠. 젊었을 때에 비해서."(연구 참여자 2)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딱 두 군데가 길 건너에 이렇게 있어요...한 군데는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딱 행색도 어디 직장 좋은데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일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 나이 한 80대이신 분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애랑 같이 가면 우리 애가 꼭 여기 가자고 그래요. 우리 딸이요. 왜냐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리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연구 참여자 18)

4. 노년기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제조건: 유연한 근로환경

고령자들은 자신들의 생산성 가치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높더라도 체력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안 좋고, 본인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도 저하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강도 장시간 노동은 부담스럽다. 그리고 고령자의 체력을 고려한 적절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내에서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적으로 이동 거리가 멀지 않고, 체력 소모가 적은, 반일제 정도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전제되어야 고령자가 일하기를 선호하고 생산성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이 든 분이 활동하려면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근거리는 되는데. 원거리는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연구 참여자 2)

"제가 이제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오전 시간은 거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디 얽매여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낮에도 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주말에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시간도 길지가 않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너무 긴 타임은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저는 네 시간이요. 하원해서 저녁 시간까지."(연구 참여자 5)

"하루에 세 시간 해요. 65세 이상은 3시간. 65세 미만은 5시간인가 7시간인가...공공일자리가 65세 이상은 5시간, 6시간 못 해요."(연구 참여자 3)

"근데 일의 강도를 좀 봐야 돼요. 좀 힘든 일 같은 경우는 두세 시간

밖에 못 할 수도 있지만. 뭐 가만히 있는 사무적인 공간에서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5시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연구 참여자 1)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참여 동기와 특성, 생산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애 후반기에 있는 한국의 고령자들은 각자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 다양하고 가변적인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처한 상황과 결정에 따라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른 생산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 일한 경험이 전혀 없지만 노년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는 1)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시작, 2)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3) 강요된 가족돌봄 선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은 1) 생산적 활동의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2) 다수의 생산적 활동 참여, 3) 생산적 활동 선택에서 개인적 차이, 4) 노년기 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 5) 경제적 보상의 임의성과 낮은 수준, 6) 일터 환경의 고령친화성 부족, 7) 자원봉사 욕구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며, 일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은 1) 사회적 저평가와 일할 기회 부족으로 생산성 발휘 기회 부족, 2) 업무 영역별 생산성의 차이, 3) 생산성에서

고령자로서 강점 존재, 4) 노년기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자의 인식 간 차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생산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데, 노년기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고령자 자신은 일률적으로 노년기 생산성이 청장년기에 비해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상 일터 환경이 고령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편견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고령자는 삶에서 누적된 경험을 통해 경력, 경륜, 여유, 인내심, 일의 의미, 일을 한다는 긍지 등에서 청장년층보다 생산성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절하는 일터와 가정 내에서 확인되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참여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활동 중에서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저평가되어 있으며, 여성 고령자에게 가족돌봄을 강요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노년기 생산성과 상관없이 한국의 고령자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 중 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 보람 찾기와 사회적 기여, 규칙적인 활동 등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확인되었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지원 방안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지원 방안

6 결론 및 정책 지원 방안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불과 7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index 2018. 10. 4. 인출). 이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보다 체계적인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 실태와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노년기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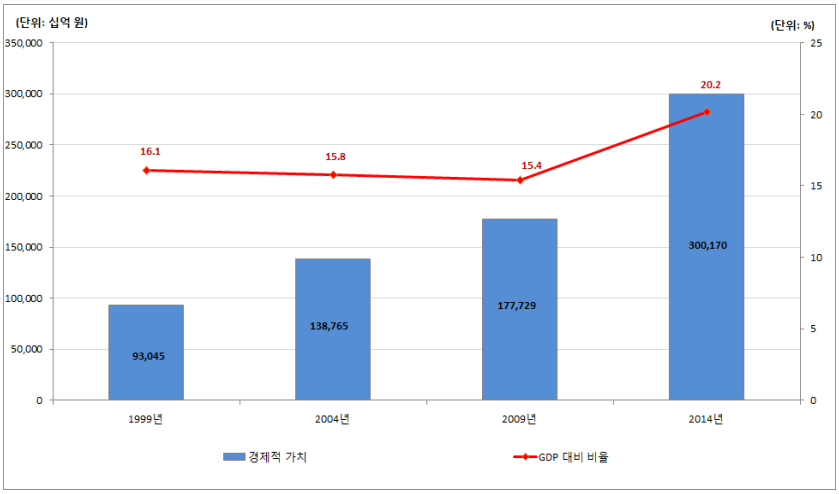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여 경제적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한국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들은 주로 전문직, 전기 노인 중심의 활

동에 국한되어 비전문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가정 내의 무급가사활동과 가족돌봄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사업체 내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생산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및 GDP 대비 비율: 전체, 연간, 명목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장래인구추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으로, GDP 대비 20.2%를 차지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는 177조 1510억 원(GDP 대비 11.9%)이며, 무급가사일은 123조 190억 원(8.3%)이다.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 100조 9190억 원(6.8%), 가족돌봄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이다.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는 1) 사회적 역할 찾기, 2) 생계를 위해 일 참여, 3) 강요된 가족돌봄 선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은 1) 생산적 활동의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2) 다수의 생산적 활동 참여, 3) 생산적 활동 선택에서 개인적 차이, 4) 노년기 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 5) 경제적 보상의 임의성과 낮은 수준, 6) 일터 환경의 고령친화성 부족, 7) 자원봉사 욕구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며, 일 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은 1) 사회적 저평가와 일할 기회 부족으로 생산성 발휘 기회 부족, 2) 업무 영역별 생산성의 차이, 3) 생산성에서 고령자로서 강점 존재, 4) 노년기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 지원 방안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고령자 이미지 및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노화 혹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혹은 노인은 '돌봄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경험적인 근거 없이 노년기 생산성 저하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이며, GDP 대비 20.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령자 이미지 및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진성철, 2018).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의 생산성과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도 일,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일터 및 가정, 지역사회의 세대 통합성 지향

한국이 세대 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령자끼리 교류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단절과 세대 분절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서울시의 어르신취업훈련센터와 50+캠퍼스 등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이들 집단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세대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가령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 시니어 자원봉사 인력을 외국인 대학생과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또한 미국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라는 의미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통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은 50세 이상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것으로,

50세 이상 고령자가 아동 및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조력자가 되어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3. 자발적인 생산적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 불충분한 가족돌봄 지원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등으로 강요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선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앞선 사례 연구 결과 고령자 스스로 가족돌봄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활동과 달리 가족들의 욕구에 의해 황혼 육아나 부모돌봄 등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고령자는 가족을 돌보는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기 어렵고, 생산적 활동으로 가족들로부터 가족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비자발적 생산적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 노년기 다양한 생산적 활동 참여 존중 및 참여 기회 제공

노년기에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로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미성숙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노년기 경제활동 중심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고령자는 일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지

만, 참여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활동은 노년기의 특성에 맞춰 활동 시간과 활동 장소 등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고령층은 가족돌봄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녀 세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사회화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정부의 정책 지속가능성과 노년기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가족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황혼 육아나 부모·배우자 돌봄은 가족 및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고, 고령자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 마련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해 일에 중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자원봉사(사회공헌)까지만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정책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들은 가족돌봄이나 가사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일, 자원봉사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정책 수요자인 고령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돌봄이나 가사활동 등 보다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노년기 다양한 생산적 활동 참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가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의 가치 부여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일터의 고령친화성 제고 강화

고령자가 일터에서 동료로서 보다 늦은 나이까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길어진 노년기 경

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년제 개선, 중고령자 취업 및 창업 지원,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과 같이 고령자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 일부 고령자는 연령 분절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 노동환경과 근로계약의 고령친화성 부족 등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령자는 젊은 시절부터 일해 오던 직장에서 젊은 동료들이나 고객들로부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과 같은 불편한 관계를 참기 힘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작업 장소 등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근로계약과 노동환경은 노화에 따른 체력 저하를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친화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맞는 탄력적 노동계약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기업 내에 도입한 경우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외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인데, 미국과 영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이 없다.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70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노년기 이미지 및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노인 복지의 수혜자 선정 기준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들의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6.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창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재취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 왔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생애 경력과 상관없는 단순 노무직에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로 참여할 기회 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등을 통해 고령자 대상 생산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자는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창업,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노년기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노년기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은퇴자 대상 경제활동 지원 정책들은 주로 전문직, 전기 노인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비전문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원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인생나눔교실,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 어르신IT봉사단 등과 같은 사회공헌활동 역시 고학력, 70세 이하의 전기 노인, 전문가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인구특성별로 저학력 노인, 후기 노인, 비전문가 노인 등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고령 인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고령 인력 활용 차원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8.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

노년기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정보에 취약한 세대로 알려져 있으므로 노년기 지원 정책은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 등의 협력과 업무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64세 미만의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년층[11]을 대상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정책은 더 많은 부처에서 직능에 맞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노인자원봉사와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대상 사회공헌활동, 교육부는 교원 대상 은퇴 인력 활용, 행정안전부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공급자 중심 체계로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의 연령이나 생애경력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관(창구)을 통해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11) 일부는 60세 이상도 해당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7호, (2016. 7. 28.)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인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27751호, (2017. 1. 1.)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7. 8. 9.).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gov.kr/portal/ntnadmNews/1165639에서 인출.

_____. (2017).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 :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200394에서 인출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91호, (2017. 3. 21.)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에서 인출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3), 61-76.

권태희. (2006).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004년 한국사례. **여성경제연구, 3**(1), 1-24.

김기민. (2017). 사업체 근로자의 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KLI 패널프리브, 8**, 1-10.

김문정. (2017).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초연구: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과 환경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상범. (2011), **노인의 생산적 노화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 김영숙, 이선행. (2010).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석. 조현연. (2017). 인구고령화시대,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4**(2), 7-28.

김정현. 노은영, 권혜영. (2017). **서울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김준영. (2003). **한국의 여성노동경제**. 서울: 해냄.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 연구: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남기민, 최화강. (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남성일, 전재식. (2013).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 경로별 요인분해를 통한 분석. **산업관계연구, 23**(4), 45-66.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숙재, 최민영. (2002).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6**(1), 35-71.

문정란. (2011).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9) 131-160.

박경하. (201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고용과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81-206.

박병률. (2017. 10. 16.) 가사노동 경제 가치 정부 공식통계 개발.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160600075에서 인출

박정호. (2012). 취업 고령자의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생산적 활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59-81.

박지성, 김성수. (2014). 고령화-조직성과 관계에 있어 지식전파 HR제도의 역할 - 지식경영 관점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173-196.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2. 9.).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3877&FILE_SEQ=224429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50+ 리포트 2018.** 2018(5), 13.

석진홍, 박우성. (2014).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4**(3), 79-104.

안선영, 김동헌. (2014).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한국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 32**(4), 157-181.

안영진, 유영목. (1999). **21세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운영관리.** 서울: 박영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2018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Retrieved from http://www.kosha.or.kr/kosha/intro/northernGyeonggiBranch_A.do?mode=view&boardNo=166&articleNo=352111&attachNo=(2018. 5. 17. 인출)

우석진. (2013).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서울: 지필미디어.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윤자영. (2010). 자녀 양육시간의 경제적 가치. **월간노동리뷰**, 2010년 7월호. 23-38.

이정훈, 이한우, 이옥자. (2014). 노인의 공식/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6**, 287-305.

이주일. (2011). 노인의 일과 행복-생산적 노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1(1)**. 45-73.

장윤섭, 양준석. (2017). 근로자 고령화가 기술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7**(1), 109-136.

장일현, 이상민, 유규창. (2012). 고령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인적자원 관리 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전혜정. (2007).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참여와 정신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 337-361.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은정. (2016). 인력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교육훈련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pp.243-268.

_____. (2017).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연구: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73-109.

진성철. (2018. 11. 29.).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로 연장될까?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tv.co.kr/view/AKR20181129146200004에서 인출

통계청.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2018.8.1. 인출).

_____.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18.8.1. 인출).

_____. 2009년, 2014년,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2018.8.1. 인출).

_____.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2018.8.1. 인출).

_____. 4~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_____. (2017. 7. 24.).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보도자료**. Retrieved from 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 bmode=download...ord

_____. (2018 10. 18).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통계청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

_nw/1/13/5/index.board?bmode=read&bSeq=&aSeq=37097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한국노동연구원. (2016).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version 1.52).** 한국노동연구원.

_____. 1~6차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2018.10.2. 인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년도 어르신 IT봉사단 공모 안내서. Retrieved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78336&bcIdx=19386(2018. 5. 23. 인출)

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법령/헌법에서 인출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황남희. (2012). **비시장노동과 세대간 이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 인구고령화와 가계생산. **여성연구, 84**, 135-170.

_____ (2014).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Issue & Focus,** 233.

AARP. (1996). *American Business & Older Employees: A Summary of finding.* Washington.

Abraham, K. G., & Mackie, C. (2005).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ies Press.

Becker, G. 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9-49.

Butler, R. 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Oxford, England: Harper & Row.

Butler, R. N., & Gleason, H. P. (1985). *Productive Aging: Enhancing Vitality in Later Life.* Springer.

Butler, R. N., & Schechter, M. (1995). Productive Aging. In Maddox G.

L.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Springer.

Caro, F. G., Bass, S. A., & Chen. Y. P. (1993). Introduction: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in S.A. Bass, F.G. Caro, and Y. P. Chen(Eds.),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eity,* 1-25. Westport, CT: Auburn House.

Giniger, S., Dispenzieri, A., & Eisenberg, J. (1983). Age, experience and performance on speed and skill jobs in an applied set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3), 469-475.

Göbel, C., & Zwick, T. (2012). Age and productivity: sector differences. *De Economist*, *160*(1), 35-57.

Goldschmidt-Clermont, L. (1993). Monetary valuation of non-market productive ti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 419-433.

Hamdad, M. (2003). Valuing household's unpaid work in canada, 1992 and 1998: trend and sources of change. *Statistics Canada Economic Conference*, May, 2003.

Herzog A. R., Kahn, R. L., Morgan, J. N., Jackson, J. S., & Antonucci, T. C.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44B*, 129-138.

Jung, Y. K., Gruenewald, T. L., Seeman, T. E., & Sarkisian, C. A. (2010). Productive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frailty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rontology, 65B*(2), 256-261. doi.org/10.1093/geronb/gbp105.

Landefeld, J. S., Fraumeni, B. M., & Vojtech, C. M. (2009). Accounting for Household Production: A Prototype Satellite Account Using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5(2),* 205-225.

Mitchell, T. W. (1921). Psychology and the unconsciou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1, 3-4. doi.org/10.1111/j.2044-8341.1921.tb00272.x.

Moon, S. (2001). *Research on development of stellite account of unpaid household labor.*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urphy, M. (1978). Value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Opprotunity cost versus market cost estimate. *Review of Income and Welth, 24*, 243-255. doi.org/10.1111/j.1475-7991.1978.tb00051.x.

Reid, I. D. A. (1934). Vocational guidance for negro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12*(5), 25-29. doi.org/10.1002/j.2164-5884.1934.tb00172.x.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eing.* Random House.

Van Ours, J. C., & Stoeldraijer, L. (2011). Age, age and productivity in dutch manufacturing. *De Economist, 159*(2), 113-137. doi.org/10.1007/s10645-011-9159-4.

Waldman, D. A., & Aviolo, B. J. (1986). A meta-analysis of age differences in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33-38.

Walker, A. (2006). Active ageing in employment: Its meaning and potential. *Journal of Asia Pacific Review, 13*(1), 78-93. doi.org/10.1080/134390006006976 21.

Willcox, D. C., & Willcox, B. J. (2007). The cultural context of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women weavers in a northern okinawan willage: the role of productive activ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2*(2), 137-165.

[전자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do에서 2018. 4. 27. 인출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laborstat.moel.go.kr에서 2018.

10. 4.인출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8. 10. 4. 인출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76017&themaId=L#301_A_A05.2 에서 2018. 11. 21. 인출
내연금 홈페이지. Retrieved from csa.nps.or.kr에서 2018. 5. 17.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mcst.go.kr에서 2018. 5. 17.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Retrieved from bokjiro.go.kr.에서 2018. 5. 17. 인출
서울시50플러스 포털 홈페이지. Retrieved from 50plus.or.kr에서 2018. 5. 23. 인출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goldenjob.or.kr에서 2018. 6. 22. 인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홈페이지. Retrieved from 50plus.or.kr/swc/education 에서 2018. 6. 22. 인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mpm.go.kr에서 2018. 5. 23. 인출
50+ 부산포털 홈페이지. Retrieved from busan50plus.or.kr에서 2018. 5. 23. 인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100senuri.go.kr에서 2018. 5. 17. 인출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kpc.or.kr에서 2018. 6. 25. 인출
ILO 홈페이지. Retrieved from www.ilo.org에서 2018. 6. 25. 인출

부 록

부록 1.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 참여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본다. 분석 내용은 고용률 및 실업률, 종사상 지위, 임금, 향후 취업 희망 등이다.

〈부표 1-1〉 고령자의 경제활동 분석

통계청 분석 자료	분석 내용	분석 변수	분석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 지위	성별, 연령	2007~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임금[1)]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2009, 2014,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향후 취업 희망 등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연금[2)]수령 여부	2017.5.

주: 1) 임금은「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만 조사.
2)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포함.

1. 고용률과 실업률[1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5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1447만 명으로 2007년 대비 530만 명(57.9%) 증가했다. 이중 여성 고령 인구는 2017년 781만 명으로 2007년 대비 273만 명(53.6%), 남성은 2017년 666만 명으로 2007년 대비 258만 명(63.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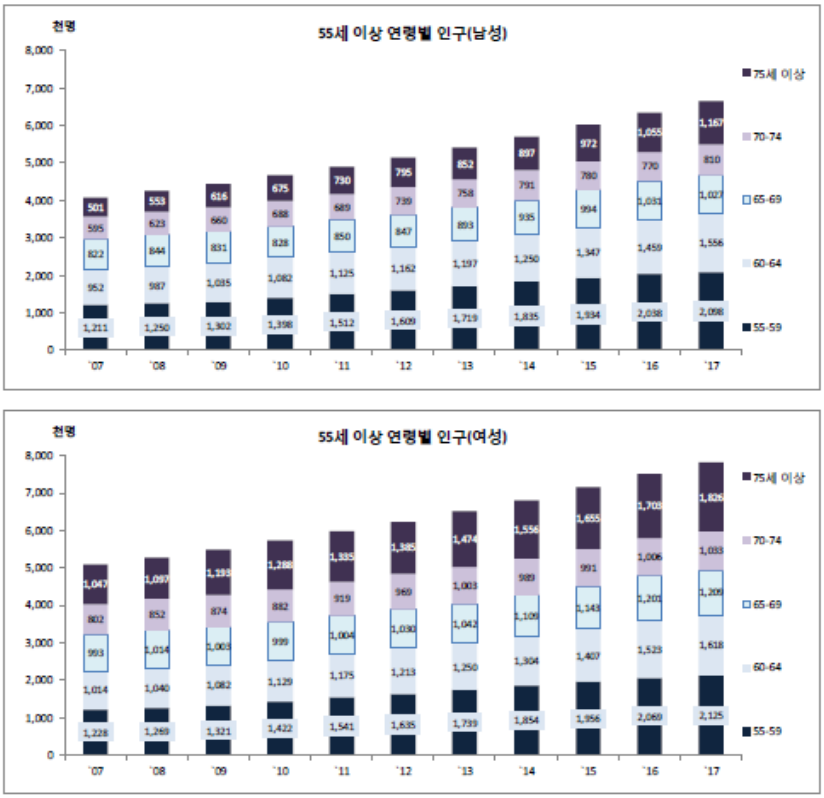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55~59세가 가장 많은데, 남성 210만 명(31.5%), 여성 213만 명(27.2%)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75세 이상 인구(2007년 50만 명→ 2017년 117만 명)가

12) 통계청.「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18년 2월 시계열 보정 후 자료.

2.3배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여성은 75세 이상과 55~59세 인구가 1.7배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부도 1-1〕 고령자의 성별 인구 현황(2007~2017)

(단위: 천 명, %)



주: 2018년 2월 통계청 시계열 보정 원자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4,081	4,257	4,444	4,671	4,907	5,152
여성	5,084	5,273	5,473	5,721	5,974	6,233
전체	9,165	9,530	9,917	10,392	10,881	11,385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07년 대비 2017년 증감
남성	5,418	5,708	6,026	6,353	6,657	2,576(63.1)
여성	6,508	6,812	7,152	7,504	7,810	2,726(53.6)
전체	11,926	12,520	13,178	13,857	14,467	5,302(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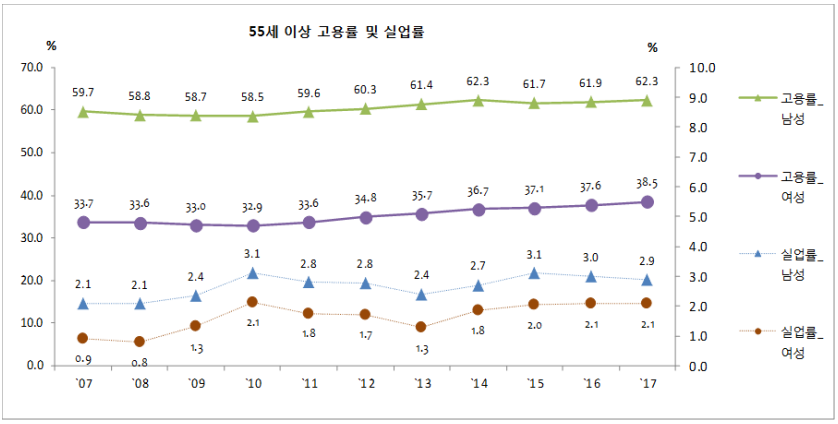
주: 2007~2017 55세 이상 인구(천 명, %)
자료: 통계청.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2017년 고령자의 고용률은 남성 62.3%, 여성 38.5%이다.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 후 201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처음으로 고용률 38%대에 진입하였다. 남성 고용률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한 후 2011년부터 전년 대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처음으로 62%대에 진입하였다.

2017년 고령자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2.9%, 여성 2.1%로 남성 실업률이 0.8%포인트 높다. 연도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2007년 2.1%에서 2010년 3.1%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다 2015년 3.1%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그러나 남성 실업률은 2016년 3%, 2017년 2.9%로 다시 하락 추세에 있다. 여성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2017년 2.1%로 2007년 0.9%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은 맞벌이의 보편화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도 1-2] 고령자의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2007~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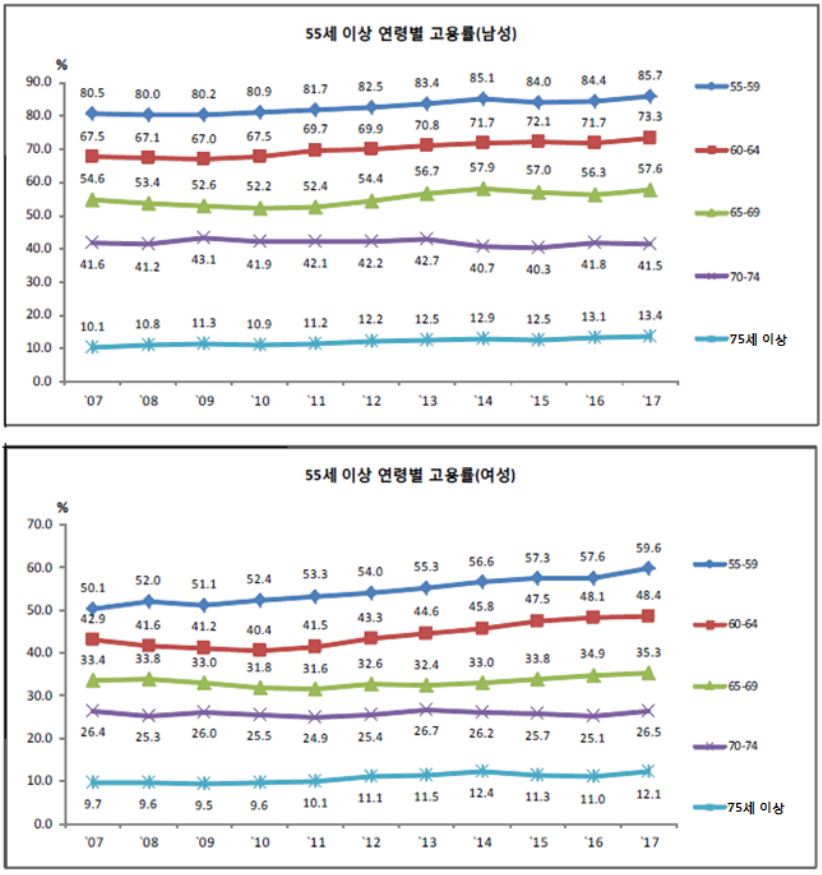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고령자의 연령별 고용률은 남녀 모두 55~59세가 가장 높다. 2007~2017년 고용률 상승폭이 큰 연령은 남성 60~64세와 여성 55~59세로 각각 5.8%포인트(2007년 67.5% → 2017년 73.3%), 9.5%포인트(2007년 50.1% → 2017년 59.6%) 상승하였다. 연령별 성별 고용률 격차는 75세 이상이 2007~2017년 2%포인트 내외로 가장 적다.

[부도 1-3]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2007~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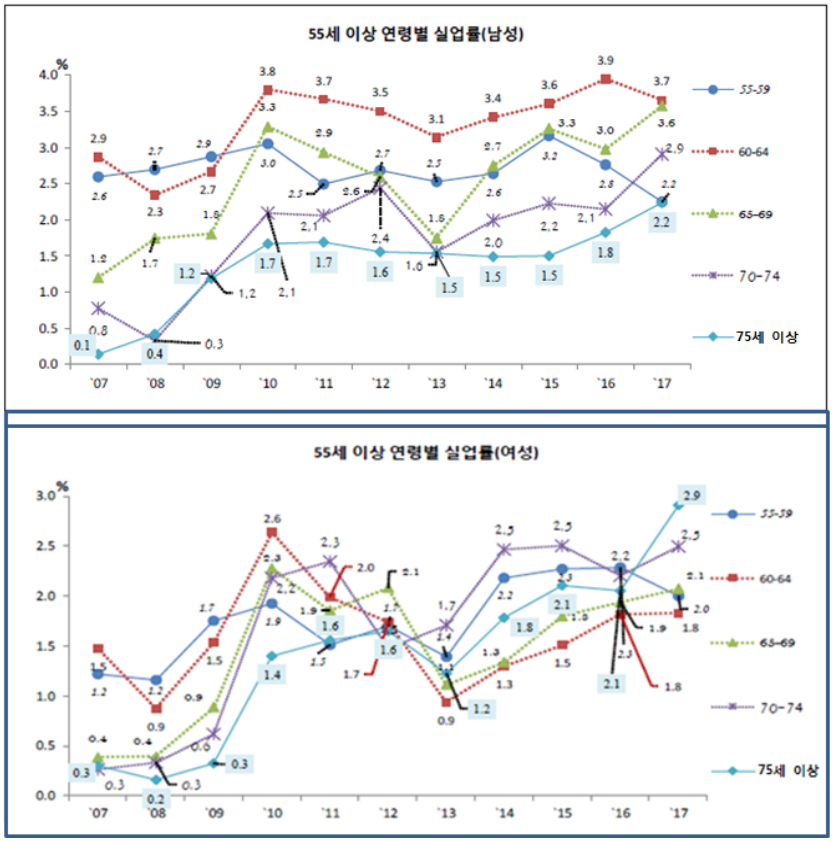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령별 실업률은 남녀 모두 55~59세가 가장 높다. 2007~2017년 실업률 상승폭이 큰 연령은 남성은 65~69세로 2007년 1.2%에서 2017년 3.6%로 3배 상승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젊은 55~59세에서 실업률 상승폭이 가장 크며, 2007년 0.3%에서 2017년 2.9%로 7배 이상 상승하였다.

〔부도 1-4〕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실업률(2007~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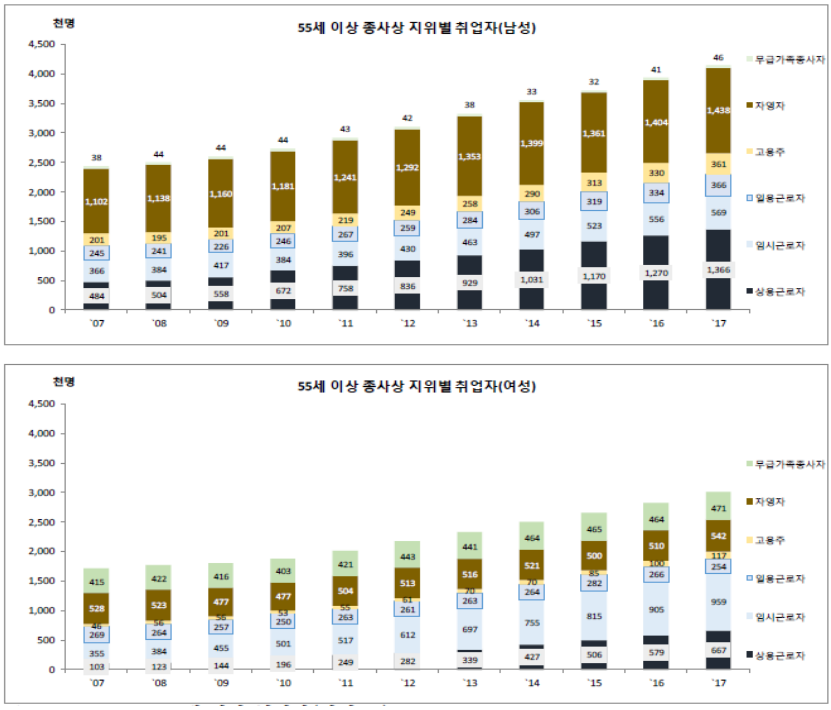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2017년 기준 666만 명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15만 명, 여성 301만 명이다. 2007년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258만 명(63.1%)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남성 171만 명(70.2%), 여성 129만 명(75.4%)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규모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144만 명, 상용근로자 137만 명, 임시근로자 57만 명, 일용근로자 37만 명, 고용주 36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5만 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

여 증가폭이 가장 큰 집단은 상용근로자로 2007년 48만 명에서 2017년 137만 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 여성은 2017년 전체 취업자 301만 명 중 임시근로자 96만 명, 자영자 54만 명, 상용근로자 6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47만 명, 일용근로자 25만 명, 고용주 12만 명이다.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15.7%로 2007년 17.4%보다 1.7%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남성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이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 수가 114만 명(2017년 기준) 더 많다.

[부도 1-5] 고령자의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7~2017)

(단위: 천 명, %)



주: 2007~2017 55세 이상 취업자(천 명,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2,436	2,505	2,606	2,735	2,924	3,108
여성	1,715	1,773	1,805	1,880	2,010	2,171
전체	4,081	4,257	4,444	4,671	4,907	5,152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07년 대비 2017년 증감
남성	3,324	3,558	3,718	3,935	4,146	1,710(70.2)
여성	2,326	2,502	2,652	2,824	3,009	1,294(75.5)
전체	5,418	5,708	6,026	6,353	6,657	2,576(63.1)

주: 2007~2017 55세 이상 인구(천 명, %)
자료: 통계청. 2007~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2. 임금근로자의 임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월에 실시되는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임금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2009년과 2014년, 2017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임금을 분석한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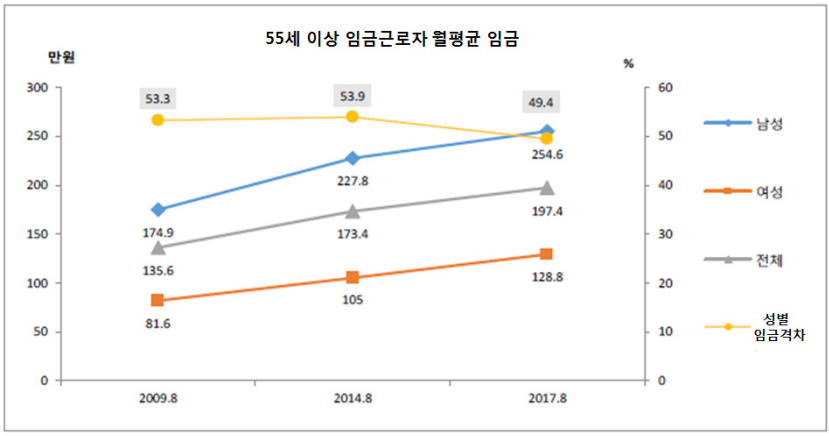
가. 월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136만 원, 2014년 173만 원, 2017년 197만 원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9년 175만 원, 2014년 228만 원, 2017년 255만 원이며, 여성은 남성의 2분의 1 수준으로 2009년 82만 원, 2014년 105만 원, 2017년 129만 원이다.

13) 2018년 2월 통계청 시계열 보정 후 원자료 분석.

[부도 1-6]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009, 2014, 2017)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3개월 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5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44만 원, 2014년 38만 원, 2017년 58만 원이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55~64세의 월평균 임금이 2014년부터 남성 200만 원, 여성 1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는 75세 이상에서 가장 극적인데, 2007년 24.8%로 가장 낮았지만, 2017년 61.4%로 가장 높게 바뀌었다.

〈부표 1-2〉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연령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단위: 천 명, 만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55~59세	571	233.3	916	292.8	1,119	323.6
	60~64세	342	152.1	442	205.9	610	233.9
	65~69세	186	110.3	250	156.4	295	171.2
	70~74세	97	83.2	137	99.3	169	136.3
	75세 이상	38	51.0	82	51.4	118	87.0
	전체	1,233	174.9	1,827	227.8	2,312	254.6
여성	55~59세	364	106.1	655	137.3	857	169.0
	60~64세	230	80.0	336	108.7	475	127.7
	65~69세	170	60.4	214	77.6	262	103.8
	70~74세	91	47.1	152	47.5	189	56.7
	75세 이상	41	38.3	99	26.5	145	33.6
	전체	896	81.6	1,455	105.0	1,928	128.8
전체	55~59세	934	183.8	1,571	228.0	1,976	256.5
	60~64세	572	123.1	778	164.0	1,085	187.4
	65~69세	356	86.5	464	120.0	557	139.5
	70~74세	188	65.7	289	72.1	359	94.3
	75세 이상	79	44.4	180	37.7	263	57.6
	전체	2,129	135.6	3,282	173.4	4,239	197.4
성별 임금 격차	55~59세	54.5		53.1		47.8	
	60~64세	47.4		47.2		45.4	
	65~69세	45.3		50.4		39.3	
	70~74세	43.4		52.1		58.4	
	75세 이상	24.8		48.5		61.4	
	전체	53.3		53.9		4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로 2017년 월평균 임금은 초졸 이하 105만 원, 중졸 147만 원, 고졸 이상 254만 원으로 2009년과 2014년과 비교하여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모두 1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는 고졸 이상이 40%를 상회하여 가장 크다.

〈부표 1-3〉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학력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단위: 천 명, 만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천 명	만 원	천 명	만 원	천 명	만 원
남성	초졸 이하	319	103.5	309	126.7	310	144.8
	중졸	262	125.0	323	165.3	405	177.4
	고졸 이상	652	229.9	1,195	270.8	1,597	295.5
	전체	1,233	174.9	1,827	227.8	2,312	254.6
여성	초졸 이하	551	65.3	631	75.6	668	86.0
	중졸	164	81.9	351	106.0	461	120.0
	고졸 이상	182	130.7	473	143.5	799	169.6
	전체	896	81.6	1,455	105.0	1,928	128.8
전체	초졸 이하	870	79.3	940	92.4	978	104.6
	중졸	425	108.4	674	134.4	865	146.9
	고졸 이상	834	208.2	1,668	234.7	2,396	253.5
	전체	2,129	135.6	3,282	173.4	4,239	97.4
성별 임금 격차	초졸 이하	36.9		40.3		40.6	
	중졸	34.5		35.9		32.4	
	고졸 이상	43.1		47.0		42.6	
	전체	53.3		53.9		4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 2017년 월평균 임금은 무배우가 129만 원, 유배우가 219만 원이다. 배우자 유무별 성별 임금 격차는 무배우 집단 보다 유배우 집단에서 더 크다. 2017년 기준 유배우 집단의 성별 임금 격차는 46.3%로 무배우 집단의 42.7%보다 3.6% 포인트 크다.

〈부표 1-4〉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배우자 유무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단위: 천 명, 만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무배우	98	110.0	201	159.3	293	184.8
	유배우	1,134	180.5	1,626	236.2	2,019	264.8
	전체	1,233	174.9	1,827	227.8	2,312	254.6
여성	무배우	376	70.6	550	87.8	709	106.0
	유배우	520	89.6	905	115.5	1,219	142.1
	전체	896	81.6	1,455	105.0	1,928	128.8
전체	무배우	475	78.7	751	107.0	1,001	129.0
	유배우	1,654	151.9	2,531	193.1	3,238	218.6
	전체	2,129	135.6	3,282	173.4	4,239	197.4
성별 임금 격차	무배우	35.8		44.9		42.7	
	유배우	50.4		51.1		46.3	
	전체	53.3		53.9		4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나. 시간당 임금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75세 이상의 시간당 임금은 2009년 4191원, 2014년 4815원, 2017년 6634원이다.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는 2009년과 2014년은 75세 이상(22.7%, 22.1%)이, 2017년은 65~69세(23.9%)가 가장 작다.

〈부표 1-5〉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연령별 시간당 임금

(단위: 천 명,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55~59세	571	12,282	916	16,019	1,119	17,802
	60~64세	342	7,791	442	11,277	610	12,893
	65~69세	186	6,877	250	8,756	295	9,596
	70~74세	97	5,005	137	6,565	169	8,315
	75세 이상	38	4,751	82	5,477	118	7,924
	55세 이상	1,233	9,420	1,827	12,696	2,312	14,257
여성	55~59세	364	6,075	655	7,943	857	10,004
	60~64세	230	4,745	336	6,664	475	7,951
	65~69세	170	4,067	214	5,863	262	7,307
	70~74세	91	4,118	152	4,859	189	5,719
	75세 이상	41	3,670	99	4,267	145	5,578
	55세 이상	896	5,043	1,455	6,771	1,928	8,379
전체	55~59세	934	9,865	1,571	12,653	1,976	14,418
	60~64세	572	6,565	778	9,287	1,085	10,730
	65~69세	356	5,534	464	7,422	557	8,521
	70~74세	188	4,574	289	5,669	359	6,945
	75세 이상	79	4,191	180	4,815	263	6,634
	55세 이상	2,129	7,577	3,282	10,070	4,239	11,584
성별 임금 격차	55~59세	50.5		50.4		43.8	
	60~64세	39.1		40.9		38.3	
	65~69세	40.9		33.0		23.9	
	70~74세	17.7		26.0		31.2	
	75세 이상	22.7		22.1		29.6	
	55세 이상	46.5		46.7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로 2017년 시간당 임금은 초졸 이하 7018원, 중졸 8483원, 고졸 이상 1만 4568원이다. 학력별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분석 기간 중 일관되게 중졸이 가장 작다.

〈부표 1-6〉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학력별 시간당 임금

(단위: 천 명,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초졸 이하	319	5,569	309	7,301	310	8,437
	중졸	262	6,273	323	8,966	405	9,606
	고졸 이상	652	12,569	1,195	15,099	1,597	16,564
	전체	1,233	9,420	1,827	12,696	2,312	14,257
여성	초졸 이하	551	4,131	631	5,337	668	6,361
	중졸	164	4,791	351	6,558	461	7,495
	고졸 이상	182	8,028	473	8,843	799	10,577
	전체	896	5,043	1,455	6,771	1,928	8,379
전체	초졸 이하	870	4,659	4,659	5,983	92.4	7,018
	중졸	425	5,703	5,703	7,711	134.4	8,483
	고졸 이상	834	11,577	11,577	13,326	234.7	14,568
	전체	2,129	7,577	7,577	10,070	173.4	11,584
성별 임금 격차	초졸 이하	25.8		26.9		24.6	
	중졸	23.6		26.9		22.0	
	고졸 이상	36.1		41.4		36.1	
	초졸이하	46.5		46.7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 2017년 시간당 임금은 무배우 8198원, 유배우 1만 2631원이다. 배우자 유무별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도 월평균 성별 임금격차와 동일하게 무배우 집단보다 유배우 집단에서 더 크다.

〈부표 1-7〉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배우자 유무별 시간당 임금

(단위: 천 명, 원, %)

구분		2009. 8.		2014. 8.		2017.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무배우	98	6,037	201	8,881	293	10,348
	유배우	1,134	9,713	1,626	13,169	2,019	14,824
	전체	1,233	9,420	1,827	12,696	2,312	14,257
여성	무배우	376	4,595	550	5,986	709	7,309
	유배우	520	5,368	905	7,248	1,219	9,001
	전체	896	5,043	1,455	6,771	1,928	8,379
전체	무배우	475	4,894	751	6,762	1,001	8,198
	유배우	1,654	8,347	2,531	11,052	3,238	12,631
	전체	2,129	7,577	3,282	10,070	4,239	11,584
성별 임금 격차	무배우	23.9		32.6		29.4	
	유배우	44.7		45.0		39.3	
	전체	46.5		46.7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09, 2014, 201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3. 일자리 경험 및 취업 희망[14)]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55~79세 고령자의 일자리 경험 및 취업 희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부가조사」(2017. 5.) 2018년 2월 시계열 보정 전 자료.

가. 생애 취업 경험

55~79세 고령자 중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3.9%이다. 여성이 7.1%로 남성 0.4%보다 18배 가까이 높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55~59세가 2.4%로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낮고, 75~79세가 6.1%로 가장 높다.

〈부표 1-8〉 고령자의 연령별 생애 취업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한 경험이 있음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		전체
남성	55~59세	86.7	12.8	0.5	10	2,040
	60~64세	75.4	24.4	0.2	3	1,538
	65~69세	57.6	42.1	0.3	3	1,052
	70~74세	43.2	56.5	0.4	3	814
	75~79세	31.9	67.4	0.8	5	667
	전체	67.1	32.5	0.4	24	6,111
여성	55~59세	60.0	35.6	4.4	90	2,060
	60~64세	48.9	45.0	6.1	98	1,596
	65~69세	37.5	55.2	7.2	89	1,228
	70~74세	29.5	59.5	11.0	116	1,053
	75~79세	22.9	67.0	10.1	88	869
	전체	43.9	49.1	7.1	480	6,805
전체	55~59세	73.3	24.3	2.4	100	4,099
	60~64세	61.9	34.9	3.2	101	3,133
	65~69세	46.8	49.2	4.0	91	2,280
	70~74세	35.4	58.2	6.4	119	1,868
	75~79세	26.8	67.2	6.1	93	1,536
	전체	54.8	41.3	3.9	505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 5.1%, 중졸 4.3%, 고졸 이상 3%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초졸 이하가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1.0%로 가장 높고, 여성은 중졸이 7.5%로 가장 높아 남녀 간 차이가 확인된다.

〈부표 1-9〉 고령자의 학력별 생애 취업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한 경험이 있음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		전체
남성	초졸 이하	56.8	42.2	1.0	12	1,172
	중졸	65.6	34.1	0.3	4	1,182
	고졸 이상	70.7	29.1	0.2	9	3,757
	전체	67.1	32.5	0.4	24	6,111
여성	초졸 이하	40.9	52.1	6.9	185	2,682
	중졸	46.2	46.3	7.5	115	1,536
	고졸 이상	45.5	47.5	7.0	180	2,587
	전체	43.9	49.1	7.1	480	6,805
전체	초졸 이하	45.8	49.1	5.1	197	3,854
	중졸	54.6	41.0	4.3	118	2,718
	고졸 이상	60.4	36.6	3.0	189	6,344
	전체	54.8	41.3	3.9	505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집단의 4.7%가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유배우 집단 3.7%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 유배우 집단의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이 7.7%로 배우자 유무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

〈부표 1-10〉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생애 취업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한 경험이 있음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		전체
남성	무배우	55.3	43.1	1.6	12	770
	유배우	68.8	31.0	0.2	12	5,341
	전체	67.1	32.5	0.4	24	6,111
여성	무배우	41.5	52.6	5.8	131	2,248
	유배우	45.0	47.3	7.7	349	4,557
	전체	43.9	49.1	7.1	480	6,805
전체	무배우	45.1	50.2	4.7	143	3,019
	유배우	57.8	38.5	3.7	362	9,898
	전체	54.8	41.3	3.9	505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연금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4.3%)이 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3.5%)보다 0.8%포인트 높다. 성별로는 여성 중 '연금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7.4%로 연금이 있는 집단보다 6.6%포인트 높다.

〈부표 1-11〉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생애 취업 경험(2017. 5.)

(단위: 천 명,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한 경험이 있음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		전체
남성	연금 있음	51.9	47.6	0.5	16	3,034
	연금 없음	82.0	17.7	0.3	8	3,077
	전체	67.1	32.5	0.4	24	6,111
여성	연금 있음	35.2	58.2	6.6	187	2,814
	연금 없음	50.0	42.6	7.4	294	3,992
	전체	43.9	49.1	7.1	480	6,805
전체	연금 있음	43.9	52.7	3.5	203	5,847
	연금 없음	63.9	31.8	4.3	302	7,069
	전체	54.8	41.3	3.9	505	12,9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이 절에서는 55~6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때 현재 일을 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이 20%로 가장 많고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19.2%),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5.5%) 순서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5~59세는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21.9%), '건강이 좋지 않아서'(18.9%),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6.7%) 순서로 전체 응답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60~64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19.5%)가 가장 높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5~64세 여성은 일을 그만둔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27.4%로 가장 높고, 55~59세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퇴직 비율이 28.3%로 더 높다. 남성 55~64세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1.4%에 불과하여 같은 연령대의 여성과 큰 차이(26%포인트)를 보인다.

〈부표 1-12〉 고령자의 연령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천 명, %)

구분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의 휴업, 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전체
남성	55~59세	4.8	22.9	28.0	13.7	1.6	11.6	1.6	0.7	10.1	5.0	997
	60~64세	22.7	17.2	21.5	12.2	1.3	12.8	4.0	0.2	6.0	2.0	1,025
	전체	13.9	20.0	24.7	13.0	1.4	12.2	2.8	0.4	8.0	3.5	2,022
여성	55~59세	1.4	5.1	17.1	9.5	28.3	24.5	4.1	1.4	2.5	6.2	1,292
	60~64세	4.8	5.1	14.5	9.4	26.4	25.8	6.8	1.5	1.6	4.1	1,089
	전체	2.9	5.1	15.9	9.4	27.4	25.1	5.4	1.5	2.1	5.2	2,381
전체	55~59세	2.9	12.8	21.9	11.3	16.7	18.9	3.0	1.1	5.8	5.7	2,288
	60~64세	13.5	11.0	17.9	10.8	14.2	19.5	5.5	0.9	3.7	3.1	2,114
	전체	8.0	11.9	20.0	11.1	15.5	19.2	4.2	1.0	4.8	4.4	4,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로 초졸 이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32.2%)가 가장 높았다. 중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25.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고졸 이상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5.9%)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초졸 이하와 중졸)과 비교하여 3배 가까이 높다. 여성 고졸 이상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34.0%로 가족돌봄으로 인한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 고졸 이상은 1.6%에 불과하다.

〈부표 1-13〉 고령자의 학력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천 명, %)

구분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의 휴업, 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전체
남성	초졸 이하	8.0	6.4	32.8	10.3	1.0	29.5	4.5	0.4	4.4	2.7	224
	중졸	11.5	9.9	29.4	14.5	1.0	17.9	5.6	0.4	6.9	3.0	359
	고졸 이상	15.4	24.7	22.3	13.0	1.6	8.1	1.9	0.4	8.9	3.8	1,439
	전체	13.9	20.0	24.7	13.0	1.4	12.2	2.8	0.4	8.0	3.5	2,022
여성	초졸 이하	3.4	4.3	17.5	9.9	19.3	33.4	7.2	1.0	1.0	3.1	479
	중졸	2.8	3.2	16.5	11.0	19.8	30.5	6.0	0.9	2.6	6.7	603
	고졸 이상	2.8	6.2	15.1	8.5	34.0	19.5	4.4	1.9	2.2	5.3	1,299
	전체	2.9	5.1	15.9	9.4	27.4	25.1	5.4	1.5	2.1	5.2	2,381
전체	초졸 이하	4.9	5.0	22.3	10.0	13.5	32.2	6.3	0.8	2.0	3.0	703
	중졸	6.1	5.7	21.3	12.3	12.8	25.8	5.8	0.7	4.2	5.3	962
	고졸 이상	9.4	15.9	18.9	10.9	17.0	13.5	3.0	1.1	5.7	4.5	2,738
	전체	8.0	11.9	20.0	11.1	15.5	19.2	4.2	1.0	4.8	4.4	4,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로 무배우자의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7.2%),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22.2%)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유배우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19.4%), '건강이 좋지 않아서'(17.2%),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5.9%)로 무배우자 집단에 비해 건강과 일거리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가족돌봄 비율은 높다. 성별로는 여성 무배우

집단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30.9%)가 높은 편이고, 남성 무배우 집단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30.6%)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여성 유배우 집단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29.9%로 30%에 육박하여 가장 높다.

〈부표 1-14〉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천 명, %)

구분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의 휴업, 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전체
남성	무배우	3.1	16.1	30.6	9.1	3.6	20.4	5.0	1.1	6.6	4.3	600
	유배우	15.8	20.7	23.7	13.6	1.1	10.8	2.4	0.3	8.3	3.4	1,422
	전체	13.9	20.0	24.7	13.0	1.4	12.2	2.8	0.4	8.0	3.5	2,022
여성	무배우	3.9	6.1	17.7	9.9	19.3	30.9	6.2	0.7	1.6	3.9	329
	유배우	2.6	4.8	15.4	9.3	29.9	23.3	5.1	1.7	2.2	5.6	2,052
	전체	2.9	5.1	15.9	9.4	27.4	25.1	5.4	1.5	2.1	5.2	2,381
전체	무배우	3.6	9.6	22.2	9.6	13.8	27.2	5.8	0.8	3.4	4.0	929
	유배우	9.0	12.5	19.4	11.4	15.9	17.2	3.8	1.0	5.2	4.5	3,474
	전체	8.0	11.9	20.0	11.1	15.5	19.2	4.2	1.0	4.8	4.4	4,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로 연금이 없는 집단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22.0%), '건강이 좋지 않아서'(20.5%)로 두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연금이 있는 집단은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다. 55~64세 전체 응답자 중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8%인 것에 비해 연금을 수령하는 집단의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배 이상 높다. 성별로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연금 받는 집단이 34%, 여성 연금 받는 집단이 11.2%로 연금을 받는 집단 내에서도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별 격차는 2배 이상 났다.

〈부표 1-15〉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천 명, %)

구분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의 휴업, 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전체
남성	연금유	34.0	23.2	12.6	8.0	1.1	9.6	3.0	0.4	5.7	2.6	303
	연금무	5.4	18.7	29.8	15.1	1.6	13.3	2.7	0.4	9.1	3.9	1,719
	전체	13.9	20.0	24.7	13.0	1.4	12.2	2.8	0.4	8.0	3.5	2,022
여성	연금유	11.2	11.9	12.2	11.2	17.4	22.7	5.8	1.6	1.7	4.3	560
	연금무	1.6	4.0	16.5	9.2	29.0	25.5	5.3	1.4	2.1	5.4	1,821
	전체	2.9	5.1	15.9	9.4	27.4	25.1	5.4	1.5	2.1	5.2	2,381
전체	연금유	25.9	19.2	12.4	9.1	6.9	14.2	4.0	0.8	4.3	3.2	863
	연금무	3.2	10.0	22.0	11.6	17.8	20.5	4.2	1.0	5.0	4.8	3,540
	전체	8.0	11.9	20.0	11.1	15.5	19.2	4.2	1.0	4.8	4.4	4,4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83.0%로 여성 85.2%보다 2.2%포인트 낮다. 연령별로는 55~59세를 제외하고 60세 이상부터는 5세 구간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성별로는 60~64세 남성이 구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7.1%로 성별 연령별 비교에서 유일하게 8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부표 1-16〉 고령자의 연령별 구직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남성	55~59세	82.8	1,689	6.7	3.0	7.5	2,040
	60~64세	77.1	1,186	11.5	3.1	8.3	1,538
	65~69세	83.9	883	8.1	3.5	4.6	1,052
	70~74세	87.3	711	7.5	2.1	3.0	814
	75~79세	90.2	602	7.5	1.3	1.1	667
	전체	83.0	5,070	8.3	2.8	5.9	6,111
여성	55~59세	82.5	1,699	11.2	3.2	3.1	2,060
	60~64세	85.8	1,369	9.3	2.1	2.7	1,596
	65~69세	87.7	1,077	7.8	1.9	2.6	1,228
	70~74세	85.7	903	11.0	1.7	1.6	1,053
	75~79세	86.5	752	10.5	2.1	0.9	869
	전체	85.2	5,799	10.0	2.3	2.4	6,805
전체	55~59세	82.6	3,388	8.9	3.1	5.3	4,099
	60~64세	81.5	2,554	10.4	2.6	5.5	3,133
	65~69세	85.9	1,959	7.9	2.6	3.5	2,280
	70~74세	86.4	1,614	9.5	1.9	2.2	1,868
	75~79세	88.1	1,353	9.2	1.7	1.0	1,536
	전체	84.2	10,869	9.2	2.6	4.1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고졸 이상이 85%로 가장 높고, 초졸 이하(83.4%)와 중졸(83.2%)은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 고졸 이상이 구직 경험 없는 비율이 86.8%로 성별 학력별 비교에서 가장 높다.

〈부표 1-17〉 고령자의 학력별 구직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남성	초졸 이하	82.9	972	8.3	3.0	5.8	1,172
	중졸	80.3	949	9.9	3.0	6.8	1,182
	고졸 이상	83.8	3,149	7.8	2.7	5.7	3,757
	전체	83.0	5,070	8.3	2.8	5.9	6,111
여성	초졸 이하	83.6	2,241	11.4	2.7	2.3	2,682
	중졸	85.4	1,312	10.2	2.1	2.2	1,536
	고졸 이상	86.8	2,246	8.5	2.1	2.7	2,587
	전체	85.2	5,799	10.0	2.3	2.4	6,805
전체	초졸 이하	83.4	3,213	10.5	2.8	3.4	3,854
	중졸	83.2	2,261	10.1	2.5	4.2	2,718
	고졸 이상	85.0	5,394	8.1	2.4	4.4	6,344
	전체	84.2	10,869	9.2	2.6	4.1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유배우 집단(85.5%)이 무배우 집단(79.6%)보다 5.9%포인트 높다. 성별로 남성 무배우 집단은 구직 경험 없음 비율이 77.3%로 낮은 편이다.

〈부표 1-18〉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구직 경험(2017. 5.)

(단위: 천 명,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남성	무배우	77.3	595	8.8	3.7	10.2	770
	유배우	83.8	4,475	8.2	2.7	5.3	5,341
	전체	83.0	5,070	8.3	2.8	5.9	6,111
여성	무배우	80.5	1,809	13.5	3.2	2.9	2,248
	유배우	87.6	3,990	8.3	1.9	2.2	4,557
	전체	85.2	5,799	10.0	2.3	2.4	6,805
전체	무배우	79.6	2,404	12.3	3.3	4.7	3,019
	유배우	85.5	8,465	8.3	2.3	3.9	9,898
	전체	84.2	10,869	9.2	2.6	4.1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유무별 구직 경험 유무의 차이가 거의 없다. 연금이 있는 집단이 84.4%, 연금이 없는 집단이 83.9%이다. 성별로 남성은 연금이 있는 집단이 연금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직 경험 없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로 연금이 없는 집단이 연금이 있는 집단에 비해 구직 경험 없는 비율이 높다.

〈부표 1-19〉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구직 경험

(단위: 천 명,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남성	연금 있음	84.1	2,550	9.3	2.7	4.0	3,034
	연금 없음	81.9	2,520	7.3	2.9	7.8	3,077
	전체	83.0	5,070	8.3	2.8	5.9	6,111
여성	연금 있음	84.9	2,387	10.9	2.2	2.0	2,814
	연금 없음	85.5	3,412	9.4	2.4	2.7	3,992
	전체	85.2	5,799	10.0	2.3	2.4	6,805
전체	연금 있음	84.4	4,938	10.1	2.5	3.0	5,847
	연금 없음	83.9	5,932	8.5	2.6	4.9	7,069
	전체	84.2	10,869	9.2	2.6	4.1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라. 장래 계속 근로 여부

고령자 중 장래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2.4%이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74.8%로 여성 51.2%보다 23.6%포인트 높다. 연령별로는 55~59세의 계속 근로 원함 비율이 79.6%로 가장 높고, 75~79세가 28.2%로 가장 낮다. 남성의 경우 55~59세 90%, 60~64세 85.3%, 65~69세 70.2%로 남성은 60대까지 10명 중 7명 이상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표 1-20〉 고령자의 연령별 계속 근로 여부

(단위: 천 명, %)

구분		원함		원하지 않음	전체
남성	55~59세	90.0	1,836	10.0	2,040
	60~64세	85.3	1,312	14.7	1,538
	65~69세	70.2	738	29.8	1,052
	70~74세	54.1	440	45.9	814
	75~79세	36.4	243	63.7	667
	전체	74.8	4,569	25.2	6,111
여성	55~59세	69.3	1,426	30.7	2,060
	60~64세	58.4	931	41.6	1,596
	65~69세	46.8	575	53.2	1,228
	70~74세	34.4	363	65.5	1,053
	75~79세	21.9	191	78.0	869
	전체	51.2	3,486	48.8	6,805
전체	55~59세	79.6	3,263	20.4	4,099
	60~64세	71.6	2,243	28.4	3,133
	65~69세	57.6	1,313	42.4	2,280
	70~74세	43.0	803	57.0	1,868
	75~79세	28.2	433	71.8	1,536
	전체	62.4	8,055	37.6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로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초졸 이하가 50.4%로 가장 낮고, 중졸 63.4%, 고졸 69.2%로 높다. 성별로는 여성 초졸 이하만을 제외하고, 그 외 남녀 모두 계속 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부표 1-21〉 고령자의 학력별 계속 근로 여부

(단위: 천 명, %)

구분		원함		원하지 않음	전체
남성	초졸 이하	63.3	742	36.7	1,172
	중졸	73.9	874	26.1	1,182
	고졸 이상	78.6	2,953	21.4	3,757
	전체	74.8	4,569	25.2	6,111
여성	초졸 이하	44.7	1,199	55.3	2,682
	중졸	55.3	849	44.7	1,536
	고졸 이상	55.6	1,438	44.4	2,587
	전체	51.2	3,486	48.8	6,805
전체	초졸 이하	50.4	1,941	49.6	3,854
	중졸	63.4	1,723	36.6	2,718
	고졸 이상	69.2	4,391	30.8	6,344
	전체	62.4	8,055	37.6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로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유배우자가 64.7%로 무배우자 54.7%보다 1%포인트 높다.

〈부표 1-22〉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계속 근로 여부

(단위: 천 명, %)

구분		원함		원하지 않음	전체
남성	무배우	68.9	530	31.2	770
	유배우	75.6	4,039	24.4	5,341
	전체	74.8	4,569	25.2	6,111
여성	무배우	49.9	1,121	50.1	2,248
	유배우	51.9	2,365	48.1	4,557
	전체	51.2	3,486	48.8	6,805
전체	무배우	54.7	1,651	45.3	3,019
	유배우	64.7	6,403	35.3	9,898
	전체	62.4	8,055	37.6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연금 수령 집단 52.4%, 연금 미수령 집단 70.6%로 두 집단의 격차가 18.2%포인트이다. 성별로 연금 미수령 집단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은 남성(86.6%)이 여성(58.2%)보다 높다.

〈부표 1-23〉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계속 근로 여부

(단위: 천 명, %)

구분		원함		원하지 않음	전체
남성	연금 있음	62.7	1,902	37.3	3,034
	연금 없음	86.6	2,666	13.4	3,077
	전체	74.8	4,569	25.2	6,111
여성	연금 있음	41.4	1,164	58.6	2,814
	연금 없음	58.2	2,322	41.8	3,992
	전체	51.2	3,486	48.8	6,805
전체	연금 있음	52.4	3,067	47.6	5,847
	연금 없음	70.6	4,988	29.4	7,069
	전체	62.4	8,055	37.6	12,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마. 희망 은퇴 연령(계속 근로 희망자 대상)

55~79세 중 장래 계속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2.4%(805만 5000명)이다. 이들이 원하는 은퇴 연령은 72.3세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2.9세로 여성 71.4세보다 조금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은퇴 연령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55~59세 집단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69.4세로 현재 본인 연령대보다 최대 10년 더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표 1-24〉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단위: 천 명, 세)

구분		천 명	세
남성	55~59세	1,836	70.4
	60~64세	1,312	72.1
	65~69세	738	74.9
	70~74세	440	78.0
	75~79세	243	81.3
	전체	4,569	72.9
여성	55~59세	1,426	68.1
	60~64세	931	70.5
	65~69세	575	74.0
	70~74세	363	77.9
	75~79세	191	81.1
	전체	3,486	71.4
전체	55~59세	3,263	69.4
	60~64세	2,243	71.5
	65~69세	1,313	74.5
	70~74세	803	78.0
	75~79세	433	81.2
	전체	8,055	7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 희망 은퇴 연령은 초졸 이하가 74.7세로 가장 많고, 중졸 72.3세, 고졸 이상 71.2세 순이다. 여성 고졸 이상의 희망 은퇴 연령은 69.4세로 성별 학력별 비교 집단 중 유일하게 70세 미만이다.

〈부표 1-25〉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단위: 천 명, %)

구분		천 명	세
남성	초졸 이하	742	75.2
	중졸	874	73.6
	고졸 이상	2,953	72.1
	전체	4,569	72.9
여성	초졸 이하	1,199	74.4
	중졸	849	70.8
	고졸 이상	1,438	69.4
	전체	3,486	71.4
전체	초졸 이하	1,941	74.7
	중졸	1,723	72.3
	고졸 이상	4,391	71.2
	전체	8,055	7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희망 은퇴 연령은 72.1세로 배우자 없는 집단의 73.1세보다 1세 적다. 성별로는 남성의 배우자 유무별 희망 은퇴 연령 차이는 0.1세이며 여성은 2.4세로 여성 집단에서 배우자 유무별 희망 은퇴 연령 격차가 더 크다.

〈부표 1-26〉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단위: 천 명, %)

구분		천 명	세
남성	무배우	530	73.0
	유배우	4,039	72.9
	전체	4,569	72.9
여성	무배우	1,121	73.1
	유배우	2,365	70.7
	전체	3,486	71.4
전체	무배우	1,651	73.1
	유배우	6,403	72.1
	전체	8,055	7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유무별 희망 은퇴 연령은 연금이 있는 집단이 75.3세로, 연금이 없는 집단 70.5세보다 4.8세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연금이 있는 집단의 희망 은퇴 연령은 여성 75.3세, 남성 75.2세로 차이가 거의 없다.

〈부표 1-27〉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은퇴 평균 연령

(단위: 천 명, %)

구분		천 명	세
남성	연금 있음	1,902	75.2
	연금 없음	2,666	71.3
	전체	4,569	72.9
여성	연금 있음	1,164	75.3
	연금 없음	2,322	69.5
	전체	3,486	71.4
전체	연금 있음	3,067	75.3
	연금 없음	4,988	70.5
	전체	8,055	7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바. 일자리 선택 기준(계속 근로 희망자 대상)

55~79세가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일의 양과 시간대'(26.3%), '임금수준'(25%), '계속 근로 가능성'(16.6%)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일의 양과 시간대' 34.9%, '임금수준' 22.7%이며, 남성은 '임금수준' 26.7%, '일의 양과 시간대' 19.8%, '계속 근로 가능성' 19.2%로 남녀 간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반대로 '일의 양과 시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부표 1-28〉 고령자의 연령별 일자리 선택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사무직/ 생산직 등)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위치)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	전체
남성	55~59세	32.7	14.0	14.1	2.4	0.4	20.2	14.2	2.0	0.1	1,836
	60~64세	26.6	19.2	15.1	3.9	0.3	18.3	14.9	1.4	0.3	1,312
	65~69세	21.4	22.3	12.7	7.3	0.2	21.0	14.0	0.7	0.3	738
	70~74세	17.4	31.6	14.1	6.0	0.0	17.3	12.6	1.0	0.0	440
	75~79세	14.8	37.4	13.2	6.7	0.2	13.0	12.3	1.8	0.4	243
	전체	26.7	19.8	14.1	4.2	0.3	19.2	14.1	1.5	0.2	4,569
여성	55~59세	26.1	29.9	13.4	8.2	0.4	14.1	7.5	0.3	0.1	1,426
	60~64세	23.2	32.4	12.6	8.5	0.0	14.7	8.0	0.6	0.0	931
	65~69세	19.3	40.6	10.9	7.7	0.1	11.5	9.4	0.5	0.0	575
	70~74세	17.4	44.0	12.4	9.2	0.2	10.9	5.9	0.0	0.0	363
	75~79세	15.7	50.0	9.8	8.2	0.0	8.6	7.7	0.0	0.0	191
	전체	22.7	34.9	12.5	8.3	0.2	13.2	7.8	0.4	0.1	3,486
전체	55~59세	29.8	21.0	13.8	4.9	0.4	17.5	11.2	1.3	0.1	3,263
	60~64세	25.2	24.7	14.0	5.8	0.2	16.8	12.0	1.1	0.1	2,243
	65~69세	20.5	30.3	11.9	7.5	0.2	16.8	12.0	0.6	0.2	1,313
	70~74세	17.4	37.2	13.3	7.4	0.1	14.5	9.5	0.5	0.0	803
	75~79세	15.2	43.0	11.7	7.4	0.1	11.1	10.3	1.0	0.2	433
	전체	25.0	26.3	13.4	6.0	0.2	16.6	11.4	1.0	0.1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수준별 일자리 선택 기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상은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4.9%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표 1-29〉 고령자의 학력별 일자리 선택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사무직/생산직 등)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위치)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	전체
남성	초졸 이하	25.5	23.8	13.0	4.5	0.1	18.2	14.5	0.4	0.0	742
	중졸	28.7	21.1	12.5	4.9	0.3	18.7	13.5	0.2	0.1	874
	고졸 이상	26.4	18.4	14.8	3.9	0.3	19.5	14.2	2.2	0.3	2,953
	전체	26.7	19.8	14.1	4.2	0.3	19.2	14.1	1.5	0.2	4,569
여성	초졸 이하	22.7	36.5	11.6	8.9	0.1	12.3	7.8	0.0	0.1	1,199
	중졸	24.4	37.1	9.6	7.8	0.2	13.8	7.1	0.0	0.0	849
	고졸 이상	21.7	32.3	14.9	8.1	0.3	13.6	8.1	0.9	0.1	1,438
	전체	22.7	34.9	12.5	8.3	0.2	13.2	7.8	0.4	0.1	3,486
전체	초졸 이하	23.8	31.6	12.1	7.2	0.1	14.6	10.4	0.1	0.0	1,941
	중졸	26.6	29.0	11.1	6.3	0.2	16.3	10.3	0.1	0.1	1,723
	고졸 이상	24.8	22.9	14.9	5.3	0.3	17.6	12.2	1.8	0.2	4,391
	전체	25.0	26.3	13.4	6.0	0.2	16.6	11.4	1.0	0.1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 일자리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유배우자는 무배우자에 비해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3.6%포인트 높다.

〈부표 1-30〉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일자리 선택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사무직/생산직 등)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위치)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	전체
남성	무배우	29.3	21.0	10.9	4.4	0.2	22.6	10.9	0.6	0.1	530
	유배우	26.3	19.6	14.5	4.2	0.3	18.7	14.5	1.6	0.2	4,039
	전체	26.7	19.8	14.1	4.2	0.3	19.2	14.1	1.5	0.2	4,569
여성	무배우	23.5	38.0	10.4	8.6	0.2	11.6	7.5	0.1	0.1	1,121
	유배우	22.3	33.4	13.5	8.2	0.2	13.9	7.9	0.5	0.1	2,365
	전체	22.7	34.9	12.5	8.3	0.2	13.2	7.8	0.4	0.1	3,486
전체	무배우	25.4	32.5	10.5	7.2	0.2	15.1	8.6	0.3	0.1	1,651
	유배우	24.8	24.7	14.1	5.7	0.3	17.0	12.1	1.2	0.1	6,403
	전체	25.0	26.3	13.4	6.0	0.2	16.6	11.4	1.0	0.1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 일자리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금이 없는 집단(28.2%)은 연금이 있는 집단(19.7%)에 비해 '임금수준'을 선택한 비율이 8.5%포인트 더 높다.

〈부표 1-31〉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일자리 선택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사무직/생산직 등)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위치)	사업장 규모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	전체
남성	연금유	19.8	25.5	14.2	6.5	0.2	18.5	13.8	1.2	0.3	1,902
	연금무	31.6	15.7	14.0	2.6	0.3	19.6	14.3	1.7	0.1	2,666
	전체	26.7	19.8	14.1	4.2	0.3	19.2	14.1	1.5	0.2	4,569
여성	연금유	19.7	40.6	11.1	9.1	0.1	11.5	7.8	0.0	0.0	1,164
	연금무	24.2	32.1	13.2	7.9	0.3	14.0	7.7	0.6	0.1	2,322
	전체	22.7	34.9	12.5	8.3	0.2	13.2	7.8	0.4	0.1	3,486
전체	연금유	19.7	31.2	13.0	7.5	0.2	15.8	11.6	0.8	0.2	3,067
	연금무	28.2	23.3	13.6	5.0	0.3	17.0	11.2	1.2	0.1	4,988
	전체	25.0	26.3	13.4	6.0	0.2	16.6	11.4	1.0	0.1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사. 희망 근로 형태(계속 근로 희망자 대상)

55~79세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근로 형태는 전일제 64.5%, 시간제 35.5%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시간제 51.5%, 전일제 48.5%로, 시간제를 원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남성은 전일제 76.7%, 시간제 23.3%로,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

〈부표 1-32〉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근로 형태

(단위: 천 명, %)

구분		전일제		시간제	전체
남성	55~59세	87.6	1,608	12.4	1,836
	60~64세	80.7	1,059	19.3	1,312
	65~69세	69.5	513	30.5	738
	70~74세	53.5	236	46.6	440
	75~79세	36.7	89	63.4	243
	전체	76.7	3,504	23.3	4,569
여성	55~59세	59.7	852	40.3	1,426
	60~64세	52.4	488	47.6	931
	65~69세	38.9	224	61.0	575
	70~74세	26.7	97	73.3	363
	75~79세	16.8	32	83.2	191
	전체	48.5	1,692	51.5	3,486
전체	55~59세	75.4	2,460	24.6	3,263
	60~64세	69.0	1,547	31.0	2,243
	65~69세	56.1	737	43.9	1,313
	70~74세	41.4	332	58.7	803
	75~79세	27.9	121	72.1	433
	전체	64.5	5,197	35.5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은 초졸 이하 52.6%, 중졸 64.7%, 고졸 이상 69.7%이다.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가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고졸 이상이 가장 높다. 반면 여성은 고졸 이상보다 중졸이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아 남성과 차이가 있다.

〈부표 1-33〉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근로 형태

(단위: 천 명, %)

구분		전일제		시간제	전체
남성	초졸 이하	67.4	500	32.6	742
	중졸	76.5	668	23.6	874
	고졸 이상	79.1	2,336	20.9	2,953
	전체	76.7	3,504	23.3	4,569
여성	초졸 이하	43.5	521	56.5	1,199
	중졸	52.6	447	47.3	849
	고졸 이상	50.4	725	49.6	1,438
	전체	48.5	1,692	51.5	3,486
전체	초졸 이하	52.6	1,021	47.4	1,941
	중졸	64.7	1,115	35.3	1,723
	고졸 이상	69.7	3,061	30.3	4,391
	전체	64.5	5,197	35.5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유배우 집단에서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은 66.9%로 무배우 집단의 55.2%보다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유배우가 무배우보다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남성도 무배우보다 유배우가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

〈부표 1-34〉 고령자의 배우자 희망 근로 형태

(단위: 천 명, %)

구분		전일제		시간제	전체
남성	무배우	75.1	398	24.9	530
	유배우	76.9	3,106	23.1	4,039
	전체	76.7	3,504	23.3	4,569
여성	무배우	45.8	513	54.2	1,121
	유배우	49.9	1,179	50.1	2,365
	전체	48.5	1,692	51.5	3,486
전체	무배우	55.2	911	44.8	1,651
	유배우	66.9	4,285	33.1	6,403
	전체	64.5	5,197	35.5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 전일제 희망 비율을 살펴보면 연금이 없는 집단(71.5%)보다 연금이 있는 집단(53.1%)이 더 높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부표 1-35〉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근로 형태

(단위: 천 명, %)

구분		전일제		시간제	전체
남성	연금 있음	64.9	1,234	35.1	1,902
	연금 없음	85.1	2,270	14.9	2,666
	전체	76.7	3,504	23.3	4,569
여성	연금 있음	33.9	394	66.2	1,164
	연금 없음	55.9	1,298	44.1	2,322
	전체	48.5	1,692	51.5	3,486
전체	연금 있음	53.1	1,629	46.9	3,067
	연금 없음	71.5	3,568	28.5	4,988
	전체	64.5	5,197	35.5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아. 희망 임금수준(계속 근로 희망자 대상)

55~79세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월 희망 임금수준은 월 150만~200만 원이 27.4%로 가장 많고, 이어 월 100만~150만 원 26.3%, 월 50만~100만 원 16.8% 순으로 많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월 150만~200만 원이 32.4%로 가장 많고, 여성은 월 100만~150만 원이 32.2%로 가장 많아 남녀 차이가 확인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5~59세와 60~64세는 월 150만~200만 원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5~69세는 월 100만~150만 원(33.0%), 70~74세와 75~79세는 월 50만~100만 원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부표 1-36〉 고령자의 연령별 희망 임금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월평균 30만 원 미만	월평균 30만~ 50만 원 미만	월평균 50만~ 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만~ 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만~ 200만 원 미만	월평균 200만~ 250만 원 미만	월평균 250만~ 300만 원 미만	월평균 300만 원 이상	전체
남성	55~59세	0.1	0.3	2.7	11.6	31.6	29.4	10.0	14.3	1,836
	60~64세	0.1	0.6	5.0	22.5	39.2	20.9	4.9	6.8	1,312
	65~69세	0.3	1.6	12.7	34.4	33.8	11.2	2.5	3.5	738
	70~74세	1.3	5.3	22.3	38.2	22.9	6.5	1.1	2.4	440
	75~79세	4.7	16.2	32.9	24.6	15.5	4.5	0.4	1.2	243
	전체	0.5	1.9	8.5	21.7	32.4	20.5	6.0	8.5	4,569
여성	55~59세	0.1	1.9	18.3	34.6	29.9	9.4	2.2	3.7	1,426
	60~64세	0.4	3.7	27.7	37.8	22.3	6.0	1.1	1.0	931
	65~69세	2.1	11.1	39.0	31.2	12.3	2.8	0.2	1.3	575
	70~74세	9.3	21.9	41.2	20.0	4.7	2.0	0.3	0.6	363
	75~79세	14.2	32.8	36.5	13.3	2.4	0.8	0.0	0.0	191
	전체	2.2	7.7	27.6	32.2	20.8	6.1	1.3	2.1	3,486
전체	55~59세	0.1	1.0	9.5	21.7	30.9	20.6	6.6	9.6	3,263
	60~64세	0.2	1.9	14.4	28.9	32.2	14.7	3.3	4.4	2,243
	65~69세	1.1	5.7	24.2	33.0	24.4	7.5	1.5	2.5	1,313
	70~74세	4.9	12.8	30.8	30.0	14.7	4.5	0.7	1.6	803
	75~79세	8.9	23.5	34.5	19.6	9.8	2.9	0.2	0.6	433
	전체	1.2	4.4	16.8	26.3	27.4	14.3	3.9	5.7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와 중졸은 '월 100만~15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월 150만~200만 원'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여성 초졸 이하는 '월 50만~10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34.5%로 가장 높다. 나머지 중졸과 고졸 이상은 '월 100만~15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남성은 초졸 이하는 '월 100만~15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중졸과 고졸 이상은 '월 150만~200만 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부표 1-37〉 고령자의 학력별 희망 임금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월평균 30만 원 미만	월평균 30만~50만 원 미만	월평균 50만~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만~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만~200만 원 미만	월평균 200만~250만 원 미만	월평균 250만~300만 원 미만	월평균 300만 원 이상	전체
남성	초졸 이하	1.2	4.7	17.7	30.3	29.9	11.1	2.1	3.1	742
	중졸	0.8	2.2	9.1	27.0	35.0	18.5	3.3	4.1	874
	고졸 이상	0.2	1.2	6.0	18.0	32.3	23.4	7.7	11.2	2,953
	전체	0.5	1.9	8.5	21.7	32.4	20.5	6.0	8.5	4,569
여성	초졸 이하	4.7	13.4	34.5	31.0	13.1	2.4	0.3	0.6	1,199
	중졸	1.6	6.0	27.1	34.5	22.2	6.2	1.1	1.4	849
	고졸 이상	0.5	3.9	22.2	32.0	26.5	9.2	2.1	3.7	1,438
	전체	2.2	7.7	27.6	32.2	20.8	6.1	1.3	2.1	3,486
전체	초졸 이하	3.4	10.1	28.1	30.7	19.5	5.7	1.0	1.5	1,941
	중졸	1.2	4.1	17.9	30.7	28.7	12.4	2.2	2.8	1,723
	고졸 이상	0.3	2.1	11.3	22.6	30.4	18.8	5.9	8.7	4,391
	전체	1.2	4.4	16.8	26.3	27.4	14.3	3.9	5.7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배우자 유무별 희망 임금수준은 무배우자는 '월 100만~150만 원 미만'(27.7%)이 가장 높고, 유배우자 '월 150만~200만 원 미만'(28.5%)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남성은 '월 150만~20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월 100만~150만 원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부표 1-38〉 고령자의 배우자 유무별 희망 임금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월평균 30만 원 미만	월평균 30만~ 50만 원 미만	월평균 50만~ 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만~ 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만~ 200만 원 미만	월평균 200만~ 250만 원 미만	월평균 250만~ 300만 원 미만	월평균 300만 원 이상	전체
남성	무배우	0.5	2.6	11.8	24.8	33.6	18.2	4.2	4.2	530
	유배우	0.5	1.8	8.0	21.3	32.3	20.8	6.2	9.1	4,039
	전체	0.5	1.9	8.5	21.7	32.4	20.5	6.0	8.5	4,569
여성	무배우	4.5	11.2	28.8	29.1	18.4	5.7	0.8	1.5	1,121
	유배우	1.1	6.0	27.1	33.7	22.0	6.3	1.4	2.3	2,365
	전체	2.2	7.7	27.6	32.2	20.8	6.1	1.3	2.1	3,486
전체	무배우	3.2	8.5	23.3	27.7	23.3	9.7	1.9	2.4	1,651
	유배우	0.7	3.4	15.1	25.9	28.5	15.5	4.4	6.6	6,403
	전체	1.2	4.4	16.8	26.3	27.4	14.3	3.9	5.7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연금 수령 여부별 희망 임금수준은 연금을 받는 집단은 '월 100만~150만 원 미만'(28.7%)이 가장 높고, 연금이 없는 집단은 '월 150만~200만 원 미만'(30.1%)이 가장 높다.

〈부표 1-39〉 고령자의 연금 유무별 희망 임금수준

(단위: 천 명, %)

구분		월평균 30만 원 미만	월평균 30만~ 50만 원 미만	월평균 50만~ 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만~ 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만~ 200만 원 미만	월평균 200만~ 250만 원 미만	월평균 250만~ 300만 원 미만	월평균 300만 원 이상	전체
남성	연금유	1.1	4.1	14.8	29.5	30.8	12.4	3.3	4.0	1,902
	연금무	0.1	0.4	3.9	16.1	33.6	26.3	7.9	11.8	2,666
	전체	0.5	1.9	8.5	21.7	32.4	20.5	6.0	8.5	4,569
여성	연금유	5.5	16.5	36.6	27.3	10.5	1.9	0.6	1.1	1,164
	연금무	0.6	3.3	23.1	34.7	26.0	8.3	1.6	2.5	2,322
	전체	2.2	7.7	27.6	32.2	20.8	6.1	1.3	2.1	3,486
전체	연금유	2.8	8.8	23.1	28.7	23.1	8.4	2.3	2.9	3,067
	연금무	0.3	1.7	12.9	24.8	30.1	17.9	4.9	7.5	4,988
	전체	1.2	4.4	16.8	26.3	27.4	14.3	3.9	5.7	8,0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2017. 5.)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